

MORNINGCALM

KOREAN AIR 

MAY / JUNE
No.3
2023 VOLUME 47



디지털 매거진으로 만나보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이 잡지는 항균 코팅 처리되었습니다.
This magazine is treated with
an antimicrobial coating.

쌓이는 속도가 다르다

대한항공카드 030 | 070 | 150 | the First



· 연회비: 3~50만원(상품별 상이), 국내 전용/국내외 겸용(MasterCard) 동일 ·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의 연이 적용 - 일시불: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무이자할부: 거래발생시점 기준 동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 준법감시심의필 제220324-024호 (2022.03.24~2023.03.23)



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 3%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
,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카드 발급이
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06



© cristiano barni / Shutterstock.com

14



© Shutterstock

56



© Simon Urwin

AGENDA

04 First Look / LAS VEGAS

파이어 웨이브 트레일
Fire Wave Trail

06 Radar

시드니 / 다낭
Sydney / Da Nang
베를린 / 모나코
Berlin / Monaco
런던 / 뉴욕
London / New York

10 Spotlight / BEIJING

베이징 미학 재발견
Embodying Beijing's Art and Culture

12 Trend

챗GPT가 안내하는 여행
Meet Your New Tour Guide: ChatGPT

WORLD

14 Bucket List / MEXICO

멕시코의 낯선 두 도시
Ultimate Mexican Escape

24 Great Escapes / MARSEILLE

21세기 코즈모폴리스, 마르세유
Port of Plenty

38 Local Life / BOSTON

역동하는 젊은 도시, 보스턴
Creator's Playground

46 Hangout / SINGAPORE

녹색도시 싱가포르로
떠나는 또 하나의 안내서
Alternative Go Green Guide

SPECIAL THEME

56 Sight

탐험가를 매혹시킨 야생의 지구
Encountering Wild Moments

64 Modes

모험의 여정에 탑승하는 법
Riding Into Adventure

70 Stay

랜드마크를 품는 방
Room With a View



On the Cover

'천사들의 도시'로 불리는 로스앤젤레스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미국 전체로 따지면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중 LA의 경제, 정치, 문화 중심지인 다운타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표지 사진은 LA의 역사는 물론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는 월서 그랜드 센터의 모습이다.

Los Angeles, the "City of Angels," is the largest city in California and the second largest in the U.S. after New York City. The downtown area, serving as the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center of LA, is a focal point. Seen on the cover is the Wilshire Grand Center, a historical landmark that contributes to the city's magnificent skyline.



KOREA

- 76 Hidden Korea / SUNCHEON**
 순천 정원 기행
 Garden State of Mind
- 88 K-Food**
 분식의 시대
 The Age of Bunsik
- 94 8 Hours in / SANGAM-DONG**
 문화허브, 상암동
 Sangam-dong, a Cultural Hub
- 102 Inside Korea /
 GANGNEUNG & DONGHAE**
 초여름 동쪽 바닷가
 Summer by the East Sea



Shanghai Poly Theater, 2014, photo by Shigeo Ogawa

CULTURE & ENTERTAINMENT

- 106 K-Artist**
 영광은 진행 중, 송혜교
 Ongoing Glory, Song Hye-kyo
- 108 Design**
 끝없는 청춘, 안도 다다오
 Tadao Ando: Endless Youth
- 112 Report**
 20세기 뮤지션이 돌아왔다
 Revival of 20th Century Musicians
- 116 Preview**
 Movie / TV / Music



© Shutterstock

ETC.

- 122 Last Look / JEJU**
 산방산 용머리해안 지질 트레일
 Sanbangsan Yongmeori
 Coast Geotrail
- 125 Information**
 대한항공의 새로운 소식
 Korean Air News
 왕조로 거듭난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
 Korean Air Jumbos Volleyball Team
 Becomes a Dynasty
 대한항공 5월의 기록
 May Records of Korean Air
 대한항공 서비스 안내
 Korean Air Services

MORNINGCALM

is published bimonthly by **KOREAN AIR LINES CO., LTD.**
 260, Haneul-gil, Gangseo-gu, Seoul, Korea 07505
TEL 82 2 2656 7114 **WEB** www.koreanair.com

PUBLISHER Won-tae Cho

EDITED & DESIGNED BY THE BOOK COMPANY

EDITOR-IN-CHIEF Da-hee Seo

DESIGN DIRECTOR Mi-jin Lee

SENIOR EDITOR Jin Ryu

ENGLISH SECTION EDITOR Jennifer Chang

EDITORS Mi-ji Yoo, Ji-hye Lee

DESIGNERS Won-kyung Lee, Kyoung-hye Park

ENGLISH COPY EDITORS Christopher Price, Brian Stuart, Emma Sparkes

MANAGING DIRECTOR Min-gyeong Kim **PRESIDENT** So-young Lee

226, Bongeunsa-ro, Gangnam-gu, Seoul, Korea

TEL 82 2 3458 7241

ADVERTISING

REPUBLIC OF KOREA

RENO COMMUNICATIONS Co., Ltd. Mr. Jae-sik Seon

RENOTOWN, Songi-ro 145, Songpa-gu, Seoul, Korea 05828

TEL 82 2 3445 1750 **E-MAIL** kr_ad@renocomms.com

WORLDWIDE, FROM OUTSIDE OF KOREA

CHINA Xuejing Bian

A603, Hua Ye International Center, 39 Middle East 4th Ring R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5

TEL 86 (0)10 6585 9671 **E-MAIL** xuejing.bian@mediakeys.com

FRANCE Anne-Sophie Boniface

17, Rue Rouquier 92300 Levallois-Perret **TEL** 33 1 55 47 04 00 **E-MAIL** anne-sophie.boniface@mediakeys.com

HONG KONG Xinxin Zheng

Bonham Strand Trade Center, 135 Bonham Strand, Sheung Wan, Hong Kong **TEL** 852 5260 9380 **E-MAIL** xinxin.zheng@mediakeys.com

ITALY Alessandra Cremonte

Via Teodosia, 2/5, 16129 Genova **TEL** 39 010 596 00 00 **E-MAIL** alessandra.cremonte@mediakeys.com

JAPAN Mathias Bouée

3F 3-22-3, Nishiazabu, Minato-ku, Tokyo, 106-0031 **TEL** 81 (0)50 3736 8934 **E-MAIL** mathias.bouee@mediakeys.com

SINGAPORE / MALAYSIA Daniel Tan

3 Jalan Kledek, Singapore 199259 **TEL** 65 68 36 51 57 **E-MAIL** daniel.tan@mediakeys.com

SPAIN Valentin Prieto

Calle de Anabel Segura 10, 28108 Madrid **TEL** 34 659 82 16 82 **E-MAIL** valentin.prieto@mediakeys.com

SWITZERLAND / GERMANY Vincent Jäggi

Flughofstrasse 50, 8152 Glattbrugg **TEL** 41 44 810 30 15 **E-MAIL** vincent.jaeggli@mediakeys.com

THAILAND Sun-kyung Choi

205/19-21 Soi Thonglor, Sukhumvit 55, North Klongtan-Wattana, 10110 Bangkok **TEL** 66 6 1892 4311 **E-MAIL** sunkyung.choi@mediakeys.com

US / UK Oliver Eills

27E, 28th St., 8th Floor, New York, NY 10016 - USA **TEL** 1 929 304 2620 **E-MAIL** oliver.eills@mediakeys.com

PRINTING Hyosung Printing Co. **DIGITAL IMAGING** Susie Lee

태초의 땅과 만나는 길, 파이어 웨이브 트레일 Swirls in the Hands of Time

라스베이거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밸리오브파이어주립공원의 붉은 사암 사이를 휘젓는 트레일은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는 길. 사막의 마른바람과 불볕 같은 해가 빛은 주홍빛 모래 암석, 아즈텍 사암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파이어 웨이브'는 불의 계곡에서 가장 매혹적인 포인트로 꼽힌다.

Around 80km northeast of Las Vegas is the Fire Wave Trail, winding through the red sandstone formations in the Valley of Fire State Park. Here, it's easy to imagine you're exploring an unknown planet. The Fire Wave, a smooth wind-polished rock shaped like a wave, is an iconic marker for hi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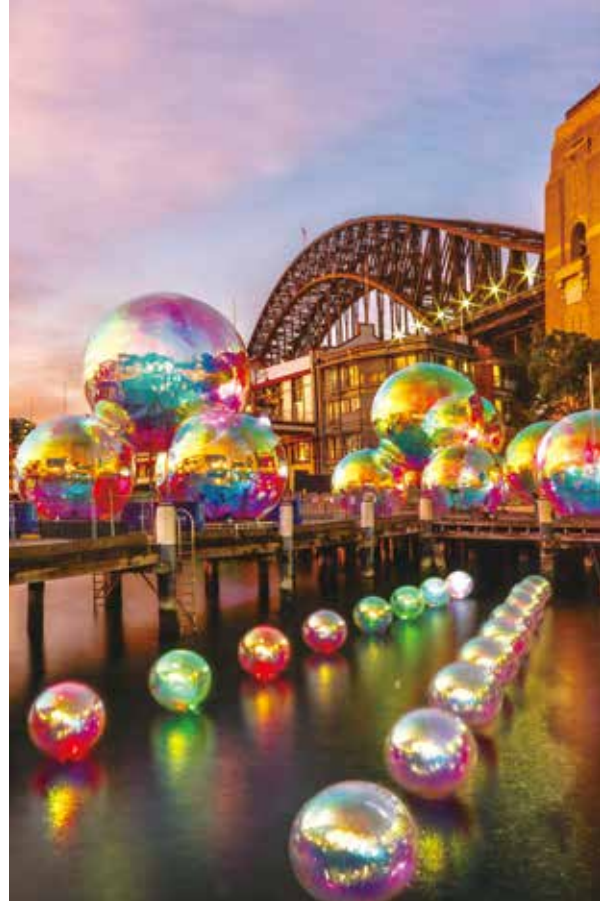


SYDNEY 가장 화려한 밤, 비비드 시드니

A MOST SPECTACULAR NIGHT

‘축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지난 한 해 동안만 14개의 메달을 쓸어간 비비드 시드니가 개최된다. 서큘러 키, 더 록스, 달링 하버, 중앙역을 포함한 8.5km 구간에 설치된 화려한 빛 속을 산책해보자. 생동감 넘치는 야시장과 열정적인 길거리 공연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시드니의 쌀쌀한 날씨도 잊힐 것. 올해는 시드니 중심부의 바랑가루 하우스 레스토랑이나 지하 공간 컷어웨이 등에서 호주 각지에서 모인 유명 셰프들의 음식을 맛보는 비비드 푸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Vivid Sydney returns after scooping up 14 medals at the International Festivals & Events Association Pinnacle Awards last year. From May 26 to June 17, enjoy the Light Walk journey across an 8.5km stretch of splendid lights covering Circular Quay, The Rocks, Darling Harbour and Central Station, with night markets and street performances. Debuting this year is the Vivid Food program. Visit Barangaroo House or go underground to The Cut-away in central Sydney to taste dishes presented by famous chefs from all over Australia.



© Sreelakshmi Clarke

SYDNEY & DA NANG



© Shutterstock

DA NANG 아름답고 치열한 경쟁, 다낭 불꽃 축제

BEAUTIFUL AND FIERCE COMPETITION IN THE SKY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다낭 불꽃 축제가 돌아왔다. 개최국인 베트남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이 참가한다. 6월 2일부터 5주간 두 팀씩 대결해 7월 8일 결승전을 치른다. 각 팀은 올해 축제의 주제인 'World without Distance'에 맞춰 20여 분간 공연을 펼친다. 개막식은 마지막 우승국 핀란드와 주최국 베트남이 대결한다. 1만 7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추고 다낭 한강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크루즈나 한강 다리, 투언 프억 다리, 찐흥다오 거리 등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The Da Nang Fireworks Festival is back! Host country Vietnam will compete against teams from Australia, Canada, Finland, France, Italy, Poland and the UK. Starting June 2, two teams will go head-to-head for five weeks, with the finals on July 8. Each team's 20-minute performance will tackle the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A World Without Distance*. Visitors can enjoy the festival along Da Nang's Han River from a river cruise boat or in many other spots throughout the city.



BERLIN '멀티 컬티' 베를린을 만나는 축제, 베를린 문화 카니발

CELEBRATING BERLIN'S CULTURAL DIVERSITY

매년 5월, 다채로운 베를린의 얼굴이 한데 모이는 베를린 문화 카니발이 열린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순절에 펼쳐지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다. '이민자의 동네' 크로이츠베르크는 화려하게 치장한 수천 명의 카니발 공연자와 이들이 선보이는 음악, 춤, 퍼포먼스 등에 열광하는 여행자로 북적댄다. 미니멀테크노부터 아나톨리아 재즈, 아프로비트, 일본의 퓨전록, 발칸 음악까지 베를린의 풍부한 음악적 지평을 만끽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스트리트 푸드도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Berlin is home to people from over 190 nations. Each spring, residents and tourists celebrate Carnival of Cultures in the city's Kreuzberg district. The highlight of the four-day festival (May 26-29) is a big street parade on Pentecost Sunday. Thousands of performers in dazzling costumes celebrate with music, dance, visual arts and food. Visitors can enjoy Berlin's musical landscape, which goes far beyond the popularity of minimal techno music. Expect to hear Anatolian jazz, Afrobeat, Japanese fusion rock and Balkan beats.

BERLIN & MONACO

MONACO 낭만의 질주, 모나코 그랑프리

REVVING UP FOR THE MONACO GRAND PRIX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F1 시즌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 중 하나인 모나코 그랑프리가 개최된다. 레이싱 선수들은 물론 모터스포츠 팬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모나코 그랑프리는 총 3.337km에 달하는 최고의 난코스과 아름다운 지중해 경관, 아찔한 시가지 서킷, 오랜 역사와 상징성으로 유명하다. 10개 팀, 20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3년 연속 세계 챔피언십을 노리는 레드불 레이싱의 막스 페르스타펜과 같은 팀 소속 세르히오 페레스 사이의 긴장이 팽팽하다. 예측 불가능하고 스틸 넘치는 스포츠의 세계를 즐겨보자.

Twenty drivers on ten teams will race Formula One cars on the historic and challenging 3.337km Circuit de Monaco during the Monaco Grand Prix from May 26-28.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rench Riviera, drivers will zoom through the narrow streets of the principality with thousands of spectators enjoying the thrilling high-speed race. The 2023 season promises plenty of excitement with Max Verstappen aiming to clinch his third championship title, but tensions with Red Bull teammate Sergio Perez could derail the F1 team's dominance.

written by >> JENNIFER CHANG





© Taste of London

🇬🇧 LONDON 영국 미식의 모든 것, 테이스트 오브 런던 2023

EVERYTHING ABOUT THE GASTRONOMY OF BRITAIN

올여름, '맛'을 주제로 런던을 탐험하고 싶다면 리전트파크로 향하자. 2004년부터 런던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푸드 페스티벌, 테이스트 오브 런던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매년 5만 5000여 명의 미각과 허기를 만족시켜온 이 음식 잔치에선 지금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셰프와 레스토랑, 스트리트 푸드, 크래프트 맥주와 커피 신을 만날 수 있다. 테킬라 브랜드 엘히마도르가 선보이는 멕시코 칵테일,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 스쿨, DJ의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기는 바비큐 파티 '파이어 피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놓치지 말자.

To explore London's gastronomic scene, head to Regent's Park. Taste of London, a food festival that has been loved by foodies in England's capital since 2004, will be held from June 14-18. Each summer, around 55,000 hungry Londoners flock here, eager to learn about the hottest celebrity chefs, restaurants, street food, craft beer and coffee. Be sure to sample one of El Jimador's tequila cocktails and try out some cooking lessons at the Taste Cook School.

LONDON & NEWYORK

🇺🇸 NEWYORK 뉴욕의 여름을 여는 뜨거운 음악의 밤, 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 2023

GOVERNORS BALL MUSIC FESTIVAL 2023: HOT MUSIC IN NEW YORK CITY

뉴욕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 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이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돌아왔다. 헤드라이너 리조, 오데자, 켄드릭 라마를 필두로 디플로, 릴 베이비, 릴 나스 엑스 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퀸스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는 K-팝 스타 에스파가 한국인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메인 스테이지에 선다. 축제가 열리는 플러싱메도 코로나 파크에서 음악과 함께 퀸스박물관, 뉴욕 원 월드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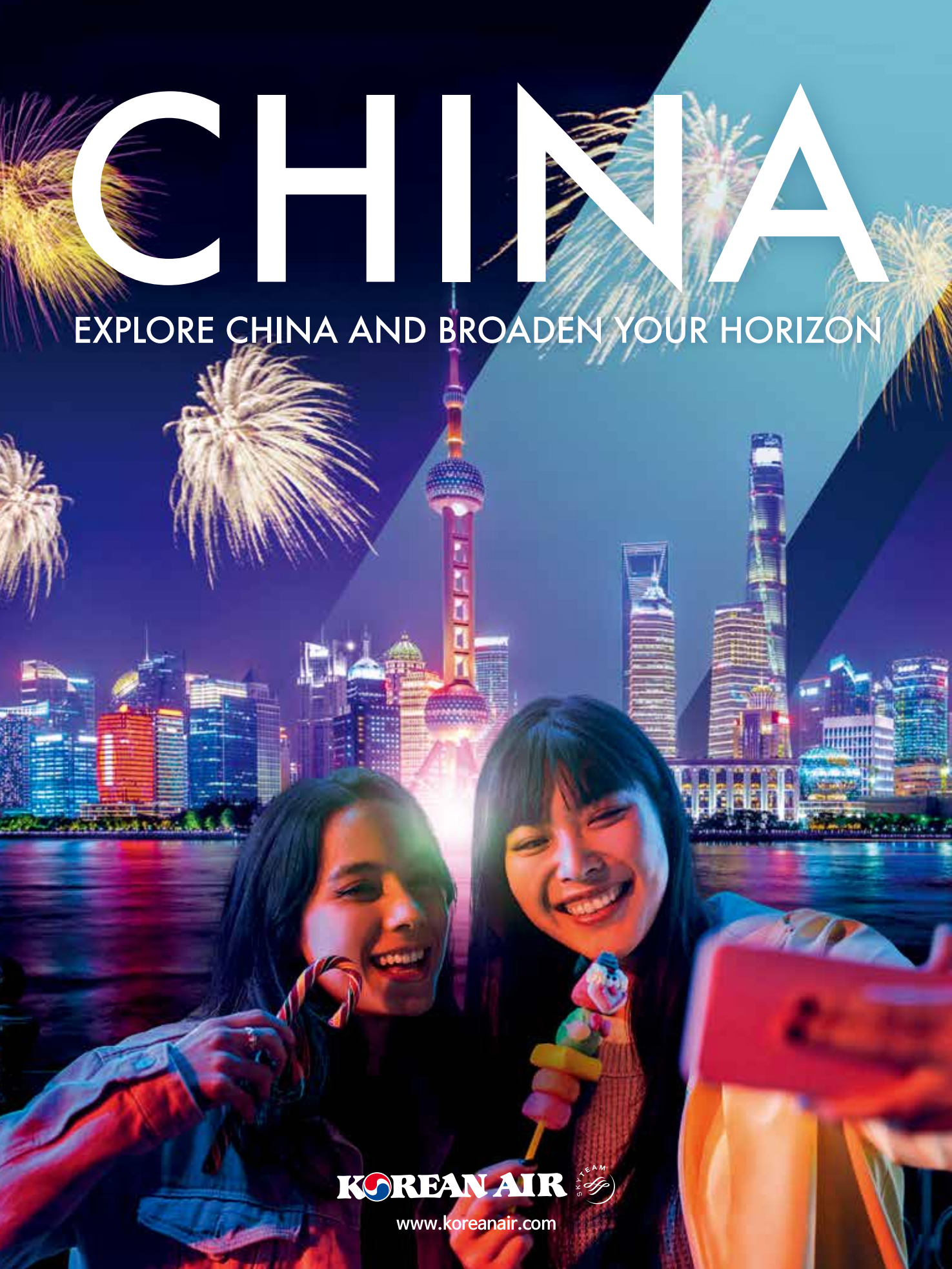
The music festival dubbed "New York's biggest party" has returned with a stellar lineup. Joining headliners Lizzo, Odesza and Kendrick Lamar are other top artists like Diplo, Lil Baby and Lil Nas X. The hottest musicians of today will gather in Queens to perform at the three-day festival, which will run from June 9-11. For the first time, K-pop group aespa will perform. Artists of various genres such as hip-hop, rock and pop will be featured.



© The Governors Ball Music Festival

CHINA

EXPLORE CHINA AND BROADEN YOUR HORIZON



KOREAN AIR 

www.koreanair.com



© HUPTON+CROW

베이징 미학 재발견

Embodying Beijing's Art and Culture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베이징에서 무엇보다도 눈길을 사로잡는 건 혁신적인 예술 공간과 건축물이다.

Beijing is back on the radar. Here are some of the city's eye-catching and innovative spaces for art and architecture.

written by >> LEE JI-HYE



대한항공은 베이징 직항 편을 인천 공항, 제주 공항에서 주 4회, 김포 공항에서 매일 운항한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Beijing from Gimpo International Airport daily. Flights from Incheon and Jeju airports operate 4 times a week.

1 리자 소호 Leeza SOHO

거대한 예술품과도 같은 건축물이 베이징에 들어섰다. 자하 하디드의 유작 중 하나인 리자 소호다. 축을 뒤틀어 만든 곡선, 둥근 마감의 에지가 돋보이는 외관이 시선을 빼앗는 것도 잠시. 진짜 하이라이트는 내부 아트리움이다. 리자 소호의 거대한 아트리움은 높이 194.1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트리움'이란 타이틀을 두바이 버즈 알 아랍 호텔에서 빼앗아왔다. 바닥에서 2개의 나뉜 건물로 시작해 아트리움을 사이에 두고 위에서 만나는 형태다.

A massive architectural masterpiece has been erected in Beijing. Designed by the late Zaha Hadid, Leeza SOHO is an eye-catching work of art featuring twisted curves and rounded edges. The real highlight, however, is the inner atrium. Standing at a height of 194m, it has taken the title of the "world's tallest atrium" from the Burj Al Arab hotel in Dubai. Straddling an underground subway service tunnel, the two halves of the building meet with the giant atrium in the middle, which runs the full height of the building.



가디언 아트센터

Guardian Arts Center

자금성 북동쪽의 오래된 경매장이 베이징을 대표하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베이징의 상징적 건물인 중국중앙텔레비전 본사를 설계한 독일 건축가 올레 셰렌의 작품이다. 곳곳에 있는 돌출된 개방 공간은 베이징 전통가옥의 안뜰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 가디언 아트센터는 예술과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공간을 지향한다. 이를 보여주듯 1700m² 규모의 전시 공간과 레스토랑, 더 푸쉬안 호텔 앤드 스파가 들어서 있다.

The world's first custom-built auction house stands on Wangfujing Street, near the Forbidden City. The Guardian Art Center is the work of German architect Ole Scheeren, known for co-designing the iconic China Central Television Headquarters. The open spaces throughout the building are particularly impressive as modern interpretations of Beijing's traditional *hutong* courtyard houses. Designed as a hybrid space that combines art, culture and lifestyle, this cultural complex includes a 1,700m² column-free exhibition space, a restaurant overlooking the Forbidden City and the PuXuan Hotel and Spa.



© IWAN BAAAN



© Studio Zhupet



798 예술지구

798 Art Zone

다산쯔에 위치한 798 예술지구는 베이징 문화예술의 심장이다. 1950년대에 조성된 군수공장 단지를 박물관과 갤러리, 공방, 카페 등으로 꾸며, '베이징의 소호'로 불린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물론 세계 현대미술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갤러리 위크엔드 베이징' 기간 중에 이곳을 찾을 것. 홍콩, 런던, LA, 파리 등 9개 도시에서 37개 갤러리와 비영리단체가 참가해 전시, 포럼,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Located in Dashanzi, the 798 Art Zone is the heart of the city's arts and culture scene. Originally a 1950s military factory complex, the area is now an art district with museums, galleries, workshops and cafes. Visit the 798 Art Zone during Gallery Weekend Beijing, which runs from May 30 to June 4. Returning for its seventh year, the event will showcase works by 37 exhibitor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nine cities including Hong Kong, London, LA and Paris under the theme of *Visibility*.



© OSTILL is Franek Cambi / Shutterstock.com

챗GPT가 안내하는 여행

Meet Your New Tour Guide: ChatGPT

인공지능 챗봇이 여행 가이드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여행 작가 샬리 하워드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챗GPT에 접속했다. 그는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어떤 모습으로 하게 될까?

Will AI chatbots replace guidebooks and human guides?

Sally Howard puts ChatGPT through its paces on the streets of Tbilisi.

written by » SALLY HOWARD
illustration by » JOE SUNG-HEUM



따뜻한 봄날 저녁, 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는 전통 식당 샤비 로미에서 식사를 마쳤다.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서 먹은 조지아 전통 음식 하차푸리치즈는 더할 나위 없이 바삭바삭했다. 호두 소스로 요리한 향긋한 가지는 모던한 조지아 요리가 무엇인지를 내 혀끝으로 설명했다. 나는 그저 챗GPT에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지아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입력했을 뿐이다. 그런데 챗GPT는 나를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식당으로 안내했다.

챗GPT는 2022년 11월 미국의 스타트업 오픈AI가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이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생성형 사전 학습 트랜스포머라는 의미다. 번역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에세이, 시를 쓸 수도 있다. 최근 여행사들도 저마다 엄청난 정보를 쏟아내는 인공지능 챗봇을 선보이고 있다.ทริป닷컴은 자체 챗봇 서비스 트립젠을 론칭했고 룸어라운드나 베케이챗봇은 챗GP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도 자체 챗봇 바드를 출시했고 내년까지 애플, 메

It’s 6 p.m. on a warm spring evening in Tbilisi, Georgia, and I’m dining on crispy *khachapuri* cheese bread (the national comfort food) and fragrant eggplant doused with walnut sauce in the shade of pomegranate trees. I’m at the much-loved traditional Georgian restaurant Shavi Lomi in old Tbilisi, recommended to me by AI chatbot ChatGPT for its “modern take on Georgian cuisine in a cozy and stylish atmosphere.”

Develop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market leader OpenAI, ChatGPT was launched in November 2022. GPT stands for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nd the tool, which is designed to have human-like communication skills, has since been put through its paces as a language translator, customer service chatbot and poetry and essay author.

Now travel companies are using the novel web-scouring

타, 바이두, 아마존 등이 관련 상품을 쏟아낼 계획이다.

다시 조지아로 돌아가 보자. 나는 챗GPT가 추천한 레스토랑에 크게 만족했다. 이번엔 트빌리시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챗GPT는 내가 구시가지인 제벨리 트빌리시로 가아늑한 카페나 숨겨진 정원을 발견해볼 것을 추천했다. 챗GPT의 안내대로 울창한 초목이 있는 트빌리시 식물원을 산책한 다음 피곤한 몸을 녹이기 위해 유황 온천에 들르기로 했다.

구불구불한 제벨리 트빌리시의 골목길은 챗GPT의 말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나는 골목길을 산책하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식물원 입구에서 계획은 틀어졌다. 식물원은 봄 시즌 개장을 앞두고 휴관 중이었다. 당황한 나는 다시 챗GPT에게 물어봤지만, 엉뚱하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식물원에 대한 답변만 계속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챗GPT가 안내한 이번 여행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 챗GPT는 여행지의 시즌별 운영시간 혹은 최근 일어난 변동 사항에 취약했다. 물론 이를 보완할 프로그램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얼마 후 나는 <와이어드> 매거진의 테크놀로지 전문 기자 크리스 스토크-워커를 만나 트빌리시 여행 경험담을 들려줬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인공지능 챗봇은 여행지의 방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걸러내는 데 탁월해 뛰어난 여행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로 허구성이다.

“그건 인공지능 챗봇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누군가 일주일간 다녀올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고 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챗GPT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년 여행 가이드를 대신할 수 있니?” 내 어리석은 질문에 챗GPT는 현명하게 답했다. “인공지능 챗봇으로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당신과 동행할 수 없답니다.”



technology to launch Travel AI apps such as Trip.com’s TripGen, the ChatGPT-powered Roam Around, and Vacay Chatbot (the latter teaching users how to prompt ChatGPT for the most accurate travel advice). In March, Google also entered the chatbot fray with its launch of Bard. Apple, Meta, Baidu and Amazon also have AI products due to hit the market in 2023 and 2024.

After that notable culinary success, I asked ChatGPT to recommend must-see attractions in Tbilisi. The screen froze. (This was a few days before a March malware attack shut ChatGPT down for 12 hours). I tried again and the bot went into hyperspeed.

“Discover,” it advised, the “cozy cafés” and “hidden courtyards” of Dzveli Tbilisi (old Tbilisi), stroll the “lush” National Botanical Garden of Georgia, then head to the Sulfur Baths, which are “said to have healing properties.” On ChatGPT’s advice, I spend a pleasant hour in the winding, photogenic alleyways of Dzveli Tbilisi. I soon found that the botanical garden was closed until the spring opening season. Asking ChatGPT for further advice resulted in a description of a botanical garden in the U.S. state of Georgia.

All in all, the experience was a mixed success. ChatGPT seems to struggle with current information, warning users of its “limited knowledge of the world and events after 2021.” At the same time, upgrades are constantly being made. To get some perspective on this, I asked technology author Chris Stokel-Walker for his thoughts. “AI can be fantastic in... wading through the vast volumes of information about a tourist destination... which should, on the face of it, make an AI-powered tourist guide brilliant,” he says. But, he adds, AI has one fundamental problem: hallucination. “It just makes stuff up. Which can be a problem if you’ve asked it to plan a seven-day itinerary.”

Open AI is continuously improving ChatGPT’s nascent technology, so one day tourists might turn to its staccato advisories, or to one of the other AI tools developed by Google, Amazon, Apple, Meta or Baidu as their first port of call in an unknown destination.

멕시코의 낯선 두 도시

복잡복잡한 칸쿤을 지나쳐 숨겨진 낙원을 발견한다. 비밀의 마야문명 유적부터 당장이라도 텀벙 뛰어들고 싶은 투명한 호수까지, 바야돌리드와 바칼라르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모험하는 방법.

Cancún needs no introduction as a starry destination on Mexico's Yucatán Peninsula. Lesser-known Valladolid and Bacalar are cultural heavyweights recently added to Mexico's list of "magic towns."

written by * ROSIE BELL
photography by * PAUL STAFFORD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 근처, 일곱 빛깔 호수가 매혹하는 바칼라르는 은둔의 휴가를 원하는 이들이 찾아드는 곳이다. The sleepy town of Bacalar, located on the edge of the Lake of Seven Colors near Mexico's border with Belize, is a paradise alluring travelers looking for an otherworldly escape.





대한항공은 LA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LA에서 경유 편을 이용해 칸쿤으로 이동한 뒤
자동차나 버스로 바칼라르와 바이올리드에 닿을 수 있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Los Angeles daily. To get to Bacalar or
Valladolid, take a connecting flight to Cancun
and continue by bus or car.

Ultimate Mexican Escape



‘샘’을 뜻하는 세노테. 고대 마야인들은 석회석 암반의 싱크홀인 세노테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믿었다. 6000개가 넘는 세노테가 유카탄반도에 존재하는데, 바칼라르에서 바야돌리드로 향하는 길에서 쉬이 만날 수 있다.

Natural wells or sinkholes known as cenotes were believed by the ancient Maya to be gates to the underworld. The Yucatán Peninsula is rumored to have over 6,000 cenotes, and many of them can be found around the cities of Bacalar and Valladolid.





치첸이트사 근처 '바람이 머무는 곳'이란 이름의 이크킬 세노테
Cenote Ik Kil, located near Chichen Itza,
means "the place of the winds."



유카탄반도 북부, 자동차를 타고 칸쿤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 바야돌리드. 마야 유적과 스페인 문화가
혼재된 유카탄반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시간 탐험을 떠나볼 차례다.

Around 2 hours from Cancún lies Valladolid, a small Mexican town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ucatán Peninsula. With Maya archaeological sites nearby,
the charming town is a meeting point of Spanish and Mayan cultures.



알록달록한 담벼락, 다양각색의 문이 멋진 배경이 되어주는 칼사다 데 로스 프라일레스 거리
Streets such as Calzada de los Frailes are lined with colorful walls and doorways.

© Ashley Senja / Shutterstock.com



일상의 분주함이 느껴지는 다운타운
Downtown Valladolid is a great place to get a glimpse of the town's colonial past.

© Nik Waller Productions / Shutterstock.com

MEXICO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치첸이트사
Chichén Itzá became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88.





고대문명의 미스터리를 탐닉하는 여행자에게는 치첸이트사야말로 꿈의 여행지다. 마야문명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도시의 하나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365개 계단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가 여기에 있다.

History buffs will appreciate a trip to Chichén Itzá, a pre-Hispanic city with a history of over 1,500 years. The sacred site has a 365-step pyramid that is one of the New 7 Wonders of the World.



1



2



3



4



5



6

© rvN, Jimmy's Kirchen

© Casa Horniga

/ 두 도시를 즐기는 방법 /

1 전설의 도시, 치첸이트사 고대 마야문명을 탐험하려면 바야들리드에서 차로 1시간이 채 못 되는 거리에 위치한 치첸이트사로 향한다. 그중 '쿠쿨칸의 신전'으로도 불리는 엘카스티요는 9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피라미드 자체가 거대한 고대 마야 달력으로 마야인들의 건축문화와 천문학 기술이 집대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사원, 제례 의식으로 목숨 건 공놀이 경기 가 행해지던 구기 경기장, 거대한 석회동굴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2 유카탄 전통 요리 맛보기 마야문명에 스페인의 영향이 더해진 전통 요리에 는 극강의 맵기를 뽐내는 아바네로 고추, 붉은 빛깔과 매콤한 맛을 내는 아치 오테 양념, 옥수수, 삶아서 으갠 콩이 담겨있다. 칸톤 로사도 중앙공원 근처 에 자리한 식당에서 전형적인 유카탄 요리들을 찾을 수 있다. 광장에 늘어난 노점 구경 또한 놓치지 말 것. 유카탄 지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데, 녹인 치즈와 연유, 잼, 초콜릿 등 달콤한 속 재료를 넣고 돌돌 만 크레이 프 '마르케시타'는 오랜 사랑을 받아온 디저트다.

3 전통공예 체험 알레브리헤는 풍부한 상징과 다채로운 색감이 담긴 종이, 점토, 나무공예품이자 멕시코의 민속 조각 예술이다. 알레브리헤 작품에는 멕시코의 영적인 동물들이 실제 또는 상상의 생물 형태로 담긴다. 특별한 기념품을 찾고 있다면 바야들리드의 예술 창작 집단 이크칸이 주최하는 워크숍을 찾아 멕시코 전통공예에 대해 배우고 나만의 알레브리헤를 만들어보자. 멕시코 가면이나 해골 모양 조각품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4 천연 수영장, 세노테 다이빙 과거엔 신령한 장소로, 지금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인기가 높다. 그중 세노테 아술 은 우거진 수풀로 둘러싸인 개방형 공간과 동굴 지형을 골고루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수영과 다이빙 스폿으로 유명하다. 구멍조끼를 대여할 수 있으며, 근처 노천 식당에서 싱싱한 생선 요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5 바칼라르 호수 액티비티 호수의 매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스노클링, 카약, 스탠드업 패들 보딩, 제트스키 등 수중 스포츠에 도전해보자. 바칼라르 호수를 배경으로 촬영한 예능 <서진이네>의 출연자들도 이곳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해 관심을 모았다. 휴양지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바칼라르 비치 클럽'도 있다. 정통 멕시코 요리와 칵테일을 내는 레스토랑을 비롯해 수영장, 선베드 등을 갖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6 멕시코 전통 리추얼 일상 혹은 여독에 지친 여행자라면 카사 오르미가로 향한다.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리추얼 프로그램을 내세운 부티크 호텔로 고대 멕시코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의식을 통해 활력 및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천연 수액을 통한 정화, 멕시코식 사우나인 테마스칼 스팀 로지와 카카오를 이용한 명상 체험, 사운드 힐링 등 색다른 방법으로 치유와 정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 HOW TO ENJOY THE TWO CITIES /

1 Witness a Modern Wonder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around 1,000 years ago, El Castillo, or the Temple of Kukulcan, is one of the most famous monuments of Chichén Itzá with caves, temples and a Maya ball court. The towering structure may have functioned as an ancient Maya calendar, showing the architectural and astronomical expertise of the ancient Maya civilization.

2 Enjoy Yucatán Cuisine A marriage of Maya and Spanish traditions, Yucatán cuisine features dishes laden with habanero peppers. Known to be extremely spicy, the dishes are prepared with spice and coloring agent achiote, corn and refried beans. Sample them at one of the many restaurants near Valladolid's main square, the Parque Principal Francisco Cantón Rosado.

3 Paint Mexican Mythical Creatures *Alebrijes* are paper mache, clay or wood carvings painted in immensely bright colors, each with rich symbolism. These figurines are considered Mexican spirit animals often taking the form of real or imaginary creatures. Learn about this Mexican folk art and paint your very own in Valladolid at Ik-Kan, an art collective that hosts workshops.

4 Swim in a Cenote Around 90m deep and 200m wide, the mineral-rich waters of the open-air Cenote Azul, once sacred to the ancient Maya, is now a popular swimming and diving spot in Bacalar. Life jackets are available to rent, and a nearby *palapa* restaurant offers refreshments and fresh fish dishes.

5 Bacalar Lagoon's Refreshing Water Activities Enjoy snorkeling, kayaking, stand-up paddleboarding and jet skiing at the Lagoon of Seven Colors, like the cast of the Korean variety show *Jinny's Kitchen* who filmed in Bacalar and enjoyed various activities in town. For a more private and luxurious experience, Bacalar Beach Club offers a sandy beach, swimming pool, sunbeds and mouthwatering Mexican cuisine and cocktails.

6 Indulge in Mexican Rituals At Casa Hormiga, an 18-room eco-friendly boutique hotel, frazzled travelers can find restoration via ancient Mexican ceremonial traditions. Enjoy soul-pampering sessions at the on-site spa like copal cleansings, tarot readings, cacao ceremonies and a temperature-raising ritual in an igloo-shaped *temazcal* sweat lodge.

21세기 코즈모폴리스, 마르세유

지중해의 관문, 항구도시 마르세유는 유럽에 다채로운 미식과 문화, 예술 세계를 들여온 창구다. 스포츠와 스타트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프랑스 제2 도시의 현재를 여행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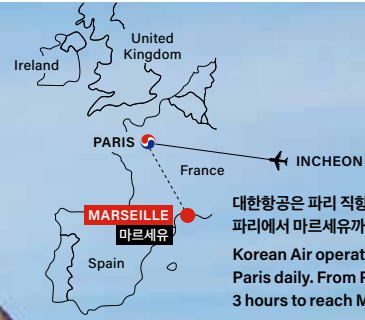
Marseille introduced Europe to art, culture and cuisine from across the Mediterranean. As the 2024 Olympic Games beckon, France's second city has reinvented itself as a multicultural capital of sports, start-ups and sustainable cuisine. Take a bite.

written by > TRISTAN RUTHERFORD
photography by > ITXASO ZUNIGA RUIZ



마르세유 비외포트 전경. 도시의 랜드마크,
생장 요새와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 마죄르대성당이 한 눈에 보인다.

Panoramic view of Marseille Vieux Port and its landmarks like Fort Saint-Jean,
Museum of European and Mediterranean Civilisations and Marseille Cathedral



대한항공은 파리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기차로 3시간가량 걸린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Paris daily. From Paris, it takes around
3 hours to reach Marseille by train.

Port of Plenty

생장 요새 위에 오르면 구항구와 노트르담대성당, 마르세유 시내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From Fort Saint-Jean, you can get a panoramic view of the old port, Notre-Dame de la Garde basilica and the cityscape of Marseille.



마르세유로 스며드는 첫 키워드, 역사와 예술

지난 2600여 년 동안 마르세유의 유서 깊은 옛 항구, 비외포트(구항구)는 이 도시를 찾는 이들을 맞이하는 관문이었다. 4000여 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이 거대한 항구 주변은 시끌벅적한 시장과 다양한 문화권이 뒤엉킨, 도시 속 또 다른 도시다. 마르세유가 지나온 역사를 한눈에 둘러보고 싶다면 먼저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으로 향하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전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이 콘크리트 큐브 건축물 안에 들어서면 다양성의 도시, 마르세유의 지난 수십 세기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오스만제국 시절 이스탄불에서 온 그릇, 중세 시리아에서 전해진 실크를 비롯해 모로코, 브라질, 베트남 등 100여 나라 이민자들이 가져온 고문헌, 민속품, 공예품 등을 다양한 전시 큐레이션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봄엔 박물관 옥상에 미슐린 3스타 셰프 제랄드 파세다의 레스토랑이 재개장해 미식 도시로 이름난 마르세유의 '맛'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예술은 오래전부터 마르세유의 심장부에 존재했다. 항구 남쪽에 위치한 칸티니미술관은 19세기 후반 데카당스 시대를 품은 공간.

Rich History of Art and Culture

For around 2,600 years, newcomers have entered Marseille through the Vieux Port (Old Port). The historic harbor remains a city within a city with its own markets, culture and berths for up to 3,200 boats. It is an appropriate place for museums to showcase the region's long history. The Museum of European and Mediterranean Civilizations (Mucem) houses various collections from ancient to modern cultures at three sites. Visitors can expect to see bowls from Ottoman Istanbul and silks from medieval Syria. There are also exhibits dedicated to France's most diverse city, as migrants from Italy, Algeria, China, Vietnam and many other countries unite to become *Marseillais*. After working up an appetite, treat yourself to Le Môle Passedat, a collection of eateries by chef Gerald Passedat. There is an upscale rooftop restaurant and terrace, kiosks for a quick bite and a coffee shop.



1, 3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아파트 단지 시테 라디외즈. '빛나는 도시'라는 뜻을 가졌다.

Cité Radieuse, or radiant city, was designed by architectural giant Le Corbusier.

2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에선 근현대 미술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도 열린다.

Mucem (Museum of European and Mediterranean Civilizations) also holds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라울 뉘피, 호안 미로, 바실리 칸딘스키 등 20세기 초 프랑스 거장들의 컬렉션을 소장한 이곳에선 전 세계를 누비는 거대한 범선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표현한 화가, 폴 시냐크의 대표작 <마르세유 항구>를 놓치지 말자.

건축 그리고 르코르뷔지에를 좋아하는 이에겐 시테 라디외즈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르코르뷔지에의 작품으로 탁아소, 도서관, 옥상의 육상 트랙 등을 갖춰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불린다. 건축물이 완공된 1952년의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한 이 공간의 정취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하룻밤 머물러볼 수 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21개 객실이 여행자의 집이 돼준다.

프랑스 미식의 고향

유럽의 미식 문화는 마르세유의 항구에서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추야자, 토마토, 바나나 같은 전 세계의 식재료와 산물이 이 항구를 통해 유럽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마르세유를 대표하는 음식들 사이에서 부야베스는 앞 순위에 꼽힌다. 항구에서 갓 잡아 올린 볼락과 게를 바닷물에 삶은 후 달고기와

Next to the Mucem, the Cosquer Méditerranée cave museum provides access to an underwater grotto discovered by a scuba diver in 1985. Explore the cave in special vehicles and take in nearly 500 prehistoric paintings.

Art has always been at the heart of Marseille. Just south of the port, the Musée Cantini describes a decadent age when the harbor still ruled the city. One of France's greatest collections of early 20th-century art showcases works by Raoul Dufy, Joan Miró and Wassily Kandinsky. Canvases like *L'entrée du port de Marseille* by Paul Signac depict how tall ships brought big ideas from around the globe.

For architecture fans, a visit to La Cité Radieuse is a must, a towering block of 337 apartments that commands the Marseille skyline. Designed by world-famous architect Le Corbusier, the UNESCO-inscribed work of art is a self-contained concrete utopia with its own nursery, art museum and rooftop running track. Visitors can stay in



붕장어 등을 더해 완성하는 해산물 요리로, 부דת가에 자리한 식당들을 찾으면 4가지 생선과 회향, 파슬리, 사프란을 넣어 만드는 정통 조리법을 고수한 부아베스를 맛볼 수 있다. 전통적인 부아베스를 경험했다면 마르세유의 독창적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부아베스'의 세계로 들어갈 차례. 엘사이어니에션 미쉐린 스타 셰프 리오넬 레비가 개발한 부아베스 밀크셰이크를 맛볼 수 있다.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이용한 무스로 베이스 층을 깔고 마스카르포네 치즈와 달걀을 섞어 만든 거품을 얹은 후 마지막으로 센 불에 구운 달고기를 더해 완성한다. 라로마의 셰프 실뱅 로베르는 생선 수프를 곁들인 부아베스 햄버거로 미식가를 유혹한다.

최근 미쉐린 3스타를 받은 알렉상드르 마치아는 마르세유의 미식 신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셰프다. 콩고에서 태어나 코르시카와 이탈리아 혈통을 물려받은 그의 요리가 궁급하다면 에이엠으로 향하자. 가재 팝콘, 오렌지 꽃과 가룸(고대 로마인들이 애용한 액젓)을 곁들인 세모리나 요리 등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주머니가 가볍다면 마치아가 선보인 푸드 트럭 미셸에서 주키니, 양파 콩피가 들어간 샌드위치 '크로크 마츠'로 배를 채울 것. 2024년, 마치아는 아망딘 세노, 아크람 베나랄 등 다른 유명 셰프들과 함께 올림픽빌리지에서 전 세계 선수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 예정이다. 제랄드 파세다도 마르세유 미식 탐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그가 선보이는 값비싼 코스 요리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캐주얼한 분위기와 가격을 갖춘 라프레 M을 찾으

one of the apartments offered through Hotel le Corbusier starting from around \$120 per night.

Contemporary Taste

The docks of Marseille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uropean cuisine. Dates entered the continent here. Most probably, tomatoes and bananas did too. So did the recipe for bouillabaisse. This seafood stew, synonymous with the city, was invented by fishermen who could not sell the bony rockfish they caught. Look out for dockside restaurants that adhere to the traditional recipe outlined in the Bouillabaisse Charter. It requires the inclusion of at least four types of local fish such as scorpion fish, red mullet, conger eel and John Dory.

Yet this international port remains inventive, bouillabaisse being a case in point. Restaurant Alcyone is home to the Milkshake de Bouillabaisse, crafted by Michelin-starred chef Lionel Levy. This concoction is a three-layered fish soup served in large glasses. Another city chef has introduced the Hamburger de Bouillabaisse, with a shot glass of fish soup to accompany it. Alexandre Mazzia won his third Michelin star in 2021. He is a chef who never sits still.



2 면 된다. '맥도날드 이후'라는 뜻을 가진 이곳에선 맛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10달러짜리 피시버거를 선보인다. 제랄드 파세다의 후계자, 상드린 소이에의 레스토랑 레 보메트도 있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재소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이곳에선 교도소 텃밭에서 기른 과일, 채소로 만든 음식을 선보인다.

올림픽 시티

2024년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도착하는 곳은 파리가 아니다. 마르세유가 그 영광을 차지했다. 프라도 해변에 새로 들어선 마르세유 마리나 콤플렉스는 지금 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다. 올여름 330여 명의 요트선수가 1만여 관중 앞에서 마르세유 앞바다의 바람을 시험할 예정이다. 내년 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카이트서핑 경기도 이 도시에서 펼쳐진다. 새 요트 경기장에서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에서 많은 우승을 거둔 명문 축구팀,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의 홈구장인 스타드 벨로드롬이 있다. 내년 파리올림픽의 축구 경기가 치러질 역사의 무대를 먼저 둘러보고 싶다면 스타디움 투어를 신청해볼 것. 프랑스 최대 항구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액티비티도 놓치지 말자. 카탈랑 해안에서 만나는 마르세유 수중박물관은 이름 그대로 바

Born in Congo, with Corsican and Italian heritage, his international flavors blend together at his gourmet restaurant AM. Mazzia's latest idea is the Michel food truck featuring dishes from around \$18 such as the Croq Mazz, a hot sandwich packed with hummus and barbecued vegetables. In 2024, Mazzia, along with chefs Amandine Chaignot and Akrame Benallal, will create dishes for over 10,000 global competitors at the Olympic Village.

Marseille's most celebrated three-star chef, Gérald Passetdat, usually serves seafood tasting menus priced around \$300, but he has just created a \$10 fish burger for L'Après M (a take on the phrase "After McDonald's"). And Passetdat's protégé, Sandrine Sollier, oversees a new gourmet restaurant, Les Beaux Mets, run by rehabilitating prisoners inside the Baumettes Prison. Visitors from outside must make reservations four days in advance.

Active Marseille!

Paris won't be the Olympic flame's first stop in France. That honor goes to Marseille, which will host all 10 sailing events during the XXXIII Paris Olympiad. This summer, 330 competitive sailors will test the local breezes in front

1, 2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엘사이어 니에선 비외포트가 한눈에 펼쳐지는 뷰와 함께 지중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At the Michelin 1-star restaurant Alcyone, you can enjoy Mediterranean cuisine along with a view of the Old Port.

3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의 홈구장, 스타드 벨로드롬. 2024년 파리올림픽의 축구 경기가 치러질 무대다. Home to Olympique de Marseille, Orange Vélodrome Stadium will be the stage for football matches for the 2024 Paris Olympics.



마르세유에선 보트 여행을 놓치지 말자. 칼랑크로 불리는 깊은 만과 동굴,
이프성, 프리올제도 등 색다른 장면을 만날 수 있다.
Jump on a boat to explore the rocky coves of the Calanques of Marseille,
the Château d'If fortress and other Frioul Islands.





그라피티 벽화, 갤러리, 예술가들의 작업실,
세련된 바와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동네, 쿠르 칠리앵
Cours Julien is a trendy bar and restaurant district with
vibrant street art, galleries and artists' studios.

닷속에 조성된 예술 공간이다. 2020년에 문 연 이 핫스팟에 닿기 위해선 '다이버'가 돼야 한다. 해저 5m 깊이의 바다 아래 조성된 박물관에 들어서면 여행 가방을 들고 걷는 실루엣을 형상화한 조각작품 <여행자들>로 유명한 마르세유 출신 예술가 브뤼노 카탈라노의 작품을 비롯해 10여 점의 조각상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 좀 더 특별한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싶은 이에게 '파쿠르'가 있다. 도심의 건축물과 지형, 사물 사이를 최대한 빠르게 달리며 공중제비로 뛰어넘고 구르는 익스트림스포츠를 뜻하는 이 곡예의 종주국이 바로 프랑스다. 마르세유의 파쿠르 클럽 'PK13'에선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클래스를 진행한다.

of thousands of cheering spectators. The most colorful competitors will be kitesurfers, as the event makes its Olympic debut.

Just inland from the marina sits the Orange Vélodrome Stadium, home to football club Olympique de Marseille. Olympique have won the French football league more times than any other club and take their name from the city's Greek roots. During the 2024 Olympic Games, 10 soccer matches will kick off right here, with famous commentators and world champions in action. Regular visitors

can partake in the action with a tour of the stadium with access to exclusive areas.

Just off Catalan Beach is an astounding new museum. The Underwater Museum of Marseille features pieces by Bruno Catalano, a Marseille-born artist who created *Travelers*, sculptures of people strolling with their luggage. This undersea sculpture park doubles as an artificial reef, attracting shellfish and algae, among a greater biodiversity. The museum is just a short swim from shore.

A final Marseille pastime is parkour, or freerunning. Here athletes swing, vault and roll through an urban area as swiftly as possible. The sport originated in France and found a home in Marseille, where stairways, parking lots and concrete bollards form obstacles to be traversed. Follow Marseille's PK13 parkour collective for places to practice.

Turning Over a New Leaf

Marseille was bombed during World War II and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it was ensnared by poverty as mafiosi di-

1



© Page Light Studios / Shutterstock.com

1 생장 요새 안 광장. 항구의 전경을 시원하게 담은 이곳에선 다양한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The plaza within Fort Saint-Jean hosts various outdoor events and performances.





미래로 가는 마르세유

파리가 마을에 불과했던 시절부터 마르세유는 전 세계의 무역을 중계하는 항구도시였다. 유럽 최초의 상공회의소가 시작된 곳도 바로 이 지역이다. 이처럼 켜켜이 쌓아온 역사가 바로 오늘날 마르세유를 다양한 언어가 흐르는 다국적 도시로 만든 공신이다. 마르세유에서 사용되는 다중언어가 가진 저력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까지 위용을 떨친다.

‘그랑 알 뒤 비외포트’의 창립자 쥘리앵 파브르는 이 도시의 스타트업 업계가 다국적 기반 위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마르세유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도시는 나이, 성별, 국적,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유 공간이죠.” 파브르의 푸드 코트에서도 코르시카 식료품과 스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마르세유에선 관광객과 현지인, 힙스터와 가족이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열린 분위기가말로 이 도시의 역사적인 DNA니까요.”

낮은 주거 비용은 프랑스 전역의 기업가들을 마르세유로 이끌었다. 이 지역에 살기 위해 집을 산 구매자 10명 중 1명은 고속열차 테제베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파리 출신이다. 마르세유에 최근 등장한 창조적인 산업들은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정신을 그대로 빼닮았다. 아틀리에 푸프는 오래된 선박 펜더를 조명과 인테리어 용 장식으로 변신시켰고, 비스타는 축구로 유명한 마르세유에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축구공을 만든다. 남프랑스산 허브를 녹여 식용 가능한 커틀러리를 만드는 쿠비도 있다. 지금 마르세유에선 상업의 심장이 힘차게 뛰다.

2 verted its reconstruction funds. The city gained a gritty reputation. Yet Marseille has glorious architecture, 300 days of annual sunshine and a hard-working populace. When Paris was a village, Marseille was a global trading hub, and Europe’s first Chamber of Commerce started right here. Today the city’s multiple languages facilitate exports to Africa, Asia and the Middle East.

The start-up scene is also multilingual, says Julien Fabre, a co-founder of the Grandes Halles du Vieux Port, a food market. “Our city has created a central crossroads,” he says, “a place of sharing where all ages and social classes feel at ease.” Diversity is key, not least at the market, where sushi is sold alongside Corsican groceries. “Tourists mix with locals; hipsters mix with families,” continues Fabre. “Social oxygen is the historic DNA of Marseille.”

2 2022년, 항구 인근에 문 연 푸드 코트, 그랑 알 뒤 비외포트의 노천 테라스
Grandes Halles du Vieux Port, a multi-cultural food court near Marseille’s Old Port, opened in 2022.

3 프랑스의 전통적인 음식, 구운 골수 요리. ‘신의 버터’로 불릴 만큼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Roasted bone marrow is a typical French dish served at Grandes Halles du Vieux Port.



당일치기 아를 여행

고요함이 그리울 땐 아를로 향하자. 도시의 분주한 삶에 지친 마르세유 사람들에게 해독제가 돼주는 안식처다. 열차를 타고 1시간쯤 달리면 벌꿀색 햇살이 스며든 길 곳곳에 숨어 있던 근사한 카페와 트렌디한 갤러리들 앞에 설 수 있다.

아를은 2000년 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곳을 로마 식민지로 선포한 이래로 고상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주욱 유지해왔다. 원형극장은 그 시절에도 지금도 도시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눈부신 아를의 풍광을 한눈에 담고 싶다면 극장 안에 자리한 3개의 타워에 올라볼 것. 당신의 SNS에 올라갈 이 아름다운 전망은 여러 시대에 걸쳐 예술가들의 '영감'이 됐다.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를의 구시가지를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 속에 담아 불멸하는 장면으로 만들었다. 그림 속에 등장한 카페는 오늘날 '카페 반 고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예술가의 흔적을 쫓아온 여행자를 반긴다.

20세기에는 파블로 피카소가 고흐와 폴 고갱의 유령을 쫓아 아를을 찾았다. 피카소가 기증한 그림 57점은 오늘날 레아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 들를 예정이라면 아를 출신 화가 자크 레아튀의 작품을 놓치지 말 것.

21세기에 등장한 루마 아를은 예술, 문화, 환경에 씩워진 기존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실험적인 문화센터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로마의 원형극장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역작으로, 다채로운 미술 전시가 열리는 전시회장과 회랑, 공원과 정원이 들어서 있다. 타워를 이루는 불규칙한 형태

의 거울들은 캔버스 위에 프로방스의 빛깔을 즉흥적으로
 2
 흩뿌린 고흐에 대한 오마주다. 타워가 분홍색과 황갈색으로 물드는 해 질 녘이면 루마 아를은 현대미술의 핫불처럼 뜨겁게 활활 타오른다.



1 아를 원형극장 앞에 자리한 레스토랑 브라스리 라피시옹. 만남의 장소로 애용된다. Brasserie L'Aficion restaurant, in front of the Arles Amphitheater, is a popular meeting place for travelers.

2 아를에선 반 고흐가 곧 여행의 주제가 된다. <밤의 카페 테라스>에 등장한 '카페 반 고흐' Van Gogh is often the reason for visiting Arles. The Café Van Gogh is said to have inspired the painting Café Terrace at Night

Low housing costs have attracted a new breed of entrepreneurs from across France, and nearly one in ten new home buyers hail from Paris, a three-hour ride north on the high speed TGV train. Marseille's newest creative industries embody the city's spirit of sustainability. Atelier Poupe transforms old ship's fenders into lamps and interior decorations, and Vista makes non-oil-based soccer balls. There's also Koovee, which fabricates edible cutlery infused with southern French herbs.

Beautiful Neighbor, Day Trip to Arles

Arles is the tranquil antidote to Marseille. This historic city is reached via a one hour rural rail ride. On arrival, honey-hued lanes hide cool cafés and cutting edge galleries. The scream of scooters, shoppers and Marseille's nearly one million residents is left far behind.

Arles has been elegant since Julius Caesar established it as a Roman colony. Visitors can sip, stroll or sightsee in a Roman-era city center landmarked by a gigantic amphitheater. The stadium still seats over 20,000 guests: all the better to host summer concerts and DJ sets. For the most Instagrammable views over Arles' UNESCO-protected center, climb the amphitheater's three towers.

The views inspired generations of artists. Vincent van Gogh immortalized the old town in his painting *Café Terrace at Night*. The café on the canvas is now named the Café Van Gogh. Visitor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artist may pick up a Van Gogh walking map from the tourist office, which takes in many important sites around the city. Van Gogh's contemporary Paul

Gauguin also painted the city's streets — at least until the two fiery artists argued, with the former slicing off his own ear, and the latter fleeing the bloody scene never to return. During the 20th century, Pablo Picasso followed the ghosts of Van Gogh and Gauguin through Arles. Picasso donated 57 drawings to the city, which are now housed in the Musée Réattu fine arts museum. The museum's permanent collection highlights Arles-born artist Jacques Réattu. Then, the 21st century gave rise to Luma, an experimental cultural center that challenges conceptions of art, culture and environment. Topped by a shimmering tower from star architect Frank Gehry, it was inaugurated in 2021. The tower's twisting mirrors pay homage to Van Gogh, who splayed Provençal colors haphazardly on canvas. At sunset it shines pink and ochre, befitting Arles as a beacon to modern art.

3



3 새로운 랜드마크, 루마 아를.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반 고흐의 작품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The Luma Arles art center, designed by architect Frank Gehry, was inspired by the works of Vincent van Gogh.



여행자를 위한 정보 TIPS FOR TRAVELERS



마르세유를 여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는 5월과 6월이다. 비가 내리는 엿새 정도를 제외하면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 돌아다니기에 한결 수월하다.

May and June are ideal months to visit Marseille, with very few rainy days in June. The summer heat isn't apparent yet so the city parties into the night.



마르세유 시티 패스(24시간 이용권 29달러부터)를 미리 준비하자. 트램, 버스, 페리 무료 탑승은 물론 마르세유 시내 여러 미술관의 무료 입장이 가능해 꽤 쓸쓸하다.

The Marseille CityPass (from \$32 for 24 hours) is great value. It grants complimentary tram, bus and metro travel plus entrance to many of the city's museums.



애주가라면 파스티스를 맛봐야 한다. 아니스 열매로 맛을 낸 마르세유의 화주(火酒)로, 물을 살짝 섞어 온더록스로 즐긴다. 로컬 브랜드로 '51'이 있다.

Sip pastis. The Marseille firewater (Pastis 51 is the local brand) is flavored with anise. It turns opaque when served on the rocks with a dash of water.



/ 작가의 추천 리스트 /

/ Tristan's Recommendations /

1 마르세유 비누 박물관

해수와 올리브오일, 코코넛오일 등으로 만든 마르세유 비누는 이 도시에 부를 안겨준 대표 수출품 중 하나다. 비누 박물관은 바다를 누빈 선원들이 사용하던 비누가 전 세계로 퍼지기까지 비누의 자취와 역사를 담은 곳이다.

2 C2에서 하룻밤

C2는 마르세유 옛 항구 근처, 역사 깊은 저택에 들어선 디자인 호텔이다. 이곳의 백미는 비치 클럽. 지중해 한복판에 떠 있는 호텔 소유의 섬을 프라이빗하게 누릴 수 있다. (www.c2-hotel.com)

3 마르세유의 지속 가능한 활동 동참하기

식품 원산지, 물, 폐기물 관리에 있어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마르세유의 에코타블르 라벨에 60여 개 레스토랑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www.ecotable.fr)에서 에코타블르 라벨과 뜻을 함께하는 레스토랑 리스트를 미리 체크한 후 찾아가 보자.

1 Marseille Soap Museum

One of the city's most famous exports is a product of the region. Marseille soap is made using seawater and coconut or palm oil. The Soap Museum celebrates its slippery history as city sailors utilized the product, then showcased it around the world.

2 Where to Stay

C2 is a design hotel housed in a historic mansion near the Old Port. Its signature feature is that it operates a private Mediterranean island with its own beach club just offshore (www.c2-hotel.com).

3 Marseille Sustainable Activities

Many restaurants in Marseille have adopted the Écotable label, which guarantees a sustainable approach to dining. Learn more and find a restaurant to visit (www.ecotable.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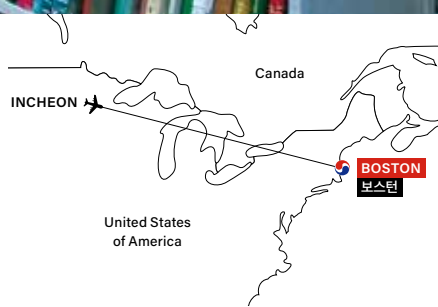
역동하는 젊은 도시, 보스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보스턴에 젊은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With its rich colonial history, Boston continues to build upon its storied past, with each new chapter like the layering on of a fresh coat of paint.

written by » KEVIN KOCZWARA
photography by » KYLE KLEIN

Creator's



대한항공은 보스턴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Boston daily.

Playground

보스턴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깊게 배어 있는 도시다. 독립선언문이 이곳에서 발표됐고, 독립전쟁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여럿 지녔다. 동시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스카이라인도 있다. 붉은 벽돌 건물과 울퉁불퉁한 자갈이 깔린 보도 위에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크레인의 모습은 보스턴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다.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바닷가에 위치해 하루에도 몇 번씩 흐렸다가 맑아지기를 반복하지만 솔솔 부는 바닷바람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이 도시에 외유내강이라는 개성을 입히는 것도 바로 이 변덕스러운 날씨와 예기치 못한 요소다.

트렌드의 중심, 사우스보스턴과 사우스엔드

사우스보스턴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두 편의 영화 <굿 윌 헌팅>과 <디파티드> 덕분에 잘 알려져 있다. 한때는 보스턴 내의 고립된 지역이었지만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길을 막고 있던 고속도로 방호벽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여 도시의 다른 구역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오늘날 사우스보스턴과 시포트 디스트릭트에는 현대미술관과 보스턴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유명 레스토랑인 치커디, 양조장인 트릴리엄 브루잉 컴퍼니 등이 들어섰다. 그 밖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면서 접근이 쉬워진 포트포인트,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 보스턴 속 작은 이탈리아라 불리는 노스엔드 지역까지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미국 스탠딩코미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코미디 클럽, 래프 보스턴도 이곳에 자리한다. 보스턴의 여러 지역이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지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개성을 지닌 곳을 꼽자면 사우스엔드를 들 수 있다. 이곳에서 붉은벽돌로 상징되는 빅토리아시대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가장 잘 보존돼 있는 ‘로 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1950년대에 보스턴 헤럴드 신문사가 들어서기도 했던 곳이다. 이후 건물이 해체되면서 이 지역은 새로운 주거지역인 동시에 카페, 레스토랑, 브랜드 숍들이 자리한 상업지구 ‘잉크블록’으로 탈바꿈했다. 보스턴 사람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레스토랑인 사우스엔드 버터리, 스페셜티 커피숍인 렌더 커피 등이 자리하며 생기 넘치는 지역이 됐다.

예술가들의 아지트, 사우스엔드의 ‘소와’

1891년, 사우스엔드 외곽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가 생겼다. 이후 1912년, 발전소가 문을 닫았고 이 지역은 버려졌다. 그랬던 이곳이 다시금 주목받은 것은 2018년의 일이다. 현재 이 발전소 주변은 레스토랑과 예술가의 스튜디오, 쇼룸, 패션 부티크가 하나둘씩 생겨나며 예술가들의 집합소가 됐다. 워싱턴 스트리트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소와’라 불린다.

- 1 1826년에 문을 연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는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다. Founded in 1826, Union Oyster House is a must-visit landmark.
- 2 현대미술관은 보스턴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허브인 시포트 디스트릭트에 위치해 있다.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s located on Boston Harbor.
- 3 1634년에 생긴 보스턴 코먼은 프리덤 트레일이 시작되는 곳이다. Boston Common is America's oldest public park. The Freedom Trail begins at Boston Common.
- 4 보스턴 퍼블릭 가든에서 조지 워싱턴 동상을 볼 수 있다. In Boston's Public Garden, you can see a statue of George Washington.

Boston straddles the line between preserving its history and developing its future. Old haunts and pre-Revolutionary War relics stand next to an expanding skyline. Cranes reach into the sky above

old brick buildings and cobblestone paths. These changes are reflected in the region's weather. A gloomy morning can turn into a perfect afternoon, and it's those fickle and unpredictable elements that give the city its character — hard on the outside but inviting on the inside. Surrounded by the past, yet looking forward, this city built on the ocean is reinventing itself.

Boston's Creative Hubs

The modern history of South Boston is well-known thanks to the Oscar-winning movies *Good Will Hunting* and *The Departed*. Once an isolated part of the city, the area became connected to the rest of it when a construction project removed the highway barrier and made the neighborhood easily accessible. Today, South Boston and its waterfront Seaport District host the city's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CA) and the renowned Boston Children's Museum along with many art galleries. Also in abundance are world-class eateries such as Chickadee and breweries like Trillium Brewing Co. Right in the middle is Laugh Bos-



1





1

“사우스엔드는 계속 진화하는 중이에요. 제가 사우스엔드에 온 이후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정말 멋진 일이죠.” 이 지역에 스튜디오를 둔 추상화가 네드레트 안드레의 말이다. 안드레는 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에서 예술가들의 공동체와 충분한 창작 공간을 만났다.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소와 오픈마켓에서는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 로컬 식재료를 판매하는 농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 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무료로 대중에게 개방한다. 이런 행사들 덕분에 사우스엔드는 보스턴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뒤섞이는 멜팅포트가 될 수 있었다. 소와 오픈마켓을 방문한다면 라이프스타일 부티크인 스티치 앤드 티클에, 공동체 문화 체험을 하고 싶다면 도자 공방인 클레이 라운지에 방문해보자. 여성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제품만 선정한 소량으로 판매하는 편집 숍, 와일로도 둘러볼 만하다.



© SoWa, Boston



© SoWa, Boston

2



© Michael Maloney / Shutterstock.com

1 소와 오픈마켓에는 로컬 식재료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 트럭이 있다.

You can find food and beverage trucks at SoWa Open Market.

2 길을 걷다 보면 이 지역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Walking through the South End neighborhood, you can easily spot galleries and studios.

3 소와 오픈마켓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SoWa Open Market is open every Sunday from May to October.

4 스페인 예술가 오쿠다 산 미구엘이 시포트 지역에 설치한 조각품

In Seaport, you can see seven sculptures by Spanish artist Okuda San Miguel.

3

ton, one of the many clubs keeping the city's comedy legacy alive. To the west, former industrial neighborhood Fort Point is also enjoying rejuvenation, largely due to its proximity to South Station, the New England Aquarium, the famed North End eateries and its view of the ocean.

Boston's neighborhoods blend and meld into one another, but South End stands out. The charming area is known to have the largest Victorian row house district in the country. In the 1950s, part of the neighborhood was bulldozed to build several factories along with Boston Herald's headquarters. The area was forgotten for some time, but the city reinvested in it after seeing its potential, and the neighborhood became a hub for creatives. The old Herald building was replaced by the Ink Block, an upscale apartment and shopping complex. South End is now a vibrant district, home to a host of parks, galleries, shops, restaurants and cafés like South End Buttery and Render Coffee.

Local Creators and Markets

In 1891, the world's largest power plant at the time was built on the outskirts of South End to power the West End Street Railway. In 1912, the plant was decommissioned. Renovated in 2018, it now serves as a beautiful event center. Today, the area around the power plant is known as SoWa (South of Washington Street). Filled with restaurants, artist workshops, showrooms and fashion boutiques, it is a burgeoning art and design district.

"The South End has been evolving," says abstract painter Nedret Andre, who has a studio in the area. "Where we're located, I feel like South End has got a little bit more momentum for bringing different people into the neighborhood, which I think is really great because I get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Andre explains. She moved to the vibrant neighborhood and found a community of fellow artists and a wealth of creative spaces. On Sundays from May to October, the SoWa Open Market features local artisans, farmers and food trucks. On the first Friday of each month,

4





1

1 보스턴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대회'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The Boston Marathon is the oldest and one of the most renowned annual marathons in the world.

2 127년 역사를 지닌 마라톤의 도시, 보스턴에는 글로벌 신발 브랜드가 집합해 있다.
Given the marathon's 127-year history, Boston is a hub for global shoe brands.

3 보스턴마라톤 코스 중 어렵기로 악명 높은 언덕의 이름을 딴 신발 브랜드, 하트브레이크 힐러닝 컴퍼니의 모습
Heartbreak Hill Running Company took its name from the steep half-mile uphill portion of the Boston Marathon.

3

2



보스턴을 달리는 방법

보스턴은 사실 달리기에 적합한 도시라 보기 어렵다. 시내에서는 보스턴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스턴은 세계 4대 마라톤대회라 불리는 보스턴마라톤을 127년간 개최해왔다. 덕분에 전 세계에서 온 러너들이 결승선을 끊고 들어오는 진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마라톤의 본고장이 된 덕분일까, 이 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발 회사가 곳곳에 자리한다. 대회 코스 중 출발 후 32km 지점에 위치한 800m 거리의 오르막, 하트브레이크 힐의 이름을 딴 신발 브랜드 ‘하트브레이크 힐 러닝 컴퍼니’도 이곳에 있다. 브라이턴에는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 본사와 팩토리 아웃렛이 있다. 캔버스는 물론 리복, 푸마, 써코니와 같은 운동화 브랜드의 글로벌 본사도 보스턴에 위치한다. 스니커즈 마니아라면 클리어웨이 스트리트에 있는 스트리트웨어 매장인 보데가에 방문해보도록 하자.

the artists in the area open their studio and gallery doors to the public for free. All of this has made it a melting pot of people coming not only from within the city and the region, but also the world. Visitors can pop into creative spaces like lifestyle boutique Stitch and Tickle or Clay Lounge, a pottery studio for people looking to get into the community or learn about working with clay. There’s also stores like Wyllo, which sells small batch goods sourced from women-owned brands.

A City for Runners

Boston is not a running city, per se. Pretty views don’t come into focus downtown. It is, however, a beautiful city to watch runners cross the finish line of one of the world’s toughest and most famous races — the Boston Marathon. With the 127-year-old race comes a legacy of running and landmarks like Heartbreak Hill Running Company. Named after the legendary final ascent of the marathon in Newton, this establishment has running clubs for anyone looking to find joy in running. It’s not alone. World-famous brands don’t just have retail stores in the area: New Balance, Converse, Reebok and Puma also have headquarters in Boston. For hardcore sneaker aficionados, there’s the chance to grab some of the rarest and most sought-after shoes at Bodega, a hidden streetwear store on Clearway Street.

화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네드레트 안드레는 해초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화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Nedret Andre is a Boston-based artist and environmental advocate whose works are inspired by seagrass.



네드레트 안드레의 보스턴 가이드

- 1 보스턴현대미술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로, 비 오는 날 방문하면 고요히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서관에 소장된 요제프 알베르스의 작품을 꼭 찾아볼 것.
- 2 사우스엔드에서 도심 속 공원인 보스턴 코먼까지 산책해보자. 뉴버리 스트리트를 지나 코플리 광장을 향하다 보면 보스턴 코먼에 도착한다.
- 3 JFK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 근처에 있는 카슨 비치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휴식하기 좋은 장소다. 여기에서 캐슬아일랜드와 포트인디펜던스까지 산책할 수 있다.
- 4 사우스엔드 지역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찾는다면 커피 커피로 향하자. 시드니에서 온 바리스타가 선보이는 호주식 커피와 미트파이를 맛볼 수 있다.

TIPS FROM NEDRET ANDRE

- 1 The MFA is one of the oldest art museums in America and a great visit on rainy days. The West Wing has a Joseph Albers’ painting I like to visit.
- 2 Head to Copley Square via Newbury Street and arrive at Boston Common. The 50-acre park has a carousel and a frog pond. Nearby is the Boston Public Garden, the first public botanical garden in America.
- 3 Take a walk from Carson Beach to Castle Island and Fort Independence. It’s a great spot to have some ice cream and look out over the ocean.
- 4 Head to Cuppa Coffee if you’re looking for some of the best espresso-based coffees in town. The café offers a food menu including an Aussie meat pie.



Malaysia

INCHEON

SINGAPORE
싱가포르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직항 편을 매일 운항한다.
Korean Air operates direct flights to
Singapore daily.

Alternative Go Green Guide

녹색도시 싱가포르로 떠나는 또 하나의 안내서

‘정원 속의 도시’라 불리는 싱가포르는 초록빛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True to its moniker “city in a garden,” Singapore strives to embrace harmony with nature. The city-state beckons us to explore its green spots and unravel their magic.

written by > HARNOOR CHANNI-TIWARY
photography by > DARREN SOH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다. 실내에서 계단식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 유리 돔 안에 열대우림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마치 영화 <아바타> 세트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푸르름을 자연적인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싱가포르가 여러 해 동안 시간을 들여 계획하고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을 구현해낸 결과다.

싱가포르는 말라야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지 58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발전된 나라가 됐다. 서울보다 조금 큰 728km² 크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밀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섬의 청사진에는 녹지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녹색건축 표준이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 계획인 ‘그린 플랜 2030 운동’에 따라 모든 주거지역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을 갖춰야 한다. ‘파크 커넥터’라 불리는 정책도 있다. 집에서 공원까지, 공원에서 직장까지 거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공원이 섬 전체에 지그재그로 펼쳐져 있다. 일종의 공동 정원인 ‘스카이 테라스’도 흔히 볼 수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에 도시형 농장을 만들고, 식물로 뒤덮인 벽이나 판 등 수직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건물 50층 높이에서 자라는 나무나 창이 공향 터미널 ‘주얼’ 내부에 조성된 비현실적이지만 자연 그대로인 숲은 싱가포르의 상징이다. 녹색도시 싱가포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에 나오는 여섯 장소에 꼭 들러보자.



2

1 싱가포르 곳곳에서 건물과 자연이 함께 자리한 모습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Singapore is a city where buildings and nature coexist in harmony.

2 파크로열 컬렉션 피커링은 녹색도시 싱가포르 중심에 위치한 친환경 호텔이다. Parkroyal Collection Pickering is an eco-friendly hotel in the city's center.

Widely recognized as the greenest city in Asia, Singapore is often called a “city in a garden” instead of the other way round. With cascading indoor waterfalls and tropical rainforests, you’ll be forgiven for thinking you’re on the movie set of *Avatar*. But behind the seemingly natural view outside your window lie years of planning, strict implementation and an uncompromising futuristic vision.

Only 58 years after independence, Singapore is not only one of the most progressive and developed economies in the world, but also one of the greenest. This is integrated deeply into its blueprint. Skyscrapers have to comply with green standards, and its Green Plan 2030 will ensure there’s a park within 10 minutes from any residential area.

Park connectors zigzag across the island, sky terraces are the norm, urban farms sprout up in unused car parks and school grounds, and vertical gardens are taken for granted. Expect to see trees growing on the 50th floor of buildings, or an unreal yet natural forest inside Jewel, at Changi Airport. The green lungs of the city, Gardens by the Bay has hiking trails interspersed with reservoirs offering a respite from city life. Visit these six spots to get acquainted with green Singapore.



© Parkroyal Collection Pickering

1



© Parkroyal Collection Pickering

2

➔ 파크로열 컬렉션 피커링

PARKROYAL COLLECTION PICKERING

자연을 담은 바이오필릭 건축이 구현된 이 호텔은 불만한 가치가 있다. 16층으로 이루어진 수직 정원형 구조, 계단식 논에서 영감을 받은 4개의 테라스, 2개 층에 걸쳐 흐르는 폭포를 지니고 있어서다. 업무 지구에 있는 도시형 호텔이라기보다는 열대 리조트를 연상케 한다. 이 호텔에는 공기를 정화하고 건물의 온도를 식힐 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식물이 50종 이상 자리하고 있다. 호텔 내 위치한 라임 레스토랑에 들르면 호텔에서 기른 허브를 활용해 조리한 팜 투 테이블 메뉴를 맛볼 수 있다.

Embodying the spirit of biophilic architecture, Parkroyal Collection Pickering's 16 stories are enshrouded by lush greenery, with rooms that open onto sunlit corridors lined with vertical gardens. Its landscaped terraces and waterfalls make this seem more like a tropical resort than a city hotel. The iconic hotel has 50 varieties of flora in the gardens that purify the air and cool the building. The wellness floor's garden grows herbs used in the Lime Restaurant, offering a refreshing farm-to-table dining experience.

1 열대우림을 재현한 듯한 호텔의 모습
The lush greenery of the hotel brings to mind a tropical rainforest.

2 계단식 논 디자인으로 야외와 실내를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The hotel terraces evoke rice paddies.

1 노카 레스토랑은 푸난 어번 팜과 로컬의 식재료를 이용해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The farm helps supply ingredients for NOKA restaurant's creative menu.

2 푸난 몰 옥상에 위치한 푸난 어번 팜에서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다. Escape the noisy city at Funan Urban Farm on the rooftop of Funan Mall.

3 싱가포르의 사회적기업 EGC는 도시민이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든다. Edible Garden City cultivates a sense of community through farming.



1 © NOKA by Tripping Club



2 © Edible Garden City



3 © Edible Garden City

➔ 푸난 어번 팜 & 노카

FUNAN URBAN FARM & NOKA

푸난 몰 옥상에는 싱가포르의 사회적기업 EGC가 운영하는 도시 농장, 푸난 어번 팜이 자리하고 있다. 약 465m² 넓이의 옥상에서 가지, 오크라, 바질, 민트, 레몬그라스 등 30종의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데, 이곳에서 쇼핑물과 도시 농장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번 팜 옆에 자리한 모던 일식 레스토랑 노카는 탄소발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루벨벳 새우와 같은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선보인다. 점심 메뉴인 오마카세를 먹으려면 미리 예약해야 한다.

Edible Garden City (EGC) has several urban farms across the island, including the 465m² rooftop garden at Funan Mall. Many varieties of fruits and vegetables, including eggplant, okra, basil, mint and lemongrass are grown here. Visit to see how a shopping mall can integrate a vital community space for gardeners. On Level 7 of Funan's rooftop is NOKA, a Japanese restaurant that minimizes its carbon footprint by using produce grown in the rooftop garden.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and try their omakase m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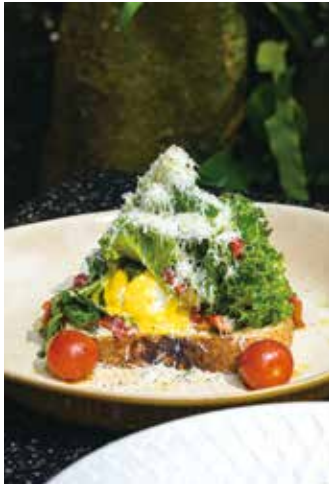
1 PS카페의 메뉴 중 하나인 케일 플로렌틴. 브런치를 비롯해 런치, 디너, 디저트 메뉴 등을 선보인다.

At PS.Cafe Dempsey Hill, try their Kale Florentine dish.

2 싱가포르 특유의 전원 풍경과 트렌디한 식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PS카페 Experience Singapore's trendy food culture at PS.Cafe East Coast Park.

3 PS카페는 각 지점마다 다른 메뉴를 갖춰 찾아가는 재미를 선사한다.

PS.Cafe has a stylish exterior and offers a unique menu.



1 © PS.Gourmet Pre Ltd.



© PS.Gourmet Pre Ltd.



© PS.Gourmet Pre Ltd.

3

➔ PS카페

PS.CAFE

여유롭게 편히 앉아 싱가포르의 녹음을 만끽하고 싶다면 PS카페에 들러보자. 도시의 정글이라 불릴 정도로 푸르른 녹음에 둘러싸인 뎀시 힐 지역이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스트코스트파크 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어 식사하면서 싱가포르의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다. 피자나 파스타 같은 기본적인 식사 메뉴를 갖추고 있지만 현지인들은 식사보다는 당근 크럼블 케이크나 더블 초콜릿 블랙아웃 케이크와 같은 달콤한 디저트 때문에 이곳에 몰려든다. 식사든 티타임이든 싱가포르에서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곳이다.

Food and travel go hand in hand, and one of the best ways to sit back and take in Singapore's greenery is by sipping a cup of coffee at PS.Cafe. Whether you choose the one at Dempsey Hill, nestled into an urban jungle, or the outlet at East Coast Park overlooking the ocean, a meal at PS.Cafe is a great way to experience the outdoors in Singapore. The menu offers pasta and other crowd favorites, but locals throng to the restaurant chain for their mouthwatering desserts. Make sure you try one.

건축과 녹색식물이 조화를 이룬 오아시아 호텔
Designed by Singapore's architectural firm WOHA, Oasia
Hotel's unique exterior blends nature with a modern style.



→ 오아시아 호텔 다운타운

OASIA HOTEL DOWNTOWN

21가지 덩굴식물이 얽히고설켜 독특한 외관을 만들어낸 붉은색 호텔은 마치 도심 속 정글 같다. 외관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그 안에서 보는 도시 전망은 더욱 멋지다. 로비의 친친 바에서 다양한 크래프트 진을 맛보거나, 가정식 비스트로를 선보이는 더 마말레이드 팬트리 비스트로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즐겨보자.

A central business district landmark, Oasia Hotel Downtown may remind you of the movie *Jumanji*. Resembling an urban jungle with 21 species of creepers weaving over iconic red mesh, it seems to be a living, breathing building. Head to the hotel not just for brilliant photos, but also to check out its sky terrace for the view; sip a beverage at Cin Cin, a specialty gin bar in the lobby; or indulge in a delicious meal at The Marmalade Pantry.



1

1 건물 외벽에 수직 정원을 조성한 리콩치안 자연사박물관

The Lee Kong Chian Natural History Museum features a vertical garden.

2 박물관에는 식물, 균류, 포유류, 공룡 등 싱가포르의 생태계 표본이 전시돼 있다.

A wide variety of specimens from the region are on display.

3 향유고래 골격을 비롯해 80% 이상 복원된 공룡 화석을 볼 수 있다.

Exhibits include fossils of sauropod dinosaurs and a sperm whale skeleton.



2

© Hanum Puri / Shutterstock.com

© Danny Ye / Shutterstock.com

➔ 리콩치안 자연사박물관

LEE KONG CHIAN NATURAL HISTORY MUSEUM


마치 이끼로 뒤덮인 바위 같은 독특한 외관을 지닌 리콩치안 자연사박물관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캠퍼스 안에 자리한다. 6층 규모의 건물과 싱가포르에서 나고 자란 60가지 식물로 덮여 있는 디자인으로 싱가포르 건축가협회와 국립공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스카이라이즈 그리너리 어워드도 수상했다. 반나절 동안 소풍처럼 다녀올 수 있는 아담한 규모로, 다양한 종류의 공룡 화석과 향유고래 전시관이 있다. 아이들에게 맹그로브, 열대우림, 수생식물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 탐험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This natural history museum located on the quiet campus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as awarded the Skyrise Greenery Award. Compact enough for a half-day excursion, it houses fascinating dinosaur fossils and a larger-than-life sperm whale exhibit. The museum's exterior resembles a moss-covered rock, with part of its roof covered in more than 60 species of plants native to Singapore. Children will love exploring exhibits that replicate mangrove swamps and rainforests and showcase aquatic plants.



3

© James Tan



포트캐닝파크의 명소인 트리 터널. 밑에서 올려다보는
풍경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The Fort Canning Tree Tunnel is a popular attraction.
The view from below adds to its myst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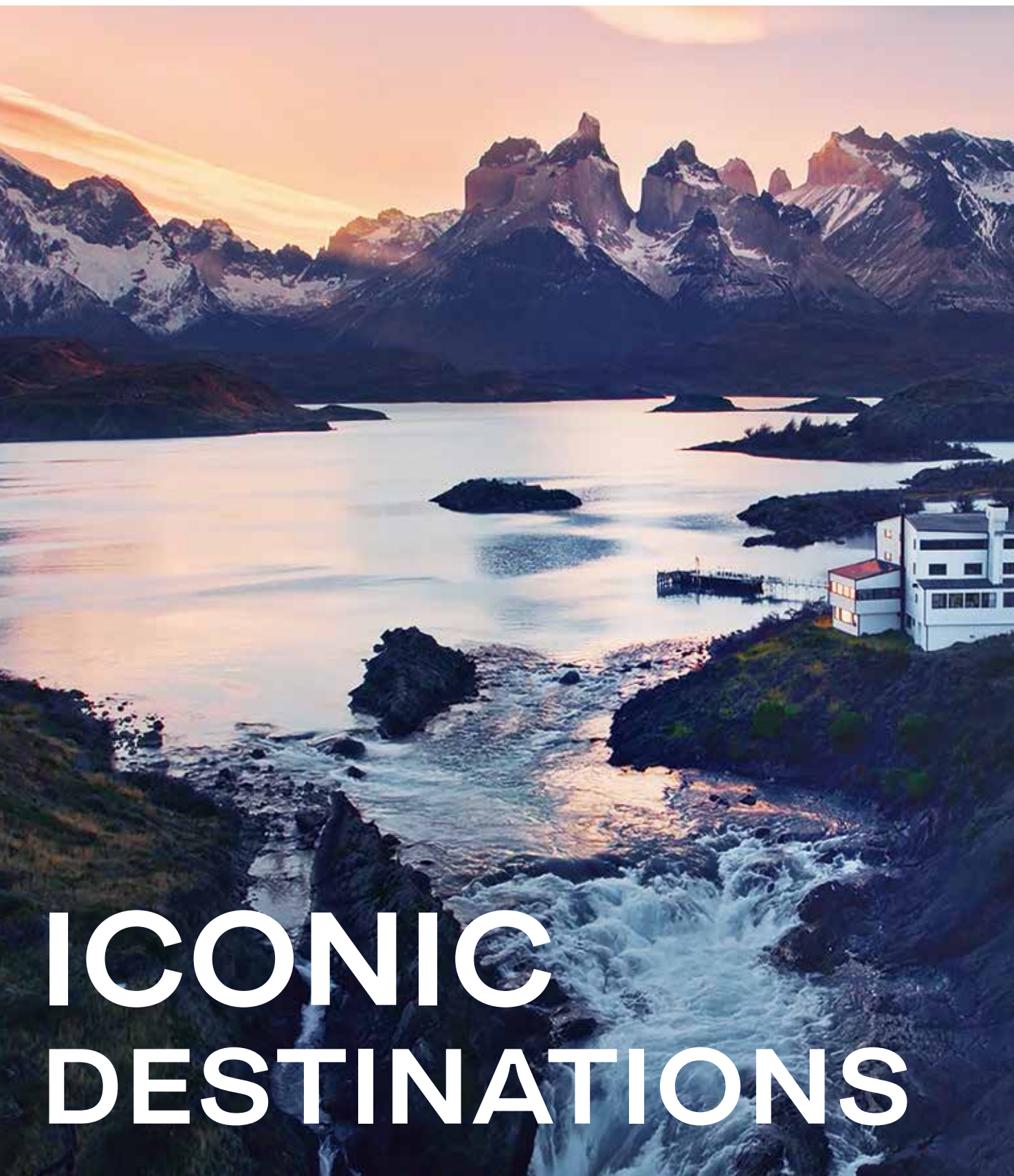
→ 포트캐닝파크

FORT CANNING PARK

제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일본군에 항복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을 비롯해 관광객, 휴식을 즐기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이 약 18만m² 넓이의 이 공원을 즐겨 찾는다. 언덕 모양의 지형이 자연스럽게 객석이 되기 때문에 하이킹 외에 콘서트, 연극, 피크닉 장소로도 자주 이용된다.

A trip to Fort Canning Park is a must in your Singapore itinerary. A historical landmark where the British surrendered to Japanese forces during World War II and where Malay royalty once ruled, the park attracts history buffs, tourists and hikers alike. It is a popular venue for concerts and theater productions. With sunrise yoga, heritage walks and Shakespeare in the Park under a starry sky, there's something for everyone.

SPECIAL THEME



ICONIC DESTINATIONS

인생 여행을 떠나는 법

극과 사막, 고산과 화산을 품은 바다에서 야생의 지구를 만나는 경험,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기차와 유빙 사이를 누비는 크루즈에 오르는 일, 호텔 방 안에서 에펠탑과 돌로미테 스산맥을 담은 시간. 살면서 한 번쯤 꿈꾸는 '버킷 리스트' 여행을 떠나는 법을 소개한다.

For some, a bucket list trip means exploring Earth's wilderness, from the polar regions and the vast desert, to majestic mountains and surreal seascapes. For others, embarking on an epic train ride across Africa or traveling aboard a luxury polar cruise is the trip of a lifetime. Here are ways to enjoy moments of discovery in familiar and exotic destinations.

탐험가를 매혹시킨 야생의 지구

Encountering Wild Moments

모험의 여정에 탑승하는 법

Riding Into Adventure

랜드마크를 품는 방

Room With a View



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탐험가를 매혹시킨 야생의 지구

Encountering Wild Moments

세계적인 사진가와 여행작가들이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곳곳 미지의 대자연에서 만난 장면을 보내왔다. 잘 알려진 장소와 낯선 이름 사이,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Globe-trotting photographers traveled to far-flung destinations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 breathtaking sights they've captured. Between the familiar and the mysterious, the choice of discovery is yours to make.



아담 데스자르댕(사진가)
Adam Desjardins (travel photographer)

습곡 작용으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붉은 암석층이 장관을 이루는 래플리산맥에서 캠핑하며 하룻밤을 보낸다면 낯선 행성에 도착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Just off a highway through the desert is a spot that very few know about. Being able to camp out in this very dramatic red landscape is like being on a whole new planet.

01 래플리산맥, 미국 Raplee Ridge, U.S.

유타주 산후안 카운티에 위치한 멕시코 햇은 멕시코 모자 송브레로를 닮은 동명의 기암괴석이 있는 작은 마을이다. 래플리산맥을 비롯해 모뉴먼트밸리, 모아브, 캐니언랜즈국립공원 등과 가까워 베이스캠프로 좋다.

Raplee Ridge is a striking geographic feature in southeastern Utah. Also known as Raplee Monocline, the colorful rock layers called an anticline (folded rock formation) are strikingly beautiful. When exploring this area, it's best to get a view from above in a small plane or with a drone.



사이먼 어윈(여행작가, 사진가)

Simon Urwin (travel writer & photographer)

히말라야산맥 북쪽의 호수, 압드록초에서 해가 할 일은 그저 해의 위치에 따라 다채롭게 푸른빛을 내는 호수를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Yamdruk Lake, one of the most holy locations in Tibet, is where you can watch the colors of the water change with the sunlight in eye-popping shades of blues.

02

압드록초, 티베탄 히말라야

Yamdruk Lake, Tibetan Himalayas

티베트의 성지, 압드록초 호숫가를 따라 하이킹하다 보면 기도 깃발, 야크와 목동 등 티베트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만난다. 불교신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죄를 씻어내는 순례에 참여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된다.

Yamdruk Lake is one of the largest inland lakes in the northern foothills of the Himalayas. Visitors on a shoreline hike can see locals tying prayer flags, fishing for carp and grazing their yaks. Join Buddhist pilgrims as they walk around the lake and prostrate themselves to wash away their sins.



아이슬란드 사우스 코스트, 화산암과 화산토의 유황이 만든 황금빛 강물의 여정은 대서양까지 이어진다. 이 신비로운 장면을 제대로 담고 싶다면 경비행기를 타거나 드론으로 남쪽 해안선을 촬영하면 된다.

Iceland has an abundance of glacial-fed rivers. In Rangárpíng Eystra, a yellow-tinged river empties into the Atlantic Ocean, after passing over sulfur-rich sediment from nearby volcanic rocks and soil. The breathtaking display of colors and textures can be seen from a plane or by drone.



아담 데스자르랭(사진가)
Adam Desjardins (travel photographer)

레이카비크에서 소형 여객기에 오르면 검은 화산 대지와 유황이 만든 금빛 물줄기, 푸른 바다가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Taking a small passenger plane is a great way to see the braiding, yellow-tinged rivers flowing next to black sand beaches.

04 파다르섬, 인도네시아 Padar Island, Indonesia

파다르섬 북쪽 해변의 모래는 신비로운 분홍빛을 띤다. 분홍색 껍질을 가진 해양 미생물이 산호초와 함께 밀려와 형성된 모래사장이다. 코모도왕도마뱀의 고향인 코모도섬에서도 핑크 비치를 만날 수 있다.

On the northern side of Padar Island is Pink Beach, which gets its color from a pigment found in foraminifera (microscopic organisms that house themselves within reddish-pink shells). Nearby is world famous Komodo Island, home to the Komodo dragon; it also has a pink beach.



아담 데스자르딩(사진가)
Adam Desjardins (travel photographer)

라부안 바조에서 출발하는 보트 투어를 강력히 추천한다. 파다르섬의 환상적인 일출은 물론 인근의 코모도섬, 케나와섬의 멋진 풍광을 한 번에 만난다.

Take a boat from Labuan Bajo to visit Padar Island's famous sunrise viewpoint, nearby Komodo Island National Park and other incredible sights in the area.



05 남극 Antarctica

최후의 보루, 남극은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를 비롯해 남미 곳곳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면 닿을 수 있다. 드레이크해협을 건너면 엔터프라이즈섬 해안의 빙산, 플레노섬의 호기심 많은 펭귄과 물개들이 유빙을 건너 온 용감한 모험가를 기다린다.

A common way to explore Antarctica is by boat from South American ports like Ushuaia in Argentina. After crossing the Drake Passage, visitors can see icebergs the size of mountains off the coast of Enterprise Island. Further afield, Pleneau Island's curious penguins and resting seals await those brave enough to navigate through a moving sea of pack ice.



로렌 배스(디지털 인플루언서, 사진가)
Lauren Bath
(digital influencer & photographer)

국제남극관광협회가 남극이라는 버킷리스트를 현실로 만들어 준다. 당신이 열음 대지에 남기는 발자국은 스쳐 지나가는, 지극히 일시적인 순간이다. If Antarctica has been on your bucket list, "G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 Tour Operators ensures visitors have a minimal impact on the environment.



데이브 윌리엄스(작가, 사진가)
Dave Williams (author & photographer)

로포텐섬은 지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는 스폿 중 하나다. 9월말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찾으면 오로라의 절정을 관찰할 수 있다.

Head to the Lofoten archipelago to see the northern lights, also known as aurora borealis. The best time to see the northern lights is between late September and early April.

06

로포텐섬, 노르웨이 Lofoten Islands, Norway

로포텐섬의 작은 어촌 함뇌위의 빨간 오두막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은 오로라와 마을 전경을 함께 담은 포인트다. 장엄한 오로라와 언덕 뒤 산,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면 야생의 대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Framed by nearby mountains and glistening seas, Norway's small fishing village of Hamnøy, with vivid red huts dotting the islands below, is the perfect pla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In the stillness of the night, the beautiful setting creates a sense of calm, punctuated by wild moments.





마리나 스피로네티(저널리스트, 사진가)
Marina Spironetti
(journalist & photographer)

아타카마사막은 명상의 경험을 선사한다. 라마와 낙타를 닮은 비쿠냐를 만날 수 있는 초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지형은 인생 여행을 위한 무대 그 자체다.
The vastness of the Atacama Desert is a meditative experience. Dotted with llamas and camel-like vicuñas, the surreal landscape sets the stage for the trip of a lifetime.

07 아타카마사막, 칠레 Atacama Desert, Chile

질푸른 물빛의 라구나 미니케스는 아타카마사막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풍광을 가진 곳. 해발고도 4000여m의 고산지대에 오르면 라마로 가득한 평원, 플라밍고와 석호, 광활한 소금 지대를 만난다. 지열 온천 테르마스 데 푸리타마와 협곡 델 라 루나는 아타카마사막 경관의 백미다.

Against a backdrop of chiseled peaks, the deep blue Laguna Miñiques is one of the most dramatic views in Chile's Atacama Desert. At over 4,000m, adventure lovers can see llama-filled plains, flamingo-dotted lagoons, salt flats and the crystal-clear waters of the Termas de Puritama.



08

나미브나우크루프트국립공원, 나미비아 Namib-Naukluft National Park, Namibia

소서스블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구 중 하나다. 세스리엠의 작은 마을을 지나면 거대한 살갓빛 모래언덕이 나타난다. 운이 좋으면 표표히 서있는 오릭스 무리를 만날 수 있다. 신비로운 황야 데드블레이, 작은 모래언덕 소서스 뉘도 함께 올라보자.

The sand dunes at Sossusvlei are among the world's tallest. To reach them, drive from the small settlement of Sesriem. The road threads through a canyon between giant, apricot-colored dunes. You might spot a herd of oryx walking through the spectacular sand sea. Set out on foot to explore Deadvlei, and climb the scenic Big Mamma Dune to the north.



윌리엄 그레이(여행작가, 사진가)
William Gray (travel writer & photographer)

모래언덕 사이에 난 우아한 곡선, '코리도어'는 바람이 빚은 통로다. 이른 아침에 찾으면 날카로운 윤곽선과 불 붙은 듯 붉게 빛나는 풍경을 담을 수 있다. This national park features dunes over 300m high, sculpted by desert winds. Early morning sunlight inflames the dunes and etches their contours into sharp relief.

모험의 여정에 탑승하는 법

Riding Into Adventure

익숙한 여행 방식에서 벗어나 클래식 카, 기차, 크루즈를 타고 여행지를 탐험해보자.
여행 자체가 여행의 이유가 되거나 특별한 추억을 남겨줄 모험을 소개한다.

Break with tradition and travel by classic car, train or cruise ship.
However you get there, the journey itself can b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ritten by * YOO MI-JI



▶ 그린란드 원정대, 포낭 크루즈

Ponant Cruise, Greenland

북극을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월과 7월이다. 기온이 3~7°C 사이이고 태양이 하루 종일 수평선 위에 있는 백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크루즈 브랜드 포낭의 르 코망당 샤르코호는 빙하를 깨며 항해하는 쇠빙선으로, 하얀 얼음이 부서지면서 바다를 가르며 웅장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린란드 미개척지로의 탐험'은 형형색색 지붕이 아기자기한 잇톡콕통밋 마을을 지나고 따스한 미소의 이누이트족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카약 또는 고무보트인 조디악을 타고 빙하 사이를 탐험하며 향유고래, 북극곰과 같은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Le Commandant Charcot, a luxury icebreaker operated by French shipping company Ponant, is capable of touring the North Pole and Antarctica. Passengers can marvel at the sight of the frozen sea being divided. The Northeast Greenland's Unexplored Sea Ice cruise takes you around untouched remote regions of Greenland. En route, you will discover the Ittoqqortoormiit region, lined with colorful traditional houses, and meet the local Inuit people. Take a kayak or zodiac ride to explore glaciers and observe wild creatures, such as sperm whales and polar bears.





Courtesy of Da Biuso



Courtesy of Da Biuso



Courtesy of Da Biuso

▷ 이동식 비스트로, 호주 브리즈번 다 뷔소
Da Biuso, Brisbane, Australia

다 뷔소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파인다이닝을 선보이는 이동식 레스토랑이다. 12인승 버스를 개조해 리넨 커튼과 클래식 테이블을 두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닌 레스토랑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버스의 특별함은 퀸즐랜드 선사인 코스트에 위치한 말레니부터 브리즈번 시내 중심부인 CBD까지 어디든 게스트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해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영감을 받은 지중해식 메뉴를 코스로 나누어 선보이며,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계절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희귀한 와인 리스트를 갖추고 메뉴에 맞춘 페어링을 선보인다.

Da Biuso is a mobile fine dining restaurant in Queensland, Australia. A converted school bus with sheer curtains and classic table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ozy restaurant. What's special about this bus is that customers can feel like they are dining in a glamorous 1930s train dining car. Fortunately, the bus doesn't move during meals! Inspired by Sicilian cuisine, its European menu comes in different courses and changes seasonally based on the ingredients available. The restaurant has an exquisite selection of rare Italian wines, and pairings are available.

초호화 기차, 남아공 로보스 레일

Rovos Rail, South Africa

로보스 레일은 아프리카 일대를 여행하는 기차로 1989년 운행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기차'로도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이후 운행이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남아공의 케이프타운부터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에 이르는 노선을 다시 시작했다. 36개 객실에 최대 72명의 승객을 태우고 짧으면 2박 3일, 길면 15일까지 지속되는 여행을 선보인다. 객실 유형에 따라 더블 또는 트윈 침대를 배치해 편안함을 제공하며, 저녁 식사 시에는 격식을 차린 드레스 코드를 지켜야 한다. 로보스 레일에서는 현지에서 조달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에 남아프리카산 고급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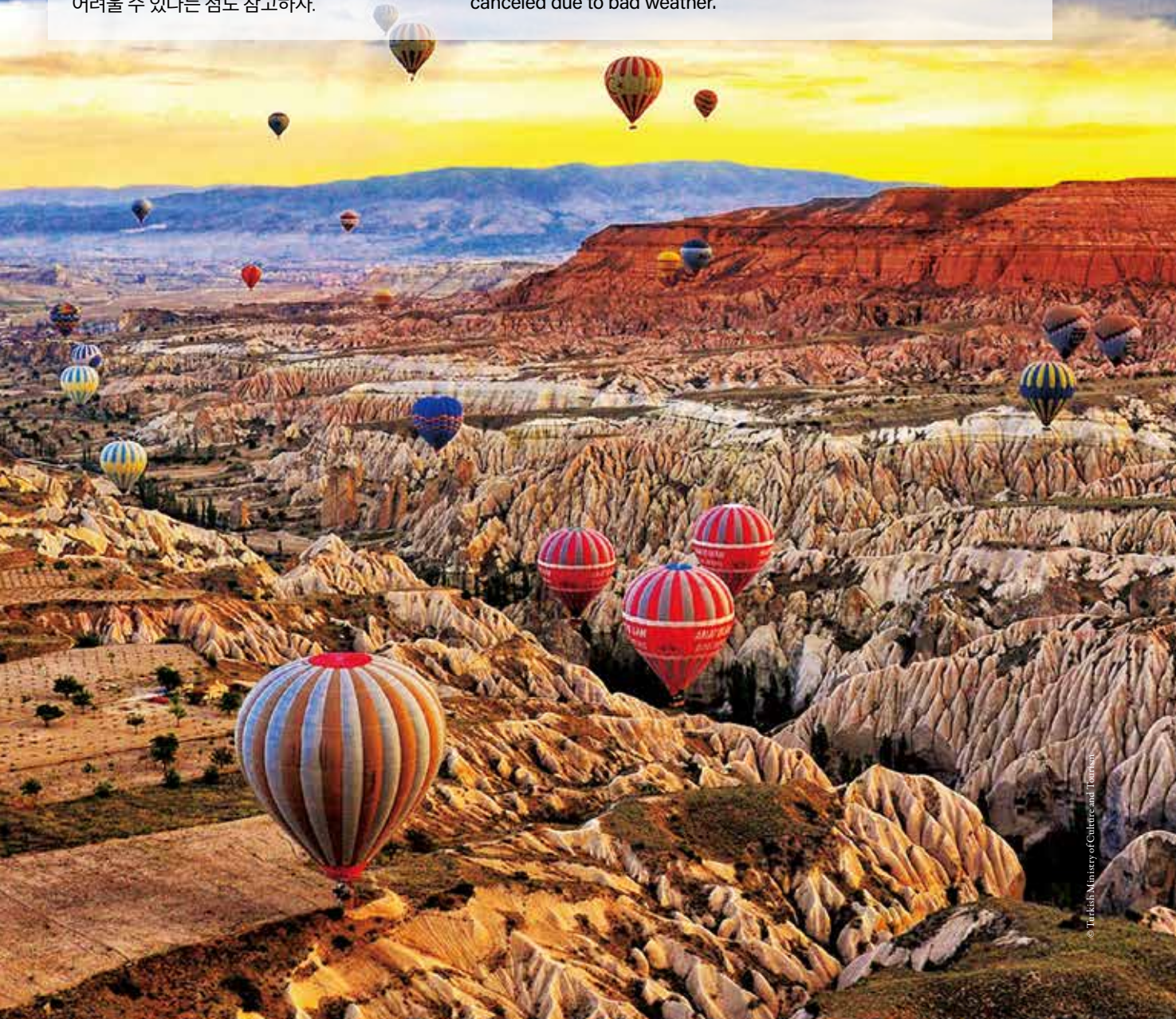
Rovos Rail, known as one of the most luxurious trains in the world, started operating rail journeys in Africa in 1989. Recently, the route between Cape Town, South Africa, and Tanzania's Dar es Salaam resumed operation. Up to 72 passengers in 36 cabins can go on a 2-15 night journey. All suites come equipped with a shower, toilet and basin. Bathtubs are available in the Royal suites. Guests are expected to adhere to a dress code for dinner, and diners may choose between tables for two or four. Meals are prepared with fresh local ingredients and paired with excellent South African wines.



▷ 하늘 위 전망대,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열기구
Hot Air Balloon in Cappadocia, Türkiye

드넓은 평야에 버섯처럼 생긴 기묘한 모양의 바위가 우뚝우뚝 솟은 카파도키아는 '신이 빛은 자연'이라 불린다. 카파도키아의 압도적인 풍경을 감상하려면 열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카파도키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열기구 안에서 바라보는 파샤바의 계곡, 괴레메 마을도 멋지지만 카파도키아 상공으로 함께 떠오른 열기구들이 만드는 장관도 탄성을 내지르게 한다. 단, 날씨에 따라 열기구 탑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Mushroom-shaped rocks in the middle of a vast landscape give Cappadocia its captivating appearance. To get a view of the spectacular scenery of the historical region with the sun rising in the background, a hot air balloon ride is highly recommended. Looking down at Pasabag Valley and the town of Göreme from the air is an exhilarating experience, but seeing a host of other hot air balloons in the air will take your breath away. You can purchase tickets for the hot air balloon rides from local tour operators both offline and online, but prices vary. Keep in mind that the balloon tours can be canceled due to bad weather.



▶ 도심 속 작은 케이블카, 슬로베니아 류블라나 성 푸니쿨라 Ljubljana Castle Funicular, Slovenia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라나는 유럽 소도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그중 류블라나 성은 마치 요새처럼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위치해 빨간 지붕과 초목이 가득한 도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다. 그 아름다운 전망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 구시가지에서 류블라나 성에 오르는 푸니쿨라에 탑승해보자. 전면이 투명 유리라 오르고 내리는 동안 주변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Ljubljana, the capital of Slovenia, is a beautiful small city in Europe visited by both domestic and foreign visitors. Ljubljana Castle is particularly popular since it has the best view of the entire city. Perched on a small hill, the castle overlooks the city's characteristic red roofs. To fully enjoy the beautiful view, take the funicular that connects the old town center and the Ljubljana Castle. Operated by the Municipality of Ljubljana, the glass-walled funicular offers spectacular views of the city.



© Duniya Weidam, Ljubljana Tourism



© Shutterstock



© Annie Ehringhaus, Old Cars Havana

▶ 오픈카로 시내 한 바퀴, 쿠바 하바나 클래식 카 투어 Old Cars Havana, Cuba

쿠바인들은 1940~50년대에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직접 수리하면서 차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2017년 쿠바 정부가 자국민에게 중소기업 창업을 허용한 뒤 형형색색의 클래식 카를 타고 하바나 시내를 달리는 투어가 생겨났고 이는 쿠바의 대표 여행 상품이 됐다. '올드 카스 하바나'를 통해 하바나 제일의 관광지인 센트로부터 한적한 교외까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바나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Lining the streets in downtown Havana are classic cars from the 1940s and '50s. They have been kept running by Cubans who either repaired them or smuggled in replacement parts. According to Old Cars Havana, the tour company was founded in 2017 when the Cuban government approve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From the busy Centro Habana to the outskirts, check out the different sides of the city on a classic car tour.

랜드마크를 품는 방 Room With a View

머무는 방 창밖으로 여행지의 랜드마크를 마주한다면 그 여행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방 안에 앉거나 누워 그림엽서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숙소들.

Enjoying the sight of a major landmark from the comfort of your hotel room is a surefire way to elevate your trip. Here is a list of stays with unforgettable views.

written by > YOO MI-JI



© davidatanphoto

▶ 프랑스, 르 메트로폴리탄 어 트리뷰트 포트폴리오 호텔 Le Metropolitan, Paris Tour Eiffel

르 메트로폴리탄 어 트리뷰트 포트폴리오 호텔은 창을 통해 에펠탑의 숨 막히는 전경을 감상하고 파리를 탐험할 수 있는 곳이다. 파리여행의 시크함이 잘 드러난 부티크 호텔로 19세기 오스만 양식으로 지어졌다. 6층과 마지막 층에 위치한 시그니처 에펠 스위트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 중 하나를 품었다. 타원형 창문 속에 에펠탑이 자리해 마치 액자 속 그림을 보는 듯한 풍경을 선사한다. 트로카데로 정원, 에펠탑, 상젤리제, 개선문, 샤요궁, 팔레 드 도교, 팔레 갈리에라, 기메 박물관 모두 도보로 25분 내에 갈 수 있으며 호텔 자체적으로 현대미술 컬렉션을 소장해 볼거리가 풍부하다.

Located within walking distance of iconic landmarks in Paris such as the Eiffel Tower and the Champs-Élysées, Le Metropolitan is a place where people can truly appreciate spectacular views of Paris. The architecture of the boutique hotel is characteristic of the chic Parisian style. Its signature Eiffel Suite on the top (sixth) floor is considered to have the most stunning view of the city. Looking at the Eiffel Tower framed by the suite's oval window is like gazing at a piece of artwork. The tower, Trocadéro Gardens, Champs-Élysées, Arc de Triomphe, Palais de Chailot, Palais de Tokyo, Palais de Galliera and Musée Guimet are all within a 25-minute walk. The hotel also has its own modern art collection.

▶ 이탈리아, 포레스티스 돌로미테스 Forestis Dolomites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숨어두고 싶다면 이탈리아 돌로미테스로 향하는 것은 어떨까. 포레스티스 돌로미테스는 해발 1800m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지친 몸과 마음을 챙기기에 좋은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돌로미테스산맥이 보이는 지역에 위치한 덕분에 객실에서 남부 티롤산맥의 눈 덮인 겨울 풍경부터 야생화 핀 봄, 눈부시게 푸른 여름, 형형색색의 가을을 감상할 수 있다.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충분한 일조량, 온화한 기후는 덤이다.

If you need a break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head to the Forestis Dolomites, situated in one of the world's most beautiful mountain ranges. Surrounded by thick forests at 1,800m above sea level, it's the perfect place to heal your body and soul. In rooms that offer a view of the Italian Dolomites, you can look out onto wintry landscapes of snow-covered mountains in South Tyrol, revel in spring's wildflowers and the lush greens of summer, and be awed by the colorful hues of fall.



© Forestis

▶ 미국,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은 LA의 금융 및 예술 지구 중심부의 윌셔 그랜드 빌딩에 위치한다. 로비가 70층에 자리 잡고 있어 체크인하면서 탁 트인 LA 시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전망을 149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한 889개 객실에서도 마주할 수 있다. 335m 길이의 돛으로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은 루프톱에서 LA 시내를 360°로 조망하거나 그 옆에 위치한 바에서 칵테일 한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The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is located in the Wilshire Grand Center, in the core of the financial and entertainment districts. The lobby on the 70th floor gives a spectacular view of Downtown L.A. The view can be enjoyed from all 889 rooms, each equipped with floor-to-ceiling windows. The hotel's iconic sail was inspired by Yosemite's Half Dome, and its silhouette changed L.A.'s skyline. At the rooftop bar, you can unwind with a cocktail while enjoying a panoramic view of the City of Angels.



©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 Explora

▶ **칠레, 익스플로라 토레스델파이네**
Explora, Torres del Paine

파타고니아의 웅장한 산봉우리를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 로지다. 파타고니아의 심장부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레스델파이네국립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호텔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머무는 동안 'W트랙'이라 불리는 유명 트레일 코스 트레킹을 비롯해 하이킹, 승마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자연을 바라보며 노천스파를 즐기고 파타고니아 지역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현지 미식을 맛보는 것도 가능하다.

At the Explora Torres del Paine lodge in Chile, guests can eat breakfast with a view of the southern Andes Mountains. Located at the heart of Patagonia, within the Torres del Paine National Park which was designated a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lodge was designed to fit i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Guests can go hiking or horseback riding on the famous W Trek. Another not-to-be-missed experience is sitting in one of the open-air whirlpool spas with a view of the Paine River.

▶ **호주, 론지튜드 131°**
Longitude 131°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울루루를 객실 침대에 누운 채 감상할 수 있는 럭셔리 로지다. 호주 아웃백 모래언덕 사이 울루루-카타추타국립공원에 위치하며 캐노피 형태의 16개 파빌리온에서 사막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객실에서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울루루의 신비한 풍경을 감상하고 반짝이는 별 아래에서 식사하는 것은 물론, 가이드 투어를 통해 원주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투숙객이라면 에어즈록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있다.

At luxury wilderness camp Longitude 131°,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you can enjoy views of the Uluru sandstone monolith. Dotted between the sand dunes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Uluru-Kata Tjuta National Park, the camp's tented pavilions provide the perfect glamping experience. Guests looking out of the pavilion window can catch breathtaking views of Uluru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and dine under a blanket of stars.



© Longitude 131

DISCOVER KOREA

HIDDEN KOREA / K-FOOD / 8 HOURS IN / INSIDE KOREA



순천 주암호 Juamho Lake, Su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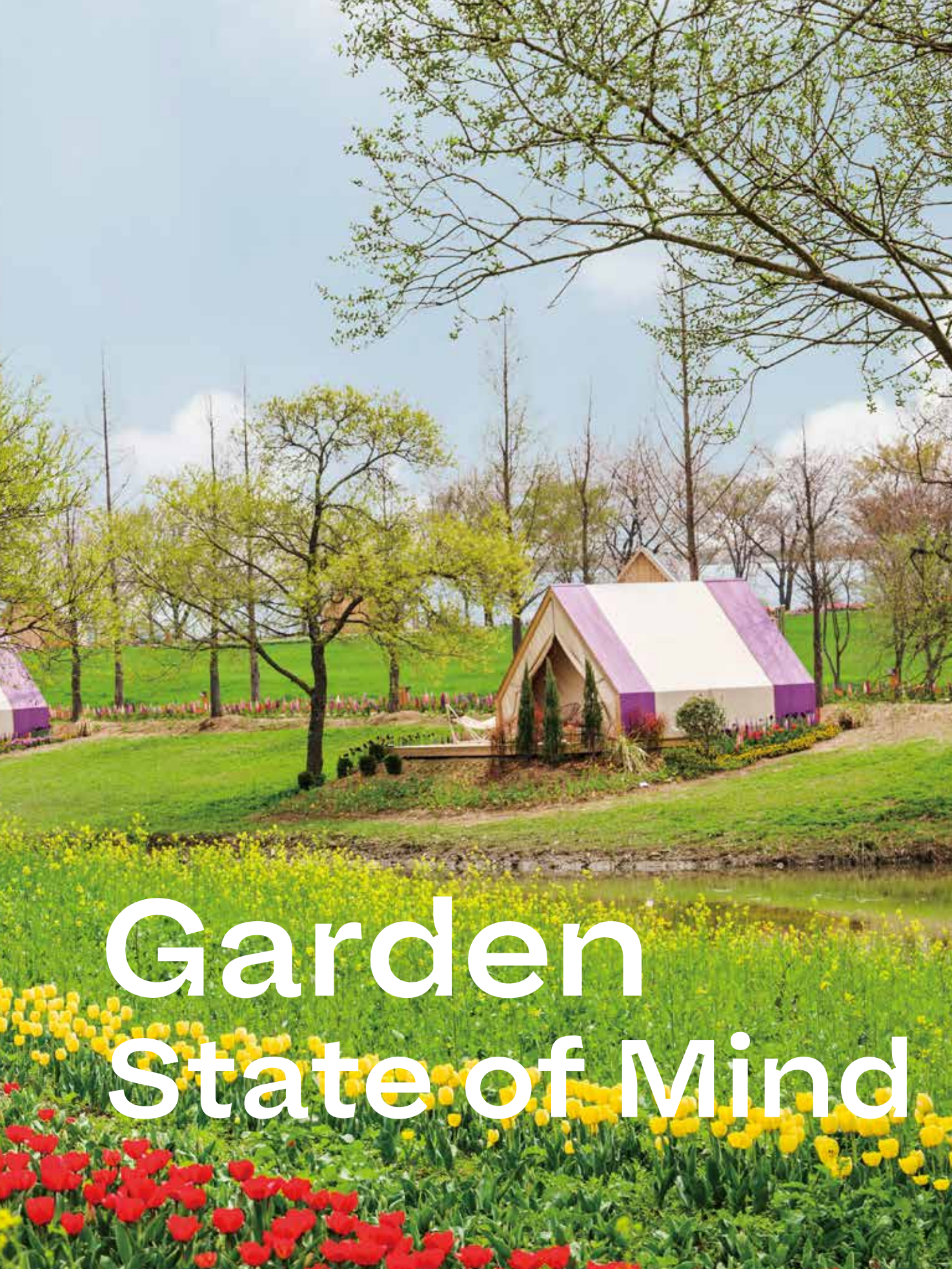
순천 정원 기행

철학자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된 전라남도 순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빛은 생태의 보고 한복판에서 그 말의 진의를 이해했다.

The philosopher Tagore said, “Foolish people are in a hurry and clever people wait, but wise people go to the garden.” I came to see the truth of this in South Jeolla Province's Suncheon, where the entire city is a garden.

written by » RYU JIN
photography by » JEON JAE-HO





Garden State of Mind

정원의 도시로

남도해양열차를 탔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4시간 30분 남짓. 3시간에 주파하는 고속열차를 두고 안행열차를 선택한 건, 느려서다. 속도를 늦춘 삶을 보고 싶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서두를 필요가 있나? 느긋한 마음으로 창밖 풍경에 시선을 두다 보면 '충분히 쉬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순천'이라는 두 글자가 나타난다.

순천을 찾은 건 정원 때문이다. 무려 '1호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곳이 이 도시에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에코 벨트다. 매해 겨울이면 전 세계 흑두루미의 60% 이상이 찾아오는 세계 5대 연안습지를 지켜온 이 정원에서 올해 엑스포가 열린다. 2013년에 개최한 첫 엑스포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엔 새로운 장면이 많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정원 말고도 도시 구석구석 정원의 영역을 확장했다. 국가정원과 습지, 도심의 마을 정원과 순천의 젓줄인 동천을 따라 이어진 경관정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가 약 5.45km²(165만 평)에 달한다. 도시 하나에 버금가는 면적을 전부 둘러보기란 무리. 가장 궁금했던 곳으로 직진한다. 동사 '쉬다'와 '길다, 오래'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랑에(lange)'를 합친 '실랑게(Shilange)'는 꽃밭에서 하룻밤 보내며 정원 곳곳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캐빈. 이곳에 머무는 이들은 아무도 입장할 수 없는 밤과 이른 아침에 국가정원을 내 집 마당처럼 독식할 수 있다. 찰스 쟁크스가 순천 땅의 형세를 본떠 디자인한 호수정원의 나선형 산책로를 홀로 걷거나 달빛 아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정원의 은밀한 순간을 엿볼 수 있다는 뜻이다. 거기에 순천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만든 닭구이, 짬뽕어탕, 꼬막차우더수프 같

To the City of Gardens

In the city of Suncheon in South Jeolla Province is Suncheonman Bay National Garden, Korea's first national garden. An ecological belt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Suncheonman Bay, the garden is the protector of land. It's part of a UNESCO biosphere reserve where more than 60% of hooded cranes from around the globe come to visit each winter. This year, the garden will be home to the 2023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which is being held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In addition to the official garden that requires paid entry, urban garden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every corner of the city. If you count the national garden, wetland reserve, village gardens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the landscape gardens that run along Dongcheon Stream, it adds up to an area of around 5.45km². Too vast an area to cover in one go, I headed straight to the place that piqued my curiosity.

Shilange, a mashup of the Korean word for "rest" and the German word for "long," are cabins where you can spend a night in the flower fields and revel in the picturesque views of the garden. Those who stay here can enjoy a night where the national garden is their exclusive domain and stroll the grounds in the early morning, as if it were their own backyard. Guests can also enjoy a solitary walk along the helical walking trail of Suncheon Lake Garden, designed



1 알람브라궁전과 구엘공원의 타일을 재현한 스페인정원. '세계정원'에는 12개국의 정원 디자인을 재현한 공간이 있다. The Spanish Garden has tiles modeled after those of Alhambra Palace and Park Güell.

2 찰스 쟁크스의 호수정원. 순천의 산과 강, 만을 6개의 언덕이 있는 정원으로 구현했다. Designed by Charles Jencks, Suncheon Lake Garden is an interpretation of the city and its surrounding mountains, rivers and bay.

3 국가정원 안 'WWT습지'에선 홍학, 백조를 비롯해 다양한 조류와 철새를 만날 수 있다. In the Suncheonman Bay National Garden's WWT Wetland, you can observe a variety of birds including flamingos, swans and migratory birds.



1



2



3

은 음식이 때맞춰 식사로 나오고, 요가와 명상, 어싱(맨발 걷기)을 더해 몸과 마음에 기운을 불어넣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 캐빈 앞 안락의자에 앉아 동천 변에 흐드러진 벚꽃을 마주 보며 이 낭만 넘치는 휴양을 후일로 기약한다.

아쉬운 마음을 느린 산책과 꽃구경으로 달랜 후 습지로 향했다. 순천이 생태 수도로 도약한 건 순천만습지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 덕이다. 22.6km²의 갯벌과 5.4km²의 갈대 군락지, 조류 252종과 동식물 1600여 종이 사는 대지가 주는 충만한 기운은 그 앞에 서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 겨울철새가 떠난 봄의 순천만은 베어낸 갈대 사이로 뾰족 솟아오른 새순과 간간히 보이는 텃새들만 기척을 내는 고요의 땅. 습지 안쪽을 둥글게 휘감는 데크 서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산바람, 바닷바람에 속이 뻥 뚫리는 순간과 만나다. 게으른 길고양이처럼 그 위를 걸다가 농게, 칠게, 짱뚱어 같은 생명체가 등지를 튼 갯벌 앞에 가만히 섰다. 그 살아 있는 존재들의 기척을 기다렸지만 기미 없이 잠잠하기만 한 땅. 이름 모를 텃새가 남기고 간 양중맞은 발자국과 서서히 기우는 해가 드리우는 금빛 그림자만 암전히 반짝이던 오후였다.

저전 마을 느린 산책

저전(楮田)을 풀이하면 닥나무 밭. 한지를 만들었던 옛 마을은 이제 꽃과 풀, 나무를 가꾸는 마을이 됐다. 저전동에선 2023순천만

by the famous landscape designer Charles Jencks, and relish a secret moment under the moonlight in a French, Italian, British or Dutch garden. Meals consisting of roast chicken, *jjangddong* fish soup or cockle chowder made from locally sourced ingredients arrive at just the right time. The cabins also offer experiences that recharge the mind and body such as yoga, meditation and “earthing” (barefoot walking). Sitting in an armchair next to the cabin and gazing out at the vibrant cherry blossoms on the banks of Dongcheon Stream made me promise myself I would revisit this charming spot one day.

After a leisurely stroll and gazing at the flowers, I headed toward the wetlands. There is no way to fathom the energy of this amazing place until you’ve stood in front of the mudflat stretching 22.6km², reedbeds covering 5.4km² and a habitat that is home to 252 species of birds and some 1,600 animal species. Once the migratory birds of winter have left, Suncheonman Bay is a tranquil scene where the sharply protruding shoots and occasional resident bird glimpsed between the freshly cut reeds are the only signs of life. Standing on the deck that encircles the

1 캐빈 '실랑계' 안에서 정원뿐 아니라 동천 변의 사계도 담을 수 있다.
Within the shilange cabins, you can enjoy views of the garden and the four seasons of Dongcheon Stream.

2 네덜란드에서 기증받은 유기농 툴립 1000여 송이가 활짝 핀 네덜란드정원.
With more than 1,000 organic tulips donated from the Netherlands, the Dutch Garden is in full bloom.

3 WWT습지를 두르는 산책로. 영국 환경단체와 함께 조성했다.
A walking trail around the WWT Wetland was designed with a British environmental organization.



1



2



3

남산 아래 옥천과 꽃 그림으로 단장한 옛 주택들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저전마을
 Against the backdrop of a mountain and a stream, Jeojeon Village
 unfolds like a beautiful watercolor painting.



국제정원박람회의 슬로건인 '정원에 삽니다'가 피부에 와닿는다. 1400여 가구가 사는 이 작은 동네에 눈 닿는 곳마다 정원과 텃밭이 있다. 순천시가 2018년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며 마을의 헌집과 빈집을 곱게 채색하고 버려진 공터에 꽃씨, 채소 씨를 뿌려 만든 아름다운 장면이다.

마을 주민들이 따로 또 같이 돌보는 45개의 정원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지만 굳이 그걸 보지 않아도 골목 어귀마다 크고 작은 화단이 산책자를 반긴다. 닥나무를 심은 띠정원, 350개의 향아리와 1400여 개의 디딤돌이 깔린 디딤돌정원, 마을 정원 안내자가 상주하며 꽃과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는 보랏빛향기정원 등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정원을 둘러보다 보면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산책 코스가 금세 끝난다. 이름 붙은 정원 구경도 흥미롭지만 저전동 산책의 묘미는 담장 앞 군데군데 놓인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이다. 외지에서 온 티를 내며 이 집 저 집 고개를 기웃대고 있으면 동네에서 가볼 만한 곳과 맛집을 선물처럼 톡 건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덕에 1919년 문연저전성당과 남산 아래 옥천 변의 수려한 경관을 놓치지 않고 마을 곳곳을 세세히 둘러볼 수 있었다.

inner wetland area, I enjoyed the mountain and sea breezes blowing in from all sides. It was an afternoon where the only things that glimmered were the dainty footprints left behind by unknown resident birds and the golden shadows of the slowly setting sun.

A Slow Walk Through Jeojeon Village

The word *Jeojeon* means mulberry field. This small village, which used to make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has now become a place that tends to flowers, grass and trees. The slogan of the 2023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is *Live in the Garden*, and I understood why during my stay.

Although there are signposts tha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45 gardens the residents maintain either individually or communally, visitors are greeted by flower beds of all sizes on every street corner so you can easily explore on your own. The village also has mulberry tree gardens

초록 갈대가 일렁이는 순천만습지의 여름. 인근의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갈대와 칠면초 군락,
여름철새가 어우러진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At the Suncheonman Bay Yongsan Observatory, you can enjoy scenic views of
green reeds, shrubby sea blite and summer migratory birds.







1



2



3



4

1 100여 년 역사의 저전성당 안 '역사 정원'도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The 100-year-old Jejeon Catholic Church has opened its "history garden" to visitors.

2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개인 정원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private gardens that village residents cultivate.

3 순천 문화의거리 터줏대감인 '골목 책방: 서성이다' Suncheon Culture Street's long-standing establishment is Walking With Book.

4 옥리단길엔 공방과 카페 등으로 개조한 근대 한옥이 종종 보인다. On Okridan-gil Street, you can see many traditional homes converted into workspaces or cafés.

옥천 변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순천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거리와 만난다. 옥리단길로 불리는 이 구역은 예술가와 공예가,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카페, 공방, 서점 등이 모인 곳. 보일러 대리점을 개조한 식당, 전라도 사투리를 간판으로 내건 카페, 원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등 둘러볼 만한 곳이 꽤 많다. 옥천 변을 곁에 둔 이 원도심의 매력은 십수 세기의 시간이 교차하는 경관에 있다. 조선시대 순천향교, 15세기에 축조된 순천부읍성 터, 20세기 초에 세워진 순천기독교선교역사 박물관 등 각기 다른 시절을 품은 건축물 사이를 걷다 보면 시계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잊은 채 모처럼 '지금'에 충실한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

해 질 녘 와온에서

순천 어디에 있든 해 질 녘엔 와온에 서 있어야 한다. 순천만 동편, '소가 누워 있는 형세의 봉우리 아래로 따듯한 물이 흐른다'고 해서 와온(臥溫)으로 불리는 이 해변은 갯마을의 고즈넉한 일상에 잠시 숨어들기 좋은 곳이다. 무엇보다 와온의 일몰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낙조를 고를 때 앞쪽에 꼽히는 장관으로 이름 높다.

and a Stepping Stone Garden with 1,400 or so stepping stones and 350 large traditional jars called *hangari*. There's also a Violet Fragrance Garden where a villager tells the story of the trees and flowers. Each place has its own charm, and taking a look around them will bring you to the end of a 90-minute walking course in no time at all. Follow the banks of Okcheon Stream all the way down and you'll end up at the trendiest street in Suncheon. Known as Okridan-gil, this is the street where stores, cafés, workshops and bookstores are clustered.

Another charming feature of the city center is sites where countless centuries intersect. As you walk through buildings from different eras such as the Suncheon Hyanggyo Confucian School from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Suncheonbueupseong Fortress built in the 15th century, you'll soon forget about the urge to check your watch or smartphone. You can spend half a day fully embracing the moment.



저전 마을엔 주민들과 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이 많다.
You can greet villagers at the community gardens in Jeejeon Village.



1



2



1 와온 마을 인근에 자리한 '와백당'. 심터 이자 카페, 숙소로 쓰이는 문화공간이다. Wabaekdang, located near Waon Village, functions as a resting space, café and guesthouse.

2 순천의 특산물, 정동어와 꼬막을 채취하는 어부. A fisherwoman harvests Suncheon's specialties such as mudskipper and cockles.

3 와온 해변의 낙조. 뿔배가 지나간 길에 고인 물 위로 윤슬이 반짝인다. The mudflat appears to glisten under the glow of the sun setting over Waon Beach.



관련 영상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You can view the related video in the digital magazine.

해변가 어디에 서도 진흙 갯벌이 금빛으로 물드는 풍광을 볼 수 있지만 해가 시시각각으로 기우는 속도를 체감하고 싶다면 바다 건너 솔섬과 마주 서길 권한다. 학이 납작하게 엎드린 모양새라고 해서 학섬이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지금은 무인도지만 예전엔 주막이 있어 ‘뺨배(조개를 썰 때 사용하는 널)’를 타고 조업을 나가는 어부들이 잠시 숨도 돌리고 목도 축였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아직 해가 머리보다 한참 위에 솟아 있는 늦은 오후. 일찌감치 할 일을 마친 빈 갯벌엔 어부의 손길을 가까스로 피한 칠게와 짱뚱어, 꼬막이 숨을 고르며 자신들을 지켜줄 어둠이 오기를 기다린다. 뺨배가 지나가며 구불구불하게 낸 물길 위에 윤슬이 반짝이면 태양의 하강이 시작됐다는 신호. 해변을 두르는 남파랑길에 선 모든 이가 일제히 고개를 돌려 하늘을 응시한다. 그 장면, 달이 뜨기를 목놓아 기다리는 장면이 내겐 일몰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온 감각을 열어 해가 넘어갈 때 만물이 띠는 색과 온도, 그 찰나의 분위기에 자기를 던지는 일. 와온이 좋은 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Waon Beach at Sunset

Wherever you are in Suncheon, you must make your way to Waon at dusk. The beach on the east side of Suncheonman Bay gets its name from being a place where “warm water flows down from the peak that resembles a cow lying down.” It’s famous for being one of the best spots to watch the sunset. Although you can view the mudflats tinged with gold from wherever you are on the coast, I recommend crossing over to Solseom Island to catch a better view of the sun as it winds its way down. While the sun is still high in the sky, the Japanese ghost crabs, mudskippers and cockles that have managed to evade the hands of fishermen all wait for the darkness that will bring them protection. When the gentle path created by a passing *bbeolbae* (board used to keep fishermen from sinking in the mud) starts shimmering in the remaining light, the sun has begun to descend. At that moment, everyone standing on Namparang-gil (1,470km coastal trail) focuses their gaze on the sunset, and the same people eagerly await for the moon to appear — a sight as beautiful as the setting sun. How often can you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in life? Reflecting on my time here, I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 moment is a timely gift from Waon.

여행자를 위한 정보 TIPS FOR TRAVELERS

추천 여행 / WHAT TO DO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차도를 잔디로 바꾼 그린아일랜드, 저류지를 꽃과 나무가 우거진 심터로 변모시킨 오전그린광장, 맨발로 흙을 밟으며 지구를 느끼는 어싱길 등 새로운 장소와 볼거리가 풍성하다.

The 2023 Suncheonman International Garden Expo runs from April 1 to October 31 and features new sites — the Green Island, Ocheon Green Square and the Earthing Path.

갈 만한 곳 / PLACES WORTH VISITING

와온 마을 가는 길에 위치한 유흥 마을엔 100여 년 된 한옥 고택을 개조해 만든 ‘와백당’이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들고 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당 한쪽 별채에 마련한 무인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내린 후 마당에 앉아 고목이 피워내는 각각각색의 꽃을 감상하며 쉬어 가보자. 마을 뒤편으로 난 대숲엔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길도 있다.

On the way to Waon Village is the fishing village of Yuryong. Here you can find Wabaekdang, a remodeled *hanok* (traditional Korean home) that has stood for close to 100 years. Get yourself a coffee from the unmanned café in a building on one side of the courtyard before sitting down to rest. Take a moment to awaken your senses and enjoy the beautiful surroundings.

유흥 마을 대나무 숲. 짧은 산책으로 마을이 한눈에 담기는 전망 데크에 닿을 수 있다.

Yuryong Village Bamboo Forest

Walk to the deck to see the entire village at a glance.



The Age of Bunsik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여성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장의 음식 사진을 올렸다. 소시지와 떡을 꼬치에 교대로 끼워 소스를 발라 먹는 '소떡소떡'이다. 한국에선 휴게소나 시장에서 쉽게 볼 법한 분식으로, 특별할 것 없는 게시물이다. 하지만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약 1억 5000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래퍼 카디 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분식이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사가 화려한 비빔밥이나 고급 요리에 속하는 불고기에서 저렴한 서민 음식인 분식으로 옮겨간 배경에는 K-콘텐츠의 무서운 저력이 있었다.

코로나19로 각국의 국경이 닫히기 전까지 K-콘텐츠는 음악,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의 아이돌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팬데믹 직후

A woman with glittering nail art uploads a food pic to her Instagram story. It shows *sotteok sotteok*, a skewer of alternating sausage and rice cakes with sauce. It's a kind of *bunsik* (Korean snack food) that can easily be found at rest areas and markets in Korea. By itself, the post isn't special, but when it's uploaded by rapper Cardi B, who has over 150 million followers, it's a whole different story. It hasn't been very long since *bunsik* dishes began to garner attention as representative foods of Korea. Internationally, the shift in interest from fancy bibimbap and bulgogi to *bunsik* can be attributed to the power of K-content.

분식의 시대

명실상부 한국인의 솔 푸드 분식이 존재감을 키워가더니, 어느새 외국인들의 일상에도 자리 잡아 남다른 한 끼를 선사한다. 전 세계에서 시작된 분식 열풍, 그 배경과 변화들.

A corn dog on the way home from school, some stress-relieving spicy *tteokbokki* and *gimbap* on a busy morning. Worthy of its designation as Korea's soul food, *bunsik* (snack food) has grown in popularity, gaining international attention.

written by > LEE JI-HYE
 photography by > LEE HYUN-SEOK
 food styling by > LEE A-YEON



어묵 *eomuk* (fish cake skewers)

라면 *ramyeon*

핫도그 *corn dogs*

떡볶이 *tteokbokki*

김밥 *gimbap*

튀김 & 순대
twigim (deep-fried food) and
sundae (blood sausage)



부드러운 생크림을 넣어 고소하면서도 매운맛이 덜한
로제 떡볶이는 국적 불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Made with cream and less spicy, rosé tteokbokki has
become a sensation that transcends borders.



부터 K-콘텐츠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렀다. 2020년 아카데미상 수상작 <기생충>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의 이미지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됐다. <기생충>에서 외국인들이 열광한 것은 라면이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의 혼합, '짜파구리'가 그 주인공.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동'으로 번역된 짜파구리는 <기생충>에 빠진 외국인들을 분식에 눈뜨게 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외국인들은 우리가 길거리에 쪄그려 앉아 만들던 간식 달고나에 환호했다. 리얼한 서민의 모습을 그린 한국 콘텐츠가 연이어 히트하자 덩달아 서민의 음식으로 상징되는 분식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인지도 있는 아이돌의 영향력이 더해졌다. 블랙핑크 리사는 멤버 지수의 드라마 촬영장에 분식 차를 보냈고, 일본의 한 외식 브랜드는 블랙핑크의 앨범 발매를 기념해 떡볶이 마니아 로제를 모티브로 한 '로제 떡볶이 블랙'을 현지에서 출시했다. BTS는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떡꼬치를 맛있게 먹었고, 해외 투어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수없이 많은 컵라면을 먹었다. 비빔면을 좋아하는 RM이 1개는 양이 적다며 사이즈를 늘려달라는 농담을 던지자 실제로 팔도에선 1.2배 커진 비빔면을 한정 출시했다. 지민이 먹은 길거리 떡볶이를 두고

Before each country closed its borders due to COVID-19, K-content was strongly represented by K-pop. However, it started moving in an interesting direction after the onset of the pandemic. The Academy Award-winning film *Parasite* (2019) painted a new picture of Korean food for overseas audiences. The food that inspired the most enthusiasm was *jjapaguri*, a combination of two kinds of *ramyeon* (Korean instant noodles). The two brands are Chapagetti and Neoguri. This simple dish awakened fans of *Parasite* to the world of *bunsik*. Overseas viewers of *Squid Game* (2021) fell in love with *dalgona*, a nostalgic street snack made from melted sugar and baking soda. With more K-content focusing on the lives of ordinary Koreans, *bunsik* has found its place on the world stage.

The influence of recognizable idols has only added to the hype. BLACKPINK's Lisa sent a *bunsik* food truck to co-member Jisoo's drama filming location, and two restaurants in Japan launched special *tteokbokki* (spicy rice cake) dishes to mark the release of the group's album. American NBC News also pointed out "...that moment BTS singer Jimin helped make [*tteokbokki*] a trending item on social media when he was spotted eating it at a Seoul food market."

Recently, BTS member V and other Korean actors on the reality show *Jinny's Kitchen* proved that *bunsik* truly has gone global. The members of the show run a restaurant in Bacalar, Mexico, where they sell popular *bunsik* dishes such as *tteokbokki*, *ramyeon* and corn dogs.

As the popularity of *bunsik* has increased overseas, so has the number of shops selling Korea's street food. London restaurant Bunsik



홍신애 요리 연구가의 로제 떡볶이 레시피 Hong Shin-ae's Rosé Tteokbokki Recipe

재료 떡 150g, 껍질 벗긴 새우 8마리, 양파 1/4개, 쪽파 2대, 생크림 100ml, 육수 또는 물 400ml, 올리브오일, 양념(간장·다진 마늘 1큰술씩, 설탕·고추장 2큰술씩)

INGREDIENTS 150g *tteok* (rice cakes), 8 peeled shrimp, ¼ of an onion, 2 chives, 100ml fresh cream, 400ml stock or water, olive oil **SAUCE** 1 tbsp soy sauce, 1 tbsp minced garlic, 2 tbsp sugar, 2 tbsp gochujang

- 1 껍질 벗긴 새우는 등을 갈라 나비 모양을 만든다.
- 2 양파와 쪽파는 잘게 썬다.
- 3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양파와 쪽파를 넣고 30초간 볶다가 새우를 넣어 함께 볶는다.
- 4 새우 겉면이 빨갱게 익기 시작하면 떡을 하나씩 떼어 넣고 육수 또는 물을 붓는다.
- 5 양념을 넣고 잘 저어주다가 끓어오르면 생크림을 붓고 조금 더 끓인다.

- 1 Butterfly the shrimp.
- 2 Finely chop the onion and chives.
- 3 After coating the pan with olive oil, add the onion and chives and cook for 30 seconds. Then add the shrimp and stir-fry together.
- 4 When the shrimp begins to turn red, place the *tteok* in the pan one at a time and pour in the stock or water.
- 5 Add the sauce and stir well. When the mixture comes to a boil, pour in the fresh cream and allow it to boil a little longer.



© DOSAN BUNSIK



© DOSAN BUNSIK

다국적 입맛을 반영한 분식의 변주 또한 돋보인다. 이국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새로운 분식 메뉴도 다채롭게 개발되고 있다.
 Variations of *bunsik* reflect global tastes, and new dishes are being created using unique ingredients and exotic ideas.

미국 NBC는 “지민이 먹은 떡볶이에 대한 관심이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 <서진이네>는 본격적인 분식의 세계화를 방증했다. BTS 뷔를 비롯한 영화배우들이 멕시코 바칼라르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떡볶이, 김밥, 라면, 핫도그 같은 일반적인 분식을 판매한다. 뷔는 <서진이네> 촬영 동안 라면을 자주 끓여 먹어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분식의 인지도가 올라가자 해외 분식점도 늘어났다. 런던의 분식점 ‘BUNSIK’은 달콤한 설탕이 뿌려진 핫도그로 영국인들을 기꺼이 줄 서서 기다리게 했다.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 더욱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3호점까지 오픈했다. 영국이 핫도그에 열광하고 있다면 미국은 떡볶이가 장악했다. 뉴욕의 ‘마녀 떡볶이’는 밀떡부터 고구마떡, 옥수수떡 등 다양한 유형의 떡을 로제나 카르보나라 소스에 볶아 판매한다. LA에 분점을 낸 ‘동대문엽기떡볶이’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미친 듯이 매운 떡볶이’로 ‘#KTownSpicyChallenge’ 이시첼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독점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선 김밥이 인기다. 경제 전문지 <도요게이자이> 온라인은 “한국 김밥이 이렇게 일본에 침투한 이유”라는 기사에서 “일본 각지에 김밥 전문점이 들어서고 편의점에서도 판매된다. 유행이 점점 가속화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분식은 1960~70년대 쌀 부족으로 정부가 힘썼던 혼분식 장려운동에서 시작됐다. 쌀로만 밥을 짓지 않고 일정량의 잡곡을 섞는 혼식과 밀 같은 다른 곡식으로 만든 분식을 장려한 운동이다.

had Brits eagerly lining up for their wide variety of corn dogs. With the take-out option, it became even more popular and the restaurant has since opened two more locations. While the craze for corn dogs has swept across the U.K., the U.S. has fallen for *tteokbokki*. New York’s Witch Topokki encourages diners to create and cook their own specialized *tteokbokki* bowls with a variety of sauces and ingredients. Dongdaemun Yeopgi Tteokbokki opened a branch in Los Angeles known as Yupdduk and has monopolized the hashtag #KTownSpicyChallenge with what’s known as “crazy hot *tteokbokki*” among locals. In Japan, *gimbap* (seaweed rice roll) is popular. According to the Weekly Toyo Keizai, specialty *gimbap* shops have been popping up all over Japan.

Local legend says a rice shortage in the 1960s and ‘70s spawned Korean *bunsik*. The government launched a program to change dietary habits. Citizens were encouraged to include mixed grains in rice and to use other crops like wheat to make *bunsik*, which originally meant flour-based food. Since then, dishes like *tteokbokki*, *ramyeon* and oth-

이 시기부터 떡볶이, 라면, 순대 등이 길거리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의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분식은 오랜 시간 다양한 변화를 거쳐 최근에는 프리미엄으로 변화 중이다. 건강한 식재료와 야채 음식을 넣은 김밥부터 고급 식재료를 토핑으로 올린 떡볶이, 새로운 조합으로 탄생한 신메뉴가 생겨났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도산분식에선 튀긴 돈가스를 샌드위치에 끼워 넣거나 알싸한 마라 소스에 김말이튀김을 버무려 판매한다. 육회를 통째로 넣은 김밥도 즐길 수 있다. 서울 성동구의 띠또분식에선 수제 오징어튀김을 탐처럼 쌓은 깔라마리타워나 매콤한 짜장 떡볶이를 맛볼 수 있다.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모두의 떡볶이>라는 책까지 출간한 홍신애 요리 연구가의 원 픽 분식점에도 특색 있는 메뉴가 많다. “강남구에 있는 루비떡볶이를 좋아해요. 새우깡떡볶이, 수제소시지김밥이 맛있어요. 특별한 식재료와 분식의 조화가 흥미롭죠.”

분식의 창조적 변화는 음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분식은 길거리에 서서 먹거나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렴한 점시에 담아 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키치한 인테리어나 고급스러운 와인 바를 연상시키는 분식점도 많다. 라면 브랜드 농심은 최근 메타버스 분식점을 오프라인에 그대로 옮겨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주말이면 오픈런을 할 정도로 북적였다.

홍신애 요리 연구가는 이러한 분식의 변화가 당연하다고 말한다. “우리만 먹기 아까울 정도로 분식이 맛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젠가 많은 외국인이 분식을 사랑할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요. 분식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 색다른 분식을 끊임없이 개발 중인 한국. 바야흐로 분식의 시대라고 할 만해요.”

서울 성수동에서 열렸던 팝업스토어 '신라면 카페테리아'
Pop-up store "Shin Ramyun Cafeteria" in
Seoul's Seongsu-dong neighborhood



© NONGS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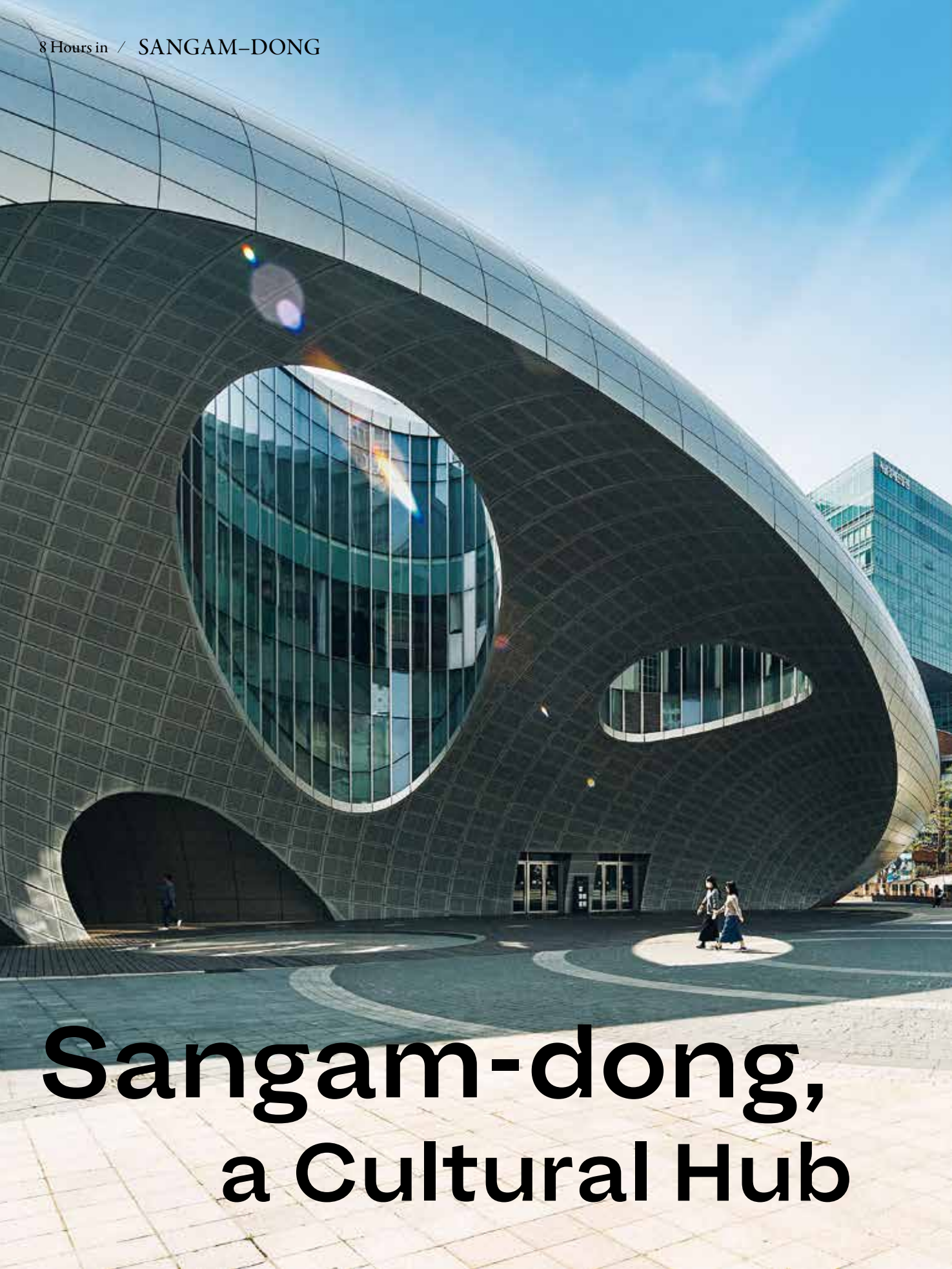
© TOBOKI

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동의 토보키는 핑키한 무드로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
Sindang-dong neighborhood's Toboki restaurant is popular for its tteokbokki and its funky ambience.

ers became the everyday food of common folk, available on every street corner. Over the years, *bunsik* has gone through a lot of changes. Recently, it's even tapping into the premium space. From *gimbap* made with unique ingredients to *tteokbokki* with gourmet toppings, new combinations are paving the way for exciting dishes.

Dosan Bunsik in Gangnam, Seoul, sells fried pork cutlet on a sandwich or *gimmari* (fried seaweed rolls) tossed in a *mala* (a spicy seasoning made from Sichuan peppercorn and chili) sauce. At Ttitto Bunsik in Seoul's Seongdong-gu district, you can try the fried squid stacked into a calamari tower or *jjajang* (black bean sauce) *tteokbokki*. Food researcher and chef Hong Shin-ae loves *tteokbokki* so much that she published the book *Everyone's Tteokbokki*, and has her own recommendation of *bunsik* restaurants. "I like Ruby Tteokbokki in Gangnam. The Saeukkang Tteokbokki (shrimp cracker spicy rice cake) and Handmade Sausage Gimbap are delicious," she says. "The concept of unique ingredients and *bunsik* is exciting."

Bunsik is constantly changing. In the past, *bunsik* was eaten standing on the street or off inexpensive plates while sitting on plastic stools. But now, *bunsik* restaurants are reminiscent of high-end wine bars with kitschy interiors to suit the tastes of millennials and Gen Z. According to Hong, these trends in *bunsik* are to be expected. "With the world going head over heels for *bunsik* and Korea developing unique versions of the beloved dishes, you can truly say that we're entering the Age of *Bunsik*."



Sangam-dong, a Cultural Hub



월드컵공원의 난지캠핑장에서 캠핑, 글램핑, 짧은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At Nanji Campground in World Cup Park, you can enjoy camping, glamping or a short picnic.



AM
10:00

WORLD CUP PARK

월드컵공원

유독 공원이 많은 상암동. 그 배경에는 난지도가 있다. 난지도는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 시민이 버린 폐기물이 쌓인 2개의 거대한 산이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난지도 일대 270만㎡는 대규모 환경·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탄생한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이 모여 월드컵공원이 됐다. 평화의공원에는 유니세프광장과 난지연못, 피크닉장, 평화의정원 등이 있어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난지천공원에는 유아놀이터와 축구장이, 난지한강 공원에는 캠핑장과 산악자전거 체험장 등이 있어 좀 더 활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Sangam-dong neighborhood has an abundance of parks. This is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its Nanjido Island, which had been used as a garbage dump for the city of Seoul for 15 years. When Seoul was named the host of the 2002 FIFA World Cup, the city decided to turn the landfill into World Cup Park, a 2.7km² collection of public spaces, namely, Pyeonghwa, Haneul, Noeul, Nanjicheon and Nanji Hangang River parks. At Pyeonghwa Park, you can enjoy the children's playground, pond and garden, while Nanji Hangang Park offers spaces for mountain biking, skating and skateboarding.

문화허브, 상암동

많은 사람이 상암동을 낙후했던 동네로 기억한다. 하지만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미디어의 중심이자 생태공원의 상징, 문화허브로 거듭난 지금 상암동은 그들의 기억과는 많이 다르다.

Once an unimpressive, underdeveloped neighborhood, Sangam-dong has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as par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urning it into a media and cultural hub with an ecological park.

written by » LEE JI-HYE
photography by » KIM YEON-JE
illustration by » JOE SUNG-HEUM



AM
11:00

OIL TANK CULTURE PARK

문화비축기지

1급 보안 시설로 41년간 일반인 접근이 금지됐던 석유비축 기지가 문화 탱크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과거 많은 양의 석유를 보관했지만 2000년에 폐쇄된 이후 10년 남짓 방치하다 2017년부터 문화공간으로 오픈했다. 휘발유를 보관하던 T1 파빌리온에선 매봉산의 암반과 함께 전시나 공연을 감상할 수 있고 경유를 보관하던 T2 공연장은 야외무대가 됐다. 대규모 축제나 공연, 벼룩시장 등이 열리는 문화마당과 생태놀이터, 1.3km의 산책로도 있다.

What is now the Oil Tank Culture Park was an area closed to the general public for 41 years, but it's now a cultural landmark open for anyone to visit. Originally, the space was used as an oil depot, but this was shut down for safety reasons ahead of the 2002 FIFA World Cup. The T1 Glass Pavilion, which used to store petroleum, became a space for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The park also contains a culture plaza for outdoor festivals, performances and flea markets; a play area; and a trail for visitors to stroll along.

문화마당, 커뮤니티센터, 이야기관, 공연장 등 총 7개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The park is divided into 7 spaces including a culture plaza, a community center, a story hall and a performance space.

PM
1:00

SANGAM CULTURAL SQUARE

상암문화광장

MBC 본사 사옥과 한국영상자료원, 누리꿈스퀘어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 광장이다. 방송 관계자, 한류스타, 그들을 보러 온 팬들로 항상 붐빈다. 한류스타의 핸드프린팅이 설치된 스타파크, 보이는 라디오 가든스튜디오를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하는 파란 조형물 스쿼어 M도 자리했다. 광장 인근의 DMC 홍보관에서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 <거인벌에서 온 텔레파시: 우주선을 고쳐줘!>가 열리고 있어 가족이 함께 다녀오기에도 좋다.

The Sangam Cultural Square, surrounded by the MBC headquarters, the Korean Film Archive, and Nuritkum Square, is always brimming with people who work in the media and Hallyu celebrities and their fans. This is where you can find the Star Park with Korean stars' handprints, the glass-fronted MBC Garden Studio and Square M, which has the blue statues that appear in the film *Avengers: Age of Ultron* (2015). Sangam DMC Promotion Center is holding a media art exhibition.





PM
2:00



KOREAN FILM MUSEUM

한국영화박물관

영화필름과 대본, 촬영 기기, 소품 등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소장된 박물관이다. <기생충>, <부산행> 등에서 배우들이 착용한 옷이 그대로 전시돼 있다. 대중문화의 주류로 등극한 좀비, 그중에서도 <부산행>,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 이어지는 K-좀비를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획 전시 <지금 우리 좀비는>이 6월 24일까지 이어진다.

Run by the Korean Film Archive, this museum houses artifacts showing the 100-year history of Korean film. Visitors can see film clips, cameras, posters and props. Even costumes worn by actors in recent international hits, such as *Parasite* (2019) and *Train to Busan* (2016), are exhibited. If you are a fan of zombie films, check out the exhibition, *All of Us are (Not) Zombies*, which runs through June 24.

한국영화박물관에선 100년이 넘는 한국영화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At the Korean Film Museum, you can see artifacts from more than 100 years of Korean film.



PM
4:00**MULGYUL HANGANG**

물결 한강

공원이 많은 상암동이지만, 카페 물결 한강에서 '물멍'도 즐겨보자. 카페는 난지한강공원의 한강 자전거길에 인접해 있다. 2층 건물에 물결을 형상화한 실외 벤치, 쾌적한 강바람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테이블이 마련됐다. 사방이 통유리라 노을 지는 한강을 감상하기 좋다.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스카치 베이스에 버터, 수제 생크림을 넣은 '버터 스카치 라떼'와 신선한 민트와 라임을 넣은 '물결 모히또' 등이 인기 메뉴. 바지선 위에 있는 만큼 물결에 따라 조금씩 흔들린다.

Sangam-dong may be known for its parks, but it's a great place for you to relax as you watch the *mulgyul* (waves) in the Hangang River, especially at the Mulgyul Hangang café, which is right on the river. On the second floor of the café building, there are outdoor benches shaped like waves, so you can sit and enjoy the fresh river breeze. The glass walls on all sides make it a perfect place to enjoy the sunset over the Hangang River. Two of the most popular drinks here are the butterscotch latte and the virgin mojito.

여름철에는 카페 1층의 야외 공간에서 수상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During the summer, you can learn water sports right in front of the café.

PM
5:00**SEOUL MOUNTAIN CLIMBING AND CULTURE CENTER**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고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와 서울시가 합작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외관은 안나푸르나를 형상화했고, 야외에는 히말라야에서 유명을 달리한 산악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두었다. 테라로사 카페가 있는 1층의 상설 전시장에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한국의 명산을 비롯해 서울의 47개 산을 사진과 AR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최고 높이 14.4m, 폭 31m 규모의 실내외 인공암벽장과 실내 볼더링장은 초보자나 숙련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가족,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The Seoul Mountain Climbing and Culture Center is a cultural complex jointly buil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Park Young-seok Exploration and Cultural Foundation. On the first floor, where there's a branch of Terarosa Coffee, people can find a permanent exhibition hall and enjoy pictures and augmented reality views of the Seven Summits, the world's highest mountains, as well as the 47 named mountains in Seoul. There's also an indoor/outdoor artificial rock climbing wall that's 14.4m tall and 31m wide and an indoor bouldering gym for both beginners and professionals. Special programs for children and those with disabilities are also available.



월드컵공원 중 하늘과 가장 맞닿은 하늘공원(왼쪽)과 130여 개의 캠핑 사이트가 있는 노을공원(오른쪽)

Haneul Park (left) is closest to the sky of all the World Cup Parks, and Noeul Park (right) has many facilities.



PM
6:00

NOEUL AND HANEUL PARKS

노을공원 & 하늘공원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를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한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은 이름처럼 월드컵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다. 시원하게 뻗은 한강과 더불어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내어준다. 노을공원에 도심 속 색다른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노을캠핑장이 있다면, 하늘공원에는 철마다 바뀌 피는 꽃과 푸른 녹음이 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맹꽁이 열차를 타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노을공원은 반딧불이생태관 인근에서, 하늘공원은 유아숲체험원 인근에서 타면 된다.

Noeul Park and Haneul Park, meaning Sunset Park and Sky Park, respectively, are located on each side of Seoul Mountain Climbing and Culture Center and sit on the highest parts of World Cup Park, as the names suggest. Here, you can get a panoramic view of the Hangang River and the city of Seoul. At Noeul Campground inside Noeul Park you can spend a peaceful night in the middle of the city. If you want to see the changing seasons and nature, Haneul Park is the perfect place to visit.

하늘공원에서 본 노을 질 무렵 서울 풍경
View of the sun setting over Seoul from Haneul Park





1



2



3

1 270만㎡ 크기의 대규모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
World Cup Park is a huge ecological area made up of several individual parks occupying 2.7km².

2 유휴시설을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comprises unused oil storage facilities that have been transformed into cultural spaces.

3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이 모여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속 상암문화광장
Sangam Cultural Square in Digital Media City is home to many broadcast and media centers.

4 영화관, 영상 도서관 등과 함께 자리한 한국영화박물관
The Korean Film Museum is located alongside a movie theater, video library and more.

5 커피와 한강 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 물결 한강
Mulgyul Hangang is where you can enjoy coffee and a view of the Hangang R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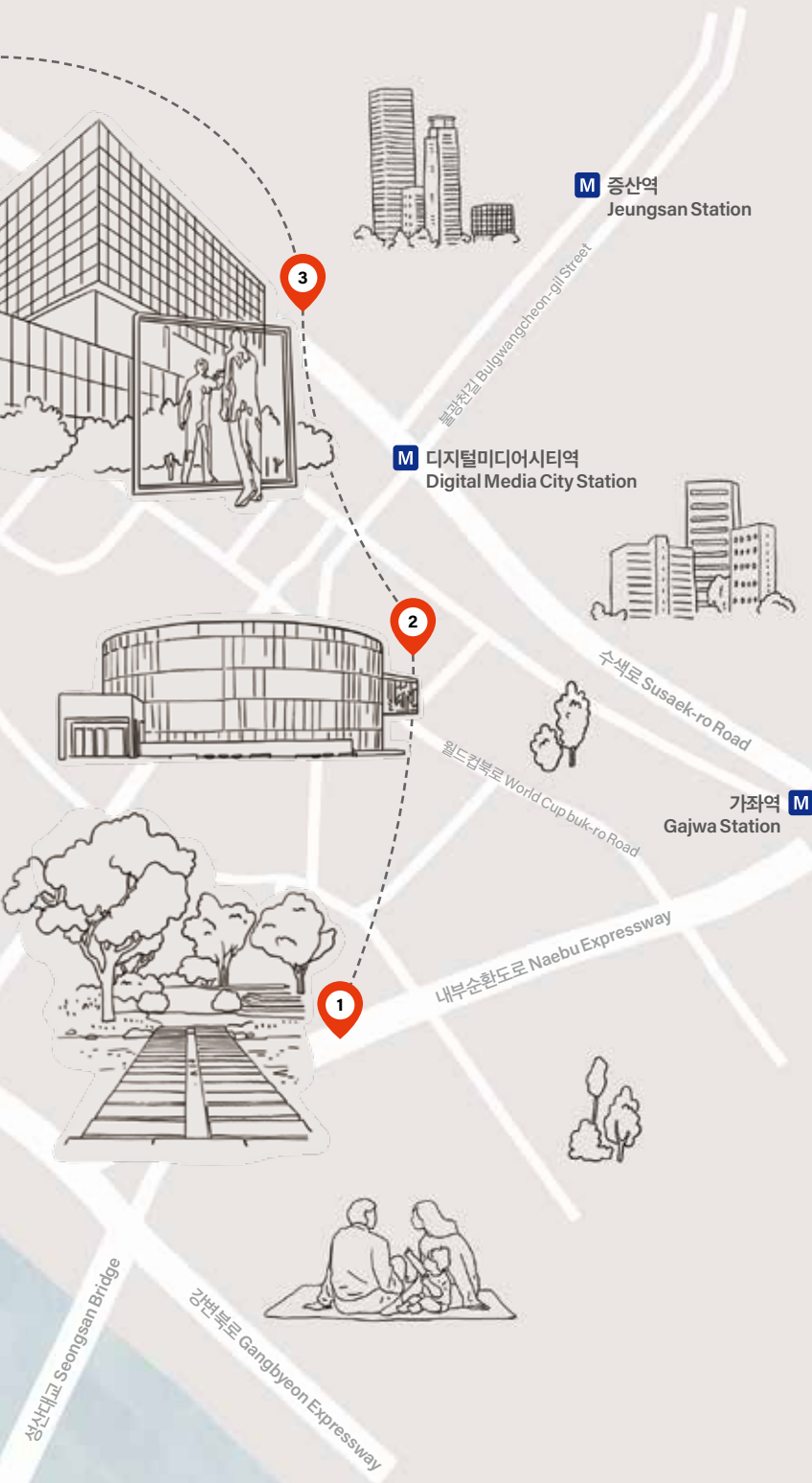
6 산악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Seoul Mountain Climbing & Culture Center is where you can learn and experience the history of climbing.

7 드넓은 잔디밭에 조각품, 전망 데크, 캠핑장 등을 갖춘 노을공원
Noel Park has sculptures, an observation deck and a campground.



문화와 휴식이
풍성한 동네,
상암동 걷기 지도

Walking Map for
Sangam-dong



4



5



6



7



관련 영상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You can view the related video
in the digital magazine.

초여름 동쪽 바닷가

Summer by the East Sea

한결 여유로운 바다를 누릴 수 있는 5월과 6월. 한갓진 강릉과 동해를 여행할 때 들러야 할 3곳.

May and June are perfect months to head out to the East Sea. Here are three places you can visit on an early summer trip to Gangneung and Donghae cities.

written by * KOREA TOURISM ORGANIZATION (english.visitkorea.or.kr)



더 많은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 ARTE MUSEUM

1 아르떼뮤지엄 강릉 Arte Museum Gangneung

디스트릭트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 강릉은 지금 강릉의 가장 핫한 아트 스폿이다. 코엑스 미디어아트 'WAVE'로 유명한 디스트릭트가 제주, 여수에 이어 2021년 개관했다. 소나무와 꽃, 폭포, 바다 등 강원도와 강릉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12개의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전시가 약 4959m²의 공간에서 펼쳐진다. 특히 메인 전시관은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에 아리랑 선율이 더해진 입체적이고 몽환적인 작품으로 발길을 모은다.

Arte Museum Gangneung is a popular spot for art lovers. Inside the huge exhibition space, there are 12 colorful immersive media artworks that reflect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from pine trees and flowers to waterfalls and the sea. Visitors entering the main exhibition hall can hear the melody of Korea's traditional song, *Arirang*, in harmony with the region's natural beauty. It's easy to lose yourself in the 3D exhibits.

2 도깨비굴 스카이밸리 Dojjaebigol Sky Valley

아름다운 동해에서 하늘을 걷는 듯한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도깨비굴 스카이밸리로 가야 한다. 고도 59m의 아찔한 전망대 스카이워크,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자전거로 달리는 스카이사이클, 전망대에서 타는 약 27m의 원통형 미끄럼틀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 자연을 감상하며 이색 레포츠까지 체험할 수 있다. '도깨비'의 방언인 '도째비'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덕분에 곳곳에 귀여운 도깨비 조형물이 많다.

To feel the thrill of walking in the sky, visit Dojjaebigol Sky Valley in the port city of Donghae. Attractions include a 59m-high skywalk and observation deck, a sky-cycle ride and a giant 27m cylindrical slide. Dojjaebigol takes its name from *dojjaebi*, which in the local dialect is the term for "goblin." The area is home to numerous goblin sculptures, including one of a willow tree known as the Dokkaebi Tree.



© DONGHAECITY



© rebanos/Shutterstock.com

3 오죽헌 Ojukheon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이의 생가이자 그의 어머니인 화가 신사임당의 친정집이다. 율곡 이이는 5000원권 지폐의 모델, 신사임당은 5만 원권 지폐의 모델이다. 말하자면 오죽헌은 세계 최초 모자 화폐 인물 탄생지인 셈이다. 조선 중기에 지어 한국의 주택 중 비교적 오래된 건축물에 속해 건축학적 면에서도 뛰어난 가치를 지닌 곳이다. 뒤뜰에 줄기가 손가락만 하고 색이 검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 '오죽헌'이라 이름 붙였다.

Ojukheon is the house where Yi I, also known as Yulgok, a scholar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was born, as was his mother, painter Shin Saimdang. Named after black bamboo growing in the surrounding garden, the house has been preserved by Gangneung City. Yulgok appears on the 5,000 won bill, and his mother on the 50,000 won bill: a world first for a mother and son to both appear on a currency.

쌓이는 속도가 다르다 대한항공카드

030 | 070 | 150 | the First

· 연회비 : 국내전용/국내외겸용(MasterCard) 대한항공카드 030(3만원), 070(7만원), 150(15만원), the First(50만원) ·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 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 일시불 : 거래 발생시점 기준 최소 기간(2개월)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무이자할부 : 거래 발생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 계약 기간의 유이자할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카드 신청 전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 약관 참고 · 준법감시심의필 230330-033호(2023.03.30~2024.03.29)

CULTURE & ENTERTAINMENT

K-ARTIST / DESIGN / REPORT / PREVIEW



영광은 진행 중, 송혜교

Ongoing Glory, Song Hye-kyo

등장과 동시에 전 세계를 강타한 고밀도 복수극 <더 글로리>와 함께 배우 송혜교는 눈부신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다.

Actress Song Hye-kyo is enjoying a glorious moment with the dramatic vengeance series *The Glory*, a drama that has taken the world by storm upon its release.

written by » JANIS S. HONG (FILM COLUMNIST)

송혜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 넘게 연기를 했지만 정점이 언제인지 쉽게 말하기 힘든 배우다. 2000년, 원빈과 송승헌이라는 당대 최고 청춘스타와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 <가을동화>는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로 퍼져나가는 '한류'의 출발점이었다. 2003년, 카지노 배경의 액션 드라마 <올인>은 부잣집 예쁜 딸과 가련한 소녀를 오가던 그가 배우로 한층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2005년, 영화 데뷔작 <파랑주의보>에서 송혜교는 사려 깊은 고등학교 생 수은 역에 자신의 밝고 명량한 면을 녹여 넣었고, 그의 명성에 힘입어 완성 전부터 기대 이상의 해외 판매 성과를 거뒀다. 2007년, 두 번째 영화 <황진이>는 그의 첫 역사극 도전으로 주목받았다. 외모와 재주를 겸비한 명기 황진이는 이 작품에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로 새롭게 조명됐고, 모던한 한복을 입은 송혜교는 극을 이끌며 기품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한국 배우로 정상에 오르고 한류스타로서의 명성도 높아지는 시기에 송혜교는 세간의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2008년 현빈과 함께 출연한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노희경 작가와 만난 그는 동시대 여성의 커리어와 연애 고민을 가감 없이 표현하는 TV 드라마 감독을 연기했다. 2011년, 이정향 감독은 영화 <오늘>

Song Hye-kyo has been acting for more than 20 years, but it's difficult to define the peak of her career.

In 2000, Song appeared alongside popular teen heartthrobs Won Bin and Song Seung-heon in the drama *Autumn in My Heart* —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ve as local content went beyond national borders and spread to Asia. After treading the line between the pretty daughter of a rich family and a pitiable young girl, the 2003 casino action drama *All In* offered Song the chance to progress as an actress. Her success continued with the 2004 hit *Full House*, costarring global K-pop icon Rain. Song made her film debut in *My Girl and I* (2005), infusing the film with her bright and cheery personality in the role of Su-eun, a thoughtful high school student who strives to maintain a warm smile, even in the face of death. Buoyed by the name value Song provided, *My Girl and I* exceeded initial expectations for overseas ticket sales. Meanwhile, *Hwang Jin Yi* (2007), her first period drama, attracted attention. Taking on the title role of a *gisaeng* (female entertainer) renowned for her good looks and talent, Song received renewed praise for her portrayal of the complex artist from a low-class background. Wearing a *hanbok* (traditional Korean dress), Song carried the series and displayed a charisma that differed from her previous work.

At a time when she was reaching new heights and was gaining fame as a Hallyu star, Song made a unique choice. After playing beauty queen characters adored by men, she teamed up with screenwriter Noh Hee-kyung in the 2008 drama *Worlds Within* to take on the role of a TV drama producer, portraying the career and





© Netflix

에서 사고로 약혼자를 죽게 만든 10대 소년을 용서해야 하는, 복잡한 내면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역할에 송혜교를 캐스팅했다. 2010년에는 미국 저예산 영화 <페티쉬>로 호러 스릴러 장르에 출연하고 2013년에는 업무의 생애를 다룬 왕가위 감독 영화 <일대종사>에서 업무의 아내를 연기하는 등 국제적인 도전도 이어갔다. 2014년, 이재용 감독의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은 송혜교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조로증에 걸린 아들을 키우면서 곳곳하게 가족을 돌보는 어린 엄마 역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낼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그리고 2016년, <태양의 후예> 시대가 시작됐다. 이 드라마로 그는 글로벌 시청자가 K-콘텐츠를 감상하는 스트리밍 시대에 안착했다. 2022년과 2023년, 스릴러 장르와 더 심도 깊은 캐릭터에 대한 열망은 <더 글로리>에서 실현됐다. 송혜교의 외모보다 그가 쌓아가는 캐릭터에 더 집중이 되는 이 드라마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K-콘텐츠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학교폭력으로 시작돼 십수 년에 걸쳐 설계한 치밀한 복수가 막을 내리기까지, 송혜교는 표독한 말을 내뱉으며 몸을 던져 카타르시스를 빚어낸 '문동은'으로 자신의 영광된 순간을 한 번 더 경신했다. 이제 그는 중년에 이른 배우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로 진입한다. 영광은 계속 진행 중이다.

(왼쪽) 영화 <황진이>와 <페티쉬>, (오른쪽) 드라마 <더 글로리> 속 송혜교.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배우다.
Song Hye-kyo in the films *Hwang Jin Yi* and *Fetish* (opposite page), and the drama *The Glory* (top and right)

love troubles of contemporary women. In *A Reason to Live* (2011), directed by Lee Jeong-hyang, Song was cast as a documentary producer plagued by complex feelings of having to forgive a teenager who killed her fiancé in an accident. And, after numerous attempts, screenwriter Noh Hee-kyung persuaded her to play a blind woman in *That Winter, the Wind Blows* (2013).

Song also made international appearances, starring in the low-budget American horror thriller *Fetish* (2008) and playing Ip Man's wife in *The Grandmaster* (2013), a Wong Kar-wai film about the martial arts master.

In *My Brilliant Life* (2014) directed by E J-yong, Song showed another side. Playing an unyielding young mother taking care of her family while raising a son with progeria, Song proved she was developing into an actress who could embody the ups and downs of real life.

Then came *Descendants of the Sun* (2016), an action romance drama partly shot on location overseas. Song played surgeon Mo-yeon and showcased flawless chemistry with the special forces soldier played by Song Joong-ki. The drama ushered in a new era of streaming in which K-content could easily reach global audiences.

Song's desire to act in new genres such as thrillers and play more complex characters was realized in *The Glory* (2022). As Moon Dong-eun, Song speeds full steam ahead right until the end of this elaborate revenge story that unfolds over several decades. Moon's sword dance is now over, but Song has reached a new milestone as an actor. Her glory days look set to continue.



© Netflix

끝없는 청춘, 안도 다다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자신이 세운 건축물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연다. 인생의 7할을 산 거장이 전시의 제목으로 붙인 주제는 다름 아닌 '청춘'이다.

World-famous architect Tadao Ando is holding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Museum SAN, which he designed himself. The 81-year-old chose "youth" as the theme of his exhibition.

written by > PARK UI-RYUNG

Tadao Ando: Endless Youth

문필가나 화가에게 청춘은 결코 닳지 않는 소재다. 건축에서 청춘은 무엇일까? 호기심은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말끔하게 풀렸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건축을 시작한 사람, 한때 권투선수였던 독특한 이력, 암으로 담관, 담낭, 십이지장, 췌장을 절제하고도 현역에서 일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남자. 건축가로서의 명성 외에도 따라붙는 인간 승리의 궤적은 그를 더 입지전적인 인물로 만든다. 올해로 81세를 맞이한 노장은 넘치는 활력으로 서울과 원주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오사카 사람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청춘' 그 자체였다.

“사실 저는 계속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장기를 절제해도, 학력이 짧아도 청춘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은 모두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에 대한 끝없는 도전, “매일 더 나은 설계를 한다”는 스스로의 신념이자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청춘으로 귀결된다. 그의 세계를 관통하는 이 단어는 이번 전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의 흰 벽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인생이 파노라마로 펼쳐진 캔버스. 그가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모은 아카이브는 본태박물관, 유민미술관 등 우리나라에 설계한 대표적인 건축물은 물론 1969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전반기 건축 작품부터 30년에 걸쳐 완성한 나오시마 프로젝트, 1990년



church of the light photo by Nobuyoshi Araki

정교한 설계와 절제된 건축미로 유명한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 빛의 교회
Ando Tadao's signature work, Church of the Light.

For writers and painters, youth is a subject that never grows old. But what does youth mean for the architect? My curiosity on the question was satisfied during my time with the architect Tadao Ando. A native of Osaka, Japan, Ando is a self-taught architect

and a former boxer, an indomitable figure who remains active even after his bile ducts, gallbladder, duodenum and pancreas were removed because of cancer. For an 81-year-old, Ando is brimming over with energy, delivering lectures in Seoul and Wonju and presiding over a press conference and exhibition opening. He keeps up the good humor characteristic of Osakans throughout a grueling schedule that runs from morning to evening, proving himself the very image of youth.

“I wanted to show I've preserved my youth despite my lack of education and the removal of my organs. I think that youth spans not just your teens and twenties, but your whole life.”

Ando's attitude toward life — as well as his commitment to always trying something new and improving his designs every day — ultimately functions as a personal fountain of youth. The white walls of Museum SAN, in Wonju, Gangwon-do Province, are the canvas displaying the panorama of Ando's career as an architect. The archive he has collected under the title *Youth* includes not only some of his best-known buildings in Korea — including the Bonte Museum, Yumin Art Nouveau Collection, and LG Arts Center — but also works of architecture from the first half of his career (running from 1969 to the mid-1990s); his Naoshima projects, which he worked on over three decades; other buildings he has designed in public spaces around the world since the mid-1990s; and his renovation of



Row House, Sumpiyoshi - Azuma House, 1976. ©Tadao Ando Architect & Associates

오사카의 아즈마 주택. 콘크리트를 주 건축재로 쓰는 안도 다다오 세계의 출발점이 된 작품이다.
Located in Osaka, Azuma House is one of the earliest works by Tadao Ando.

대 중반 이후 세계 공공장소에서의 건축 작품들과 2020년 준공한 부르스 드 코메르스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망라한다.

여기에 더해 거대한 ‘푸른 사과’가 청춘을 찾아 나선 이들을 맞는다. 이 조형물에 작가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불었다. 사과 앞에 선 그는 “사과를 만지면 수명이 1년 늘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술관에 사람을 더 많이 오게 만들려면 작전을 짜야 한다는 건축가의 전략은 확실하게 통한다. 농담인 걸 알면서도 사과 표면을 웃으며 쓰다듬는 인파가 공간을 완전하게 채운다.

“건축은 처음 지었을 때가 최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며 계속 변화하니까요. 설계를 의뢰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좋은 방향을 찾게 됩니다. 건축이란 마치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뮤지엄 산은 개관 후 5년마다 성장하듯 새로운 건축물을 늘려왔다. 올해 5월 즈음에는 그의 전매특허인 빛이 통과하는 십자가를 볼 수 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빛을 십자가가 받드는 형태의 파빌리온 <빛의 공간>은 그가 이야기하는 ‘성장하는 건축’의 증거다.

Bourse de Commerce, completed in 2020.

Then there’s the massive green apple that greets visitors who come by in search of youth. The apple, which share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signifies hope for Ando. “Touching the apple will add a year to your life,” he jokes as we stand in front of it. He tells me that a strategy is needed to draw more people to a museum. Seeing the area full of smiling visitors rubbing the apple, I realize his strategy is working.

“A work of architecture doesn’t reach its ideal form when first built. It keeps changing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three years, 10 years, 20 years. It’s nudged in the right direction by those who commissioned it, those who maintain it and those who visit it. A work of architecture is like a growing child. Given Korea’s culture of cherishing objects, sheltering children and respecting the elderly, I believe Koreans can help works of architecture grow up in the right direction,” Ando says.

It would be wrong to assume that his career in architecture has been a story of uninterrupted growth. Even a world-renowned winner of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Carlsberg Architectural Prize and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old Medal has had his fair share of hard times. Facades made of cheap and easily sourced concrete did not go over well, and a project was scrapped over his bold refusal to place glass in openings designed to let in natural light. In the end, Ando’s ex-

나오시마섬의 지추미술관. 섬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미술관을 땅에 묻힌 것처럼 설계했다.
The Chichu Art Museum, a landmark of the Naoshima Island project, was built mostly underground to preserve the island’s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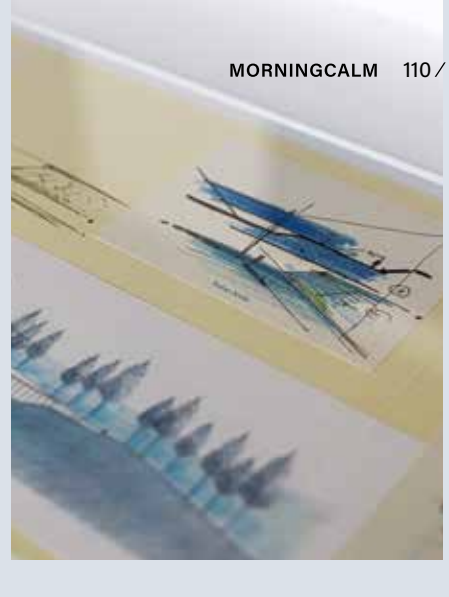


Bourse de Commerce, 2021, photo by Yuji ONO

파리의 옛 상공회의소를 미술관으로 개조한 부르스 드 코메르스. 콘크리트로 빛은 원형 홀을 대담하게 설치해 독특한 공간미를 완성했다. Bourse de Commerce is an art museum in Paris. The concrete wall within the historic rotunda creates a sense of space and beauty.

안도 다다오는 성장 가도만 달려왔을까? 프리츠커건축상, 칼스버그건축상, 미국건축가협회 대상 등 각종 건축상을 휩쓴 세계적인 거장에게도 어려운 순간은 있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콘크리트를 건축 전면에 내세워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틈을 낸 곳에 유리조차 끼우지 않겠다는 과감한 발상으로 설왕설래를 겪고,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좌절도 경험했다. 결국 노출콘크리트 기법은 그들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중 한 명으로만 들어주었다. “재미있는 것일수록 초반에는 거절당하기 마련입니다.” 유쾌하지만 반생을 넘은 경험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묵직하다.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 그에게도 아직 100세까지의 계획이 남아 있다. 건축가의 삶이 시작된 오사카로 회귀해 사람 사는 공간을 더 짓는 것, 오사카에 뿌리를 둔 문화와 인물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건축을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희망적이며 마음을 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서울에서 만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안도 다다오는 육신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청춘의 에너지를 뽐어내고 있었다.



© Museum SAN

뮤지엄 산에선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 250점을 비롯해 설계도, 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At Museum SAN, you can see around 250 representative pieces by Tadao Ando.

posed concrete technique made him one of the most important architects of his era, and the scrapped project wound up getting rebooted to great success 20 years later. “The most interesting ideas are the ones most likely to be rejected at the outset,” he says. This offhand remark has unexpected weight, deriving as it does from a lifetime of experience.

After two bouts with cancer, Ando has cut his workload in half, but he remains in good shape. By eating slowly, taking walks, and getting exercise, he has brought balance to his life so that he can carry on with his work. As a result, he has more time to read now. The reason he got into architecture in the first place was because of a collection of the works of Le Corbusier that he stumbled upon in a used bookstore. He also mentioned a book he wanted to recommend to today's generation.

“I really enjoyed reading the biography of the Indian poet Rabindranath Tagore,” says Ando. “He was the first Asi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is life was one of great hardship which made him the man we know today as Tagore.” After everything he has achieved, Ando still has plans that should keep him busy through his 100th birthday. He intends to return to his roots in Osaka and keep making structures that are rooted in the city's culture and spaces that are hopeful and emotionally evocative. As Ando spoke of his dreams in his interview in Seoul, he emanated a youthful energy that transcended his physical appearance.

Revival of 20th Century Musicians



GUNS N' ROSES



20세기 뮤지션이 돌아왔다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옛 가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형 축제의 뉴 레거시가 된 20세기 뮤지션들의 활약을 짚었다.

Legendary artists from the past are headlining festivals around the world this year.

Yuni Lim takes a look at this phenomenon.

written by » YUNI LIM (MUSIC COLUMNIST)
illustration by » JOE SUNG-HEUM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in the jungle, baby!” 이 단순한 문장을 듣거나 보자마자 하나의 밴드를 떠올렸다면 당신은 뜨거웠던 ‘20세기 소년 소녀’일 가능성이 높다. 1980~90년대를 풍미한 미국 록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대표곡 ‘Welcome to the Jungle’(1987년). 보컬 액슬 로즈가 새된 소리로 포효하던 그 가사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2016년 4월 23일 밤, 정글은 사막으로 바뀌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북미 최대 야외 대중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의 메인 스테이지. 액슬 로즈가 외친 다음과 같은 변형 가사에 나는 심박이 멎을 뻔했다.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in COACHELLA,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in the jungle, baby!”

If a certain band comes to mind when you read or hear this simple sentence, it’s likely you’re one of the boys or girls of the 20th century who burned with fiery passion. These are the lyrics belted out in a shrill voice by Axl Rose, lead vocalist of the iconic American rock band Guns N’ Roses, in one of their greatest hits *Welcome to the Jungle* (1987).

However, the jungle turned into a desert on April 23, 2016. I was in front of the main stage at the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held in Indio, California, and my heart almost stopped when Axl shouted out a different take on the lyrics.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in COACHELLA, baby!” After withstanding daytime desert temperatures of up to 40 degrees Celsius, with this single line the Coachella audience was immediately sucked in.

I bring this story up in order to explain why I want to visit a certain field in Britain this coming June — there is a



baby!" 40°C에 달하는 사막기후의 낮을 견딘 코첼라 관객들은 로즈의 한마디에 일순간 장미 덩굴이 흐드러진 울창한 정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오는 6월, 영국의 어떤 들판에 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대서양 건너 서머셋 들판에서 저 외침이 또 다음과 같이 변할지 모르니까.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in GLASTO, baby!" 1970년 영국 서머셋에서 시작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허허벌판으로 매년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을 불러 모으는 세계 최대의 야외 대중 음악 축제다. 80여 개의 무대 가운데 가장 큰 '피라미드 스테이지'는 이집트 기차 지역의 피라미드를 본뜬 웅장한 외양처럼 세계 라이브음악의 상징적 거석이라 할 수 있다. 비틀스와 핑크 플로이드를 낳은 영국인들이 그 피라미드처럼 오목한 음악적 컷대를 미국 장미에 선선히 헌납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다른 날 밤 헤드라이너로 '영국 장미'를 맞세웠다. 엘튼 존의 "Goodbye England's rose...(안녕히, 잉글랜드의 장미...)"는 그가 1997년 9월 6일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의 장례식에서 부른 'Candle In The Wind 1997'의 첫 소절이다. 6월, 건즈 앤 로지스와 엘튼 존은 서

chance that the shrieking voice might scream the following in a field in Somerset all the way across the Atlantic Ocean. "You know where you are? You're in GLASTO, baby!" Glasto is an abbreviation for the Glastonbury Festival. This will be the first time that Guns N' Roses have traveled to the U.K. to headline the historic festival. Glastonbury began in Somerset in 1970, and its fields are now home to one of the world's largest outdoor music festivals, which drew more than 200,000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last year. The Pyramid Stage is the largest of the festival's multiple venues and could even be called a symbolic megalith for global live music with its majestic appearance modeled after the Great Pyramid of Giza in Egypt. Having produced the likes of the Beatles and Pink Floyd, it's possible the British may turn up their musical noses at the American band. That's why the headliner for the following evening is British artist Elton John.

This June, the iconic sights and sounds of 20th century rock music of the English-speaking world will unfold like a kaleidoscope in the fields of Somerset thanks to Guns N' Roses and Elton John.



머시의 너른 들판에 이른바 영미권 20세기 대중문화의 시청각적 명장면들을 주마등처럼 펼쳐놓을 것이다. 'Sweet Child O' Mine', 'Paradise City', 'November Rain', 'Don't Cry' 'Patience'... 먼저 미국 장미, 건즈 앤 로지스의 명곡 메들리엔 다음과 같이 세기말 대중 영화들의 잔상도 잔뜩 묻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영화 <터미네이터 2>를 뮤직비디오에 활용한 'You Could Be Mine', <탑건> 이후 4년 만에 토니 스콧 감독과 톰 크루즈가 합작한 2001년 영화 <분노의 질주>에 실린 'Knockin' on Heaven's Door'(원곡 밥 딜런), 세기말 흡혈귀물의 대명사가 돼버린 1994년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의 엔딩 크레디트를 강타한 'Sympathy for the Devil'(원곡 롤링 스톤스)... 엘튼 존의 '세트 리스트'는 또 어떨까. 'Your Song', 'Crocodile Rock', 'Goodbye Yellow Brick Road', 'Bennie and the Jets'... 20세기 팝 금강석의 진열장에도 다음과 같은 명장면이 소환될 것이다. 1996년 영화 <더 록>의 대사에 등장한 그 유명한 'Rocket Man', 1994년 영화 <라이언 킹>에 실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와 'Circle of Life'. 그리고 캐머런 크로의 2000년 명작 <올모스트 페이머스>의 투어 버스 신을 수놓은 'Tiny Dancer'까지.

Sweet Child O' Mine, Paradise City, November Rain, Don't Cry and Patience all conjure images from popular films of the late 20th century. *You Could be Mine* was used in the 1991 film *Terminator 2*, while *Knockin' on Heaven's Door* was featured in the 1990 hit *Days of Thunder*, a collaboration between director Tony Scott and Tom Cruise that came four years after *Top Gun* (1986). There was also *Sympathy for the Devil*, a song that played through the ending credits of the 1994 film *Interview with the Vampire*, which became synonymous with vampire stories from the end of the century.

And what about the set list of the much-respected Elton John? *Your Song, Crocodile Rock, Goodbye Yellow Brick Road, and Bennie and the Jets*. These hits from the pop music icon also conjure up famous movie scenes. Lyrics from *Rocket Man* appeared in the dialogue of the 1996 film *The Rock*, while *The Lion King* (1994) feature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and *Circle of Life*. And then there was *Tiny Dancer*, which played in the iconic tour bus scene in the 2000 film *Almost Famous*.

We're living in a period in which many are trying to recapture the glorious days of the 20th century. The interest in



어쩌다 보니 우리는 지나온 지 23년 만에 20세기를 가장 그리워하고 다시 찾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20세기 가수들이 대형 축제의 '뉴 레거시'로 사랑받는 건 별난 일이 아니다. 너바나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밴드 푸 파이터스는 5, 6, 9월 미국 대형 페스티벌인 보스턴 콜링 뮤직, 보나루 뮤직 앤드 아트, 라우더 댄 라이프를 잇따라 강타한다. 그루브 메탈의 선구자 판테라도 올해 각종 록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 자리를 휘저으며 부활의 서막을 알린다. 20세기 펑크록의 기린아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6월 벨기에의 메가톤급 페스티벌인 록 베르히터, 8월 미국 롤라팔루자를 비롯한 대형 축제의 간판에 선다. 1995년 앨범 <Jagged Little Pill>로 얼터너티브록 시대에 걸 크러시의 맹위를 떨쳤던 앨라니스 모리셋 역시 5월 보스턴 콜링 뮤직을 비롯한 여러 페스티벌의 선두로 나선다.

올여름, 푸른 하늘을 날아 떠난다. 한때 머물렀던 그 세기에 관한 생생한 추억과 빛바랜 판타지의 끝없는 컨페티(색종이 조각)야말로 우리가 축제장에서 목도하고 끝내 흠뻑 세례받을 것들이다. 그래서 2023년 여름, 당신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모두 살아본, 두 세기의 주인공으로서.

LP records, cassette tapes and cargo pants shows that the cultural revival of Generation X has even captivated Gen Z and Generation Alpha. In the midst of this cultural atmosphere, it's hardly surprising that 20th century artists are being welcomed at large music festivals.

The Foo Fighters, a band born out of the ashes of Nirvana, will play a series of American festivals in 2023 including Boston Calling, Bonnaroo, and Louder Than Life in May, June and September, respectively. Pantera have captured the headlining spot at a number of rock festivals this year, signaling the beginning of the band's revival. Alanis Morissette, a powerful force in the girl crush fever of the alternative rock era with her 1995 album *Jagged Little Pill* will, after many years, spearhead several festivals this year including Boston Calling in May.

My heart is fluttering because this summer I want to go and see musicians who transcend time. The festivals will revive vivid memories and endless confetti of faded fantasies connected to a century we spent such a long time living in. That is why the summer of 2023 will be an unforgettable time for those who have straddled life in the 20th and 21st centuries.

PREVIEW

MOVIE



파벨만스

어떤 이의 인생은 그 자체로 영화다. 삶이 곧 '할리우드의 역사인 스티븐 스피버그의 인생이 그렇다. 그가 2005년, 영화 <원헌>을 함께 쓴 토니 쿠슈너와 자신의 서사를 공유하면서 <파벨만스>의 싹이 텄다.

이야기는 새미(마테오 조리안/가브리엘 라벨)가 난생처음 극장에서 스크린을 마주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세실 B. 드밀의 <지상 최대의 쇼>에서 기차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사로잡힌 새미는 아빠 버트(폴 다노)의 8mm 카메라를 들고 '진짜'처럼 보이는 이미지 안에 흥분, 즐거움, 공포, 슬픔과 같은 감정을 담은 일에 매료된다. 엄마 미치(미셸 윌리엄스)의 전폭적인 응원 아래 동생,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 베니(세스 로건)가 합류한 가족 여행을 찍는다. 집으로 돌아와서 촬영본을 편집하던 그의 눈에 엄마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평온했던 삶에 위기가 닥친다.

11년 만에 각본 작업에 참여한 스피버그는 그 시절을 현재의 시선으로 반추하며 상처로 방향한 젊은 날의 자신을 부드럽게 끌어안는다. 감독이 스스로 "400만 달러 짜리 심리치료"라고 평한 <파벨만스>는 거장의 일대기를 넘어 관객에게 예술과 삶, 영화와 진실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존재감에 대해 곱씹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THE FABELMANS

Some people have lives full of experiences worthy of the silver screen. Steven Spielberg, who has played an integral part in the history of Hollywood, is one such person. Through the narrative of this semi-autobiographical story, viewers can retrace the steps of the acclaimed director and see how he began his journey toward becoming a master storyteller.

The story begins the moment Spielberg's alter ego Sammy (Mateo Zoryan) encounters a movie theater screen for the first time. Entranced by the scene of a train crash in Cecil B. DeMille's *The Greatest Show on Earth* (1952), Sammy takes his dad Burt's (Paul Dano) 8mm camera and recreates the images that dazzled him. Fascinated by the job of imbuing images with emotions such as excitement, joy, fear and sadness in a way that looks real, teenage Sammy (Gabrielle LaBelle) continues his "hobby" with the wholehearted support of his mother Mitzi (Michelle Williams). Accustomed to recording every moment of his daily life, he films a trip with his family and his father's friend Bennie (Seth Rogen). While editing the film, he discovers his mother's secret affair with Bennie and Sammy's formerly calm life is thrown into crisis. Spielberg ruminates on that time through the lens of today and gently embraces his younger self, who found himself adrift in a sea of hurt. *The Fabelmans* (2022), jokingly described by the director as "40 million dollars of therapy," goes beyond the life story of the maestro and allows audiences to po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life, film and reality and the meaning of family.



오토라는 남자 A MAN CALLED OTTO

프레드릭 배크만의 소설 <오베라는 남자>와 동명의 스웨덴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다. ‘오베’는 스웨덴에 살지만 ‘오토’는 미국에 산다는 점이 원작과의 차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질색하는 노인 오토는 사별한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 자살을 결심한다. 번번이 나타나 그의 죽음을 방해하는 멕시코 출신의 이웃 마리솔 가족이 그의 인생에 스며들면서 오토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톰 행크스가 오토로 분해 원작 속 오베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했다.

Fredrik Backman's novel *A Man Called Ove* and the Swedish movie of the same name now have a Hollywood adaptation. Otto (Tom Hanks), a character who loathes people compromising their principles, decides to take his own life following the death of his wife. However, his life takes an unexpected turn when his neighbor Marisol (Mariana Treviño) and her family enter it, constantly interfering with his plans. As Otto, Tom Hanks adds a three-dimensional feel to the original "Ove" character.



자백 CONFESSION

성공한 사업가 유민호(소지섭)가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내연녀 김세희(나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다. 완벽한 밀실 살인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그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승률 100%를 자랑하는 변호사 양신애(김윤진)를 찾아가는다. 진실을 전부 알아야 하는 변호사와 무언가를 숨겨야만 하는 의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팽팽한 갈등이 영화 후반부까지 이어지며 관객에게 긴장감을 준다. 반전을 거듭하는, 제대로 된 추리소설 한 편 같은 영화.

One day, successful businessman Yoo Min-ho (So Ji-sub) becomes embroiled in a conspiracy with an unknown individual, as he's named a suspect in the murder of his mistress Kim Se-hee (Nana). Struggling to explain how the murder occurred in a locked room, he seeks out successful lawyer Yang Shin-ae (Kim Yunjin) to prove his innocence. The strained conflict between a lawyer who must know the whole truth and a client who has something to hide brings real tension to the movie.



타르 TAR

베를린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 리디아 타르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일가를 이룬 거장의 전기영화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공담'의 수순을 뒤엎는, 독창적인 서사를 보여준다. 영화는 경력의 정점에 선 타르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줄리어드 음대 강단과 오케스트라 지휘 무대를 오가며 활약하던 마에스트로가 자신의 욕망을 다루지 못해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그렸다. 제80회 골든글로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케이트 블란쳇의 밀도 높은 감정 연기가 압권이다.

Lydia Tár is the first female conductor of the Berlin Philharmonic, a virtuoso who has found her own way. But as her life progresses, an inventive narrative completely upends the typical success story. The film begins with Tár standing at the peak of her career and follows her as she starts to bend under the pressure. The highlight is Cate Blanchett's heavy emotional performance, which earned her Best Actress in a Drama Motion Picture at the 80th Golden Globe Awards.



틸 TILL

1955년, 흑인 소년 에밋 톨은 미시시피주에 사촌을 만나러 갔다가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납치, 살해됐다. <틸>은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논할 때 회자되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엄마 메이미(대니엘 데드와일러)가 비극에 침잠하지 않고 미국 사회에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끄는 스토리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22년 최고의 영화 열 편 중 한 편으로 꼽은 수작.

In 1955, Emmett Till, a young black boy, was kidnapped and murdered by white supremacists while visiting his cousins in Mississippi. *Till* (2022) is a film based on this true story. As she resolves to tell the world of her son's tragic murder, the story of his mother Mamie (Danielle Deadwyler) seeking change by raising a brave voice against American society evokes empathy and emotion.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ranked the film as one of the top 10 masterpieces of 2022.





PREVIEW TV

GAUS ELECTRONICS

Gaus Electronics is an office comedy set in Marketing Department 3 of the multinational company of the same name. A cast of eccentric characters, including the tactless Lee Sang-sik (Kwak Dong-yeon), fiery Cha Na-rae (Ko Sung-hee), and inexperienced but privileged Baek Ma-tan (Bae Hyun-sung) come together to have a variety of misadventures. The show is based on Kwak Baek-soo's webtoon *Gaus Electronics*, which was serialized in 2011 and racked up 2.6 billion views by 2019.

In general, dramas adapted from other works can be divisive, with fans of the original complaining about the failure of the show to adhere to the original story, but this drama won the hearts of webtoon and drama fans alike thanks to the exceptional chemistry of young actors Kwak, Ko, Bae and Kang Min-ah. The show was produced by Seo Soo-min and Park Joon-soo. Previously, Seo directed *The Producers* (2015) and produced *The Sound of Your Heart* (2016). Park directed both *The God of Music* (2012) and *UV Syndrome* (2010). *Gaus Electronics* incorporates multiple elements that office workers can sympathize with, such as work relationships, hierarchy issu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but in a more lighthearted manner. At the same time, the stories leave an unforgettable impression.

가우스전자

다국적기업 가우스전자 내 '마케팅3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피스 코미디다. 눈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원 이상식(곽동연)과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수 차나래(고성희), 금수저 신입 백마탄(배현성) 등 조금 별난 사람들이 동료라는 관계로 만나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냈다. 2011년에 연재를 시작해 누적 조회수 26억 뷰를 달성한 광백수 작가의 웹툰 <가우스전자>가 원작이다.

일반적으로 원작이 있는 드라마는 너무 다른 전개 혹은 원작에 충실하지 못해 호불호가 갈리곤 하는데, 이 드라마는 배우 곽동연, 고성희, 배현성, 강민아 등 젊은 배우들을 주축으로 한 엄청난 케미가 웹툰 팬과 드라마 시청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입사 때부터 앙숙이던 이상식과 차나래가 바로 옆집에 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증오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관계 변화가 관전 포인트다. <개그콘서트>, <프로듀사>, <마음의 소리> 등을 연출한 서수민 크리에이터와 <음악의 신>, <UV 신드롬> 등을 연출한 박준수 감독이 제작해 주목을 받았다. 사내 연애, 선배와 후배, 조직문화 등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요소를 드라마에 잘 녹여냈으며, 심각한 스토리를 다루진 않지만 보고 나면 깊은 여운이 남는 스토리텔링 능력도 갖췄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밝고 유쾌한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선택할 것.



베니티 페어 VANITY FAIR ON YOUTUBE

미국 유명 연예 매거진 <베니티 페어>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다. BTS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오징어 게임>의 명장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영화 <기생충>의 오프닝 신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30년 전 제작된 <쥬라기 공원>과 관련한 숨겨진 이야기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유튜브에 맞춰 제작된 콘텐츠답게 짧은 호흡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This YouTube channel produced by famous U.S. magazine Vanity Fair screens short videos covering all sorts of entertainment news. The BTS episode includes interesting topics such as how well the members know each other. Other videos include how the nursery rhyme *Red Light, Green Light* came to be in the famous giant doll scene from *Squid Game* (2021) and the story behind the original *Jurassic Park* (1993) movie, which was released 30 years ago.



© TSI

영 피카소 YOUNG PICASSO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 그가 어떻게 거장의 반열에 올랐는지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다. 25세였던 젊은 시절 피카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가 활동했던 스페인의 말라가와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에 남은 그의 궤적을 좇으며 스토리를 만들었다. 미술 전문가, 전기 작가, 피카소의 손자인 올리비에 위드마이어 피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예술 작품과 삶에 주목한다.

The documentary *Young Picasso* (2019) follows the life of the master of modern art to explain the origins of his talent. The show explores the cities of Málaga and Barcelona, Spain, as well as Paris, France, to tell his story. Focusing on Picasso's life as a young man and interviews with historians, curators and one of his grandchildren, this film documents not only the painter's works of art but also his life story.



© Succession Picasso / DACS, London 2018

2022 멜버른 컵 MELBOURNE CUP 2022

경마는 호주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빅토리아주는 멜버른 컵이 열리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을 아예 공식 휴일로 지정했을 정도다. 3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펼쳐지는 승부를 보기 위해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멜버른 경마 대회 실황중계가 펼쳐지는 TV 앞으로 모인다. 2022년 열린 멜버른 컵 경기 실황을 통해 경마라는 스포츠가 선사하는 짜릿함을 느껴보자.

Horse racing is very important in Australia, and the state of Victoria has designated the first Tuesday of November as an official holiday because that's when the Melbourne Cup is run. As the event's popularity extends beyond Australia, eager viewers from around the world tune in to watch the live broadcast of the horse racing competition every year. This replay video contains live footage of the Melbourne Cup race held in 2022.



© LCTV

고스트 시즌 2 GHOSTS SEASON 2

2019년 영국에서 방영된 시트콤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큰 저택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기자 사만다(로즈 맥아이버)가 남편 제이(우카쉬 엠브드카)와 함께 저택을 호텔로 꾸미려다 머리를 다치면서 유령을 볼 수 있게 되고, 저택에 머물고 있는 유령들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유쾌하고 오싹한 좌충우돌 코미디로, 각 화당 20분으로 짧은 러닝타임을 지녀 보기에 부담이 없다.

Ghosts is a 2021 American remake of a sitcom that aired in the U.K. in 2019. The show features Samantha, who inherits a large mansion and, along with her husband, tries to turn it into a bed-and-breakfast. But Samantha has the power to see ghosts following a near-death experience, and she becomes involved with the spirits who haunt the mansion. Each episode has a running time of around 20 minutes, so it's perfect for those looking for something short and easy to watch.



© CBS



PREVIEW

MUSIC

시저

SZA의 두 번째 정규앨범 <SOS>는 그가 왜 ‘보편성과 변칙을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지 이해하게 만든다. 발매 직후부터 폭발적인 스트리밍을 이어나간 <SOS>는 결국 7주간 1위 자리를 단단히 지켰다. 여성 아티스트의 R&B 앨범이 7주간 1위를 차지한 기록은 1987년 휘트니 휴스턴의 <Whitney> 이후 두 번째다. SZA를 파헤치려면 먼저 독특한 활동명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물음표를 던진 SZA의 정확한 발음은 ‘SIZ-uh’이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스자, 시자, 시저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시저’로 발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SZA의 S는 군주나 주권자를 뜻하는 Sovereign, Z는 지그재그(Zigzag), A는 알라(Allah)에서 따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강한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다. 기독교인 어머니와 무슬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SZA는 9·11테러 이후 종교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종교는 그의 음악을 지탱하는 힘이였다. <SOS>는 <Ctrl>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그의 앨범. 팝, R&B, 힙합 등의 장르가 혼합된 이번 앨범 역시 SZA만의 독특한 전자음과 풍부한 솔이 가득 담겨 있다. 그동안 도자 캣, DJ 칼리드,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의 아티스트들과 활발한 피쳐링을 이어온 만큼, 이번 앨범에는 피비 브리저스, 트레이비스 스콧, 올 더티 바스타드 등이 참여해 SZA와 호흡을 맞췄다.



SZA

SZA's second full-length album *SOS* (2022) showed the world once again her versatility as an artist. After its release, *SOS* climbed to the top, holding the No. 1 spot on the Billboard 200 for its first seven weeks. This is the first time a female-recorded R&B/hip-hop album held the top spot for so long since Whitney Houston's *Whitney* topped the chart for 11 weeks in 1987.

To get a better grasp of who SZA is, it's important to delve into her stage name and where it came from. Pronounced "SIZ-uh," SZA stands for sovereign, zigzag and Allah. As the name suggests, she is a tenacious artist with strong religious beliefs. Born to a Christian mother and a Muslim father, SZA wore a hijab until 9/11. Faith still forms a strong foundation that sustains her and her music.

After releasing two extended plays on her own in her early 20s, SZA became the first female artist to be signed by Top Dawg Entertainment, the label that represents artists such as Jay Rock. *Ctrl* (2017) was the first studio album she released with the new label, which makes *SOS* her second full-length album in five years.

This latest album features 23 tracks in a mix of pop, hip-hop and R&B with elements of SZA's signature electronic and soul sounds. Collaborating artists include Phoebe Bridgers, Travis Scott and the late Ol' Dirty Bastard.



크러쉬 CRUSH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댄스 챌린지가 그 이유다. 군 공백기 이후 화려하게 복귀한 크러쉬는 한동안 SNS와 숏폼을 '#러쉬아워챌린지'로 채운 주인공이다. 싸이, 세븐틴, 이영지 등이 참여한 러쉬 아워 챌린지는 한 조사에서 2022년 최고의 챌린지 송 1위에 기록되기도. 핑크 장르의 'Rush Hour'는 컴백 싱글앨범 <Rush Hour>의 수록곡으로 BTS 제이홉과 호흡을 맞췄다.

Music is no longer just for listening now that dance challenges sweep social media on a daily basis. Crush's #RushHourChallenge has taken the Internet by storm, marking his successful return. Several artists including Psy and Lee Young Ji have joined him for the challenge. According to one survey, *Rush Hour* was picked as the best challenge song of 2022. *Rush Hour*, the title track of the album, features BTS's J-Hope.



© P NATION

(여자)아이들 (G)I-DLE

메인 래퍼이자 리더 소연의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을 앞세워 데뷔와 동시에 각종 신인상을 휩쓴 (여자)아이들. 팀의 자아라 할 수 있는 일명 'I' 시리즈를 통해 거침없이 성장하는 '나'를 표현한다. <I am>을 시작으로 <I made>, <I trust>, <I burn>에 이어 최근 앨범 <I love>로 정점을 찍었다. 소연이 참여한 타이틀곡 'Nxde', 민니와 우기가 각자 작업한 'Reset', 'Change' 등 멤버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돋보인다.

Known for their main rapper and leader So-yeon's knack for songwriting and producing, (G)I-DLE swept numerous rookie awards when they debuted in 2018. The group has continued to grow and develop with their I series. The group's most recent album *I Love* had plenty of creative input from other members, particularly Minnie and Yuqi who worked on *Change*, *Reset* and *DARK (X-File)*.



© CUBE ENTERTAINMENT

크리스 브라운 CHRIS BROWN

그동안 미국에는 수많은 '차세대 마이클 잭슨'이 있었다. 2005년 16세에 데뷔한 크리스 브라운은 독보적인 춤과 음악, 작곡, 프로듀싱 능력으로 '차세대 마이클 잭슨'이란 수식어에 마침표를 찍었다. <Breezy>는 3년 이상 공들인 그의 열 번째 정규앨범. "앨범 트랙을 약 250개의 노래 중에 선별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완성도도 높다. 독보적인 패션과 무드로 한국에선 그의 스타일을 동경한 패션 브랜드까지 생겼다.

Chris Brown, who debuted at age 16 in 2005, is an artist with unrivaled dancing, singing, songwriting and producing skills. *Breezy* (2022) is his tenth full-length album and was three years in the making. Brown said he recorded some 250 songs before choosing 24 for the original version of the album. With his unique sense of style, the musician has even developed his own brand of men's clo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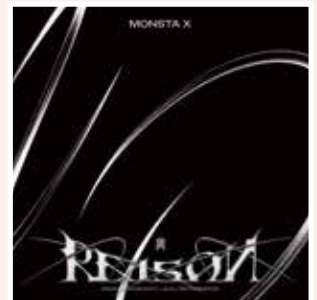


© SONY MUSIC ENTERTAINMENT KOREA INC.

몬스타엑스 MONSTA X

몬스타엑스가 발표한 열두 번째 미니앨범 <REASON>은 발매와 동시에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유리피어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국내 공인 음악 차트인 씨클차트 내 리테일 앨범 차트, 앨범 차트,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민보퍼(믿고 보는 퍼포먼스) 장인'이란 별명답게 타이틀곡 'Beautiful Liar'의 세련된 무대연출, 안정적인 라이브, 완벽한 완급 조절 퍼포먼스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With each album release, Monsta X breaks their own records on music charts. Most recently, their 12th extended play *REASON* topped the Worldwide iTunes Album Chart and the European iTunes Album Chart shortly after it was released. On lead-off track *Beautiful Liar*, Monsta X captured the hearts of fans with their live performances of the song, showcasing their stellar vocals.



© STARSHIP ENTERTAINMENT





지구의 자취를 만나는 길, 산방산 용머리해안 지질 트레일 Tracing the Volcanic Coastline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형세를 닮아 이름 붙은 '용머리'는 한라산과 용암지대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빚어진 화산체. 80만 년 지구의 시간을 품은 이 바위 앞을 지나는 '산방산 용머리해안 지질 트레일'에선 화산 쇄설물이 쌓이며 형성된 독특한 질감과 모양을 띤 암석층이 짙푸른 바다와 함께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Situated at the bottom of Sanbangsan Mountain is Yongmeori Coast, shaped like a dragon that's jumping into the ocean with its head raised. Walking along the coastal trail allows for stunning views of the layered volcanic cliff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ep blue sea.



THIS IS OUR PRIDE

Best service, absolute safety

CABIN CREW
KIM, YEONG JOO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INFORMATION

대한항공 소식 및 서비스 안내

- 126 대한항공 뉴스
KOREAN AIR NEWS
- 129 대한항공 이야기
INSIDE KOREAN AIR
- 133 스카이패스
SKYPASS
- 135 휴대품 통관 안내
CUSTOMS PROCEDURES
- 136 기내 서비스 순서
IN-FLIGHT SERVICE PLAN
- 138 기내 프로그램 사용 안내
KE ENTERTAINMENT
- 140 스카이팀
SKYTEAM
- 141 제휴 항공사
WORLDWIDE AIRLINE PARTNERS
- 142 입국 신고서 작성
HOW TO FILL OUT IMMIGRATION DOCUMENTS
- 144 검역 및 보안 안내
QUARANTINE & SECURITY INFORMATION



인천 공항에서 만나는 대한항공 x 세라젬 라운지

Korean Air X CERAGEM Lounge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대한항공 라운지에 세라젬 프리미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퍼스트, 마일러,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세라젬 제품을 설치해 대한항공 이용객들이 여행 전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라운지에 설치된 제품들은 세라젬의 주력 헬스케어 기기라 할 수 있는 척추 의료기기 세라젬 V6, 안마 의자 디코어, 안마 의자 파우제 M2, 리클라이닝 소파 파우제 S 등이다.

그중에서도 세라젬 V6는 국내 식약처와 미 FDA 등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척추 전반에 걸쳐 마사지와 최대 65도의 집중 온열을 제공하며 식약처로부터 추간판탈출증·퇴행성척추증 치료,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 등 4가지 사용 목적을 인증받았다. 대한항공은 항공 여행의 특성상 오랫동안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 같은 협력을 진행했다. 이어 추후 고객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나갈 예정이다.



Korean Air's First Class, Miller Club and Prestige Class lounges in Incheon Airport's Terminal 2 are equipped with CERAGEM's premium massage products to help travelers relax before their journeys. Items available for use in the lounges are from the company's line of products and include the therapeutic thermal massager CERAGEM V6, massage chairs D.CORE and PAUSE M2, and the CERAGEM PAUSE S recliner sofa. Among these products, CERAGEM V6 has been approved by the Ministry of Food, Drug and Safe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DA as a medical device. Based on its patented technology, the V6 model is designed to deliver intensive thermal therapy with massage rollers that heat up to 65 degrees Celsius. The comprehensive spinal care device is helpful in relieving muscle pain, improving blood circulation and treating conditions such as herniated disk and lumbar spinal stenosis. Korean Air decided to collaborate with CERAGEM to provide a relaxing experience for its customers who are flying long-distance. The airline plans to continue to upgrade such services to make the traveling experience more comfortable for its passengers.

세계 챔피언 소믈리에 선정, 새로운 기내 와인 리스트

New In-flight Wines Selected by World Champion Sommelier

대한항공은 기내 와인 리스트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민을 해왔다. 와인 서비스는 항공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데다 지난해 3월부터 선보인 제육쌈밥과 고등어조림, 불고기묵밥과 비빔국수 등 새로운 기내식 메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와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국제소믈리에협회가 주관하는 ‘월드 베스트 소믈리에 2019’ 챔피언인 마크 알머트와 함께 150종의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 새로운 와인 52종을 기내 와인으로 선정했다. 마크 알머트가 기내 서비스 와인 선정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비행기 내 환경 및 기내식과의 어울림이다. 그는 “지상에 비해 기압이 낮고 건조한 비행기 내 환경에서는 후각이 둔해지고 적은 양의 와인에도 쉽게 취할 수 있다”며 “기내에서도 와인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과실향과 아로마가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와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등석 와인 20종, 프레스티지석 와인 21종, 이코노미석 와인 11종 등 총 52종의 와인이 선정됐다. 새로운 와인은 3월 이후 기내에 차차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엄선한
프리미엄 와인과 샴페인
Korean Air passengers
have access to a selection
of premium wines and
champagnes.



Korean Air has introduced a selection of new in-flight wines after going through a careful selection process. In-flight wine programs contribute to passengers' first impressions of an airline, and the new wines needed to pair well with the meals introduced in March 2022, such as Korean spicy pork with greens, braised mackerel, acorn jelly and bulgogi rice, and spicy noodles with vegetables. To achieve this goal, Korean Air conducted a blind tasting of 150 wines and selected 52 new ones in collaboration with Marc Almert, who was named the World's Best Sommelier 2019 by the International Sommelier Association. Almert focused on the in-flight environment and how the new wines would pair with the meals. "The cabin pressure and a drier environment can distort the taste of some wines. We considered this and therefore chose fruity and aromatic wines that perfectly complement the in-flight cuisine," he explained.

Of the 52 wines selected, 20 were for First Class, 21 for Prestige Class and 11 for Economy Class. They have been served on all flights since March this year.

퇴역 항공기를 활용한 대한항공의 세 번째 업사이클링

Korean Air's Third Upcycling: ESG Projects Continue

대한항공은 4년 전부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폐기되는 항공기를 활용하여 네임택과 볼마커를 제작하고, 노후 구멍조끼를 이용해 한정판 파우치를 출시하며 자원재활용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이번에는 수많은 탑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던 HL7715(BOEING 777-200ER) 항공기로 세 번째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했다. 2020년 3월, 샌프란시스코 - 인천 구간을 마지막으로 비행을 마친 HL 7715(BOEING 777-200ER) 항공기의 동체 표면을 잘라 네임택과 볼마커로 재탄생했다.

이렇게 제작된 제품은 사용된 동체 부분에 따라 두께와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제품에는 BOEING 777-200ER 레터링과 항공기 일련번호,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다. 네임택은 다각형과 직사각형 프레임 2가지이며, 5000개 한정으로 제작되었다. 선착순 2000명 대상으로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각인할 수 있다.

볼마커는 원형과 반달형 프레임이 각각 1개씩 총 2개 1세트로 구성되며 2000세트 한정으로 제작된다. 네임택과 볼마커는 5월 3일부터 이스카이숍(e-skyshop.com)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각인 신청 또한 구매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폐기된 항공기의 자재를 업사이클링해 제작한 네임택은 각각 고유 번호를 지닌다.
Each upcycled luggage tag comes with a unique product serial number.

Korean Air started organizing upcycling projects four years ago in an attempt to add value to recycled goods for environmental purposes, such as making luggage tags out of discarded plane parts or limited edition cosmetic pouches out of life vests. The company's third project involves the scrapping of a Boeing 777-200ER that traveled the San Francisco to Incheon

route — registration number HL7715. After making its last flight in March 2020, parts of the plane's fuselage were upcycled into limited edition luggage tags and golf ball markers. What's unique about these is that their thickness and color can vary depending on which part of the plane was used. Each product will have the flight name, number and production code engraved on them. Only 5,000 luggage tags will be produced with two options for shape — a rectangle or a rhombus. If you're one of the first 2,000 people to pre-order, you can have your name and contact number custom engraved. For golf ball markers, 2,000 sets will be made available for sale, with each set containing two markers. Luggage tags and ball markers can be purchased from Korean Air's e-SKYSHOP (www.e-skyshop.com) starting May 3. Custom engraving requests can also be made on the website.



© KOREAN VOLLEYBALL FEDERATION

왕조로 거듭난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 Korean Air Jumbos Volleyball Team Becomes a Dynasty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이
통합 3연패를 이뤄냈다.
50여 년간 달려 마침내
대한항공 시대를 활짝 열었다.

The Korean Air Jumbos have
made history by winning
three consecutive volleyball
championships. Some
50 years in the making,
the era of Korean Air has
finally arrived.

written by * LEE JI-HYE



왕조. 스포츠의 세계에서 왕조는 오랜 기간 리그를 지배하는 팀을 칭송하는 단어로 쓰이곤 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리그 1위를 차지하는 팀에게 붙는 왕조라는 칭호를 2023년 4월,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이 차지했다. 대한항공 점보스는 2010년대 이후 춘추전국시대로 전개되던 남자배구 프로리그를 2020-2021시즌부터 3년 연속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십 우승을 독식하는 '통합 3연패'를 달성했다. 이로써 대한항공 점보스는 현대 배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점보스의 주장이자 1985년생 베테랑 한선수를 중심으로 탁월한 공수 밸런스, 날개와 중앙 공

In the world of sports, "dynasty" is a term used to describe teams that dominate their sport's league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In April 2023, Korean Air's professional men's volleyball team, the Jumbos, claimed this prized moniker after topping the league for the third straight year. Since the 2010s, no team had been able to call itself dynastic until the Korean Air Jumbos kicked off their winning streak starting with the 2020-2021 season.

The Jumbos are enjoying their spot at the top and have become one of the most feared teams in the league. Built around veteran player and captain Han Seon-su, the players are excellent in offense and defense. Coach Tommy Tiilikainen has also played a major role in elevating Korean Air to the throne. Tiilikainen, who took over as team coach in 2011, has brought youthful innovation to the Jumbos. He even won the men's coach award this season. On top of that, last season's members — outside hitters Jung Ji-seok and Kwak Seung-seok; the best opposite spiker, Lincoln; middle blockers Cho Jae-young and Kim Kyu-min; and libero, Jung Sung-min — all played a part in the team's success.

The Korean Air Jumbos, founded in 1969, became a professional volleyball team in 2005 and had a successful run.





격은 물론 수비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촘촘한 조직력을 이어나간 덕분이다. 특히 V리그 남자부 최초의 외국인 사령탑 로베르토 산틸리와 후임자 토미 킬리카이넨 감독의 선진 배구는 대한항공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는 데 큰 몫을 했다. 2021년 대한항공으로 부임한 토미 킬리카이넨 감독은 이번 시즌 남자부 감독상까지 차지했다. 여기에는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석과 광승석을 비롯해 명실상부 최고의 외인 아포짓 스파이커 링컨, 미들 블로커 조재영과 김구민, 리베로 정성민 등 지난 시즌 우승 멤버들이 고스란히 남아 손을 맞춘 덕도 컸다.

1969년 창단한 대한항공 점보스는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이후 본격적인 승리의 가도를 달렸다. 2007-2008시즌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친 후 꾸준한 팀 재정비를 통해 2010-2011시즌, 드디어 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에서 석패하며 좌절을 맛봤다. 이후 대한항공 점보스는 2015-2016시즌까지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승리의 칼날을 갈던 점보스는 드디어 2017-2018시즌, 정규리그 3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뒤 우승까지 차지했다. 첫 V리그 우승이었다.

올 시즌으로 점보스는 통산 네 번째 정상 자리에 앉았다. 특히 시즌 전에 열린 프로배구컵대회를 포함해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까지 우승하는 '트레블'을 달성했다. 한선수는 세터 포지션 MVP를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리즈 시절'을 이어나가는 중. 한선수와 토미 킬리카이넨 감독을 필두로 그려나갈 대한항공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



After finishing the 2007-2008 season in second place, the team finally won first place in the regular league in the 2010-2011 season. However, the Korean Air Jumbos had lackluster seasons for several years, and it wasn't until the 2017-2018 season that the team next experienced V-League victory.

This season, the Korean Air Jumbos won the regular league, the championship match as well as the professional volleyball cup tournament held before the opening of league play to claim the top spot in the league for the fourth time. Captain Han, who won the MVP award as a setter, is simply enjoying his glory days,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Air Jumbos is looking especially bright with him and coach Tiilikainen at the helm. The team is on a winning trajectory and the era of Korean Air has dawned.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의 결정적 순간들 Korean Air Jumbos Celebrate Their Victories



2020-2021시즌, 역대 최초 통합 우승을 앞둔 선수들
Ahead of the championship win (2020-2021)



2021-2022시즌, 뛰어난 공격력으로 통합 2연패를 이룬 링컨
Opposite spiker Lincoln in action (2021-2022)



2022-2023시즌, 첫 통합 3연패를 확신한 한선수의 포효
Celebrating championship win (2022-2023)

1997. 5.

대한항공 5월의 기록
May Records of Korean Air



복합 항공기지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Integrated Aviation Center Opens a New Era

1997년 5월, 대한항공은 서소문 시대를 마감하고 김포공항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대한항공의 복합 항공기지로서 첫선을 보인 OC(Operation Center)빌딩은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 김포공항 램프와 활주로로 이어지는 'ㄷ' 자형 건물 중심부에 초대형 격납고가 자리 잡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복합건물이었다. 대한항공은 OC빌딩을 통해 일찌감치 인천국제공항 시대를 맞이하는 동시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In May 1997, Korean Air ended its Seosomun era with a move to Gimpo Airport. A decade in the making, the unique design of the OC (Operation Center) building featured a large central hangar connected to the airport ramp and runway. The OC integrated the functions scattered between Seosomun and Gimpo Airport and established a centralized on-site management system, while preparing for the Incheon Airport era.

스카이패스

SKYPASS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 및 제휴사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해드리고, 보너스 항공권, 좌석 등급 보너스 등의 혜택을 드리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입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 및 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YPASS is Korean Air's frequent flyer program. SKYPASS members are able to receive awards by redeeming the mileage they have accumulated through using the services of Korean Air and its many partners. Please refer to the Korean Air website (www.koreanair.com) or mobile app for detailed information.

スカイパスは大韓航空および提携会社のご利用でマイルを積み立て、特典航空券や座席アップグレード特典などに交換できるマイレージプログラムです。詳細は大韓航空ホームページ(www.koreanair.com)またはアプリ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

SKYPASS是为感谢大韩航空及其合作公司的乘客而制定的常客优惠制度,可提供累积里程、舱位升级奖励等优惠。详细信息可通过大韩航空官方网站(www.koreanair.com)以及APP查询。

1. 회원 가입 안내 대한항공 고객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또는 대한항공 지점(공항 제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마일리지 적립 대한항공, 스카이트임 항공사 및 기타 제휴 항공사를 탑승하 시거나 신용카드사, 호텔, 렌터카 등 제휴사를 이용하시면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는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구간의 탑승 거리 및 지불하신 항공권의 예약 등급에 따라 적립됩니다. 스카이패스 회원 가입 후 탑승하신 항공편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된 경우,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패스 회원이 아닌 경우, 탑승 후 30일 이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해당 항공편의 마일리지부터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 항공사, 신용카드사, 호텔, 렌터카 등의 제휴사는 별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예약 등급별 적립률, 탑승 구간별 마일리지와 마일리지 적립 제휴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일리지 사용 대한항공 및 제휴사를 통해 적립하신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 좌석 등급 및 항공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부족할 경우,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보너스 가족 양도, 가족 마일리지 합산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캐시앤마일즈).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최소 500마일로부터 운임의 20%(세금, 유류 할증료 제외)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편으로 판매 및 운항되는 편도/왕복 여정에 대해 원화(KRW), 달러(USD)로 결제 시 이용 가능합니다(한국을 경유하는 여정, 타 항공사 및 공동운항 편, 다구간 여정 제외).



※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다양한 마일리지 사용처와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일리지 유효 기간 적립한 마일리지는 항공편 탑승일 또는 제휴 마일리지 적립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유효 기간이 적용되어,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한국 시각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발급 시 보유 마일리지 중 유효 기간이 가장 짧게 남아 있는 마일리지부터 사용되며, 유효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5. 우수회원제도 안내 우수회원이 되시면 대한항공 탑승 시 전용 카운터 및 라운지 이용, 수하물 우선 처리 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트임 항공사 탑승 시 회원 등급에 따라 스카이트임 소속 항공사의 공통 혜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별 상세 혜택과 자격 유지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How to Join Anyone can sign up to be a Korean Air member. You can apply for membership on the Korean Air website or mobile app, or at any Korean Air branch office (excluding airports).

2. How to Earn Miles You can earn mileage by boarding flights operated by Korean Air, SkyTeam airlines, and other partner airlines, or by using partner services such as credit cards, hotels, rental cars, and more. Korean Air boarding mileage accrues based on the point of boarding according to the flight distance of the segment flown and booking class of the ticket purchased. If mileage does not accrue for any flights boarded following SKYPASS registration, you can apply for mileage accrual within one year from the boarding date. If you are not a SKYPASS member, you can sign up within 30 days of boarding and earn mileage for the flight boarded. Mileage accrues on a separately established basis for partner airlines and partner services, including credit cards, hotels, and rental cars. Please refer to the Korean Air website for accrual rates per booking class, mileage per segment boarded, and mileage accrual for partner airlines.

3. How to Redeem Miles You can use mileage earned through Korean Air and its partners for award tickets, seat upgrades and additional services. If you do not have enough mileage, you can endorse awards and pool mileage with the Family Plan. When booking a ticket on the Korean Air website or the mobile app, you can pay for a portion of the fare with your mileage(cash and miles). You may use mileage for regular fares, starting from 500 miles, to cover up to 20% of the base fare (excluding tax and fuel surcharges). The cash and miles program is applicable when purchasing one-way/round-trip tickets for Korean Air flights in Korean won (KRW) and US dollars (USD), excluding codeshare flights, flights operated by other airlines, flights transferring via Korea, or multi-segment itineraries.



※ Please check the Korean Air website for detailed instructions for use.

4. Mileage Validity Accrued mileage is valid for 10 years from the boarding date or partner mileage accrual date, and it can be used until December 31 of the 10th year (based on Korea Standard Time). Mileage closest to expiry is used first when issuing award tickets. Unused mileage that passes this validity period will expire without carrying over.

5. Elite Member Program If you become an Elite member, you can enjoy various benefits and services when boarding Korean Air flights, such as use of designated counters and lounges, as well as priority baggage handling. Additionally, when boarding flights operated by SkyTeam member airlines, you can enjoy their benefits in accordance with your membership level. Please refer to the Korean Air website for detailed benefit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by membership level.

스카이패스 SKYPASS

1. 회원등록 大韓航空のお客様であれば、どなたでも会員登録できます。ホームページ、モバイルアプリ、または大韓航空の支店（空港を除く）でお申込みください。

2. マイルの積み立て 大韓航空、スカイチーム航空会社、その他の提携航空会社にご搭乗いただくか、クレジットカード、ホテル、レンタカーなどの提携会社をご利用いただくマイルを積み立てられます。大韓航空の搭乗マイルは、搭乗時点を基準にご利用の区間の搭乗距離、ご購入いただいた航空券の予約クラスに応じて積み立てられます。スカイパス会員登録後に搭乗されたフライトのマイルが加算されていない場合は、搭乗日から1年以内にマイルの積み立てを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す。スカイパス会員でない場合は、搭乗後30日以内に会員登録していただくと同当分のマイルから積み立てられます。提携航空会社、クレジットカード、ホテル、レンタカーなどの提携会社は、別途設定された基準によりマイルの積み立てができます。予約クラスごとの加算率、搭乗区間別マイルおよび提携会社の詳細は、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3. マイルの使用 大韓航空および提携会社を通じて獲得したマイルを利用して、特典航空券、座席アップグレード、付加サービス等の特典に交換できます。マイルが不足している場合はファミリープラン制度を利用して特典の家族譲渡、家族マイルージ合算も可能です。大韓航空のWebサイトまたはモバイルアプリで航空券を購入する際に、運賃の一部をマイルで支払うことができます（現金とマイルの組み合わせ）。マイルのご利用は、最低500マイルから、最大で基本運賃の20%までです（税金・燃油特別付加運賃は除く）。キャッシュ&マイルは、大韓航空の片道または往復航空券の購入を韓国ウォンでお支払いになる場合にご利用いただけます（共同運航便、その他の提携航空会社が運航する便、韓国で乗り継ぎする便、複数の区間を経由する旅程は除く）。



※ 大韓航空が提供する様々なマイルの使用先および具体的な使用方法は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4. マイルの有効期間 積み立てたマイルは、搭乗日または提携マイル加算日を基準に10年の有効期間が適用され、10年目となる年の12月31日（韓国時間基準）ま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また、スカイチーム加盟航空会社に搭乗の際にも、会員レベルに応じてスカイチーム共通特典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会員レベルごとの特典詳細および資格維持条件はホームページをご参照ください。

5. エリート会員制度 エリート会員になると、大韓航空搭乗の際に専用カウンターやラウンジ利用、手荷物優先処理など様々な特典・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スカイチーム加盟航空会社に搭乗の際にも、会員レベルに応じてスカイチーム共通特典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会員レベルごとの特典詳細および資格維持条件はホームページをご参照ください。

1. 加入会員指南 所有大韓航空の乗客都可以申请加入会员。您可通过大韩航空官方网站、手机APP以及大韩航空办事处（机场除外）申请加入会员。

2. 里程累积 搭乘大韩航空、天合联盟航空公司以及其他合作伙伴航空公司航班，或使用信用卡公司、酒店、汽车租赁公司等合作伙伴公司服务时，均可累积里程。大韩航空航班的里程累积，将以搭乘时间为基准，按照搭乘航段的距离以及机票的预订舱等累积。加入SKYPASS会员后，如果有遗漏累积的航班，可在搭乘日起1年内申请补登里程。如果您未加入SKYPASS会员，可在搭乘航班后30日内加入会员，将本次搭乘实绩累积里程。合作伙伴航空公司以及信用卡公司、酒店、汽车租赁公司等合作伙伴公司根据设定的不同标准累积里程。各预订舱等里程累积率、各航段累积里程以及可累积里程合作伙伴公司等详细信息，请访问大韩航空官方网站查询。

3. 使用里程 通过大韩航空以及合作伙伴公司累积的里程可兑换奖励机票、里程座位升舱奖励以及附加服务。如果里程余额不足，可通过家庭里程计划进行家庭里程合算或转让。通过大韩航空网站或手机应用程序购买机票时，可使用里程支付部分票价（Cash and Miles 混合支付）。最少不少于500里程，最多不超过相当于机票价格的20%。（不包括税费和燃油附加费）以韩元（KRW）购买大韩航空航班的单程/往返机票时可使用 Cash and Miles（不包括代码共享航班、其他合作航空公司运营的航班、在韩国转机的航班或多航段行程）。



※ 更多里程兑换详情及使用办法，请通过大韩航空官方网站查询。

4. 里程的有效期 累积的里程自搭乘航班日起或合作伙伴公司里程累积日起，有效期10年。里程至第10年的12月31日为止可以使用（韩国时间基准）。兑换奖励时，会按照里程有效期长短，由短到长依次序使用里程。有效期内未使用的里程将自动失效。

5. 优秀会员制度介绍 优秀会员搭乘大韩航空航班时可享受专属值机柜台、贵宾室、优先处理行李等多种优惠和服务。同时搭乘天合联盟航空公司航班时，可根据会员等级尊享天合联盟航空公司的共同优惠。不同会员等级可享受的优惠及优秀会员资格维持条件，请访问大韩航空官方网站查询。

우수회원 등급 Elite Member Status

구분 Membership Types 区分 类别	모닝칼름 클럽 Morning Calm Club モーニングカームクラブ Morning Calm 俱乐部	모닝칼 프리미엄 클럽 Morning Calm Premium Club モーニングカームプレミアムクラブ Morning Calm Premium 俱乐部	밀리언 마일러 클럽 Million Miler Club ミリオンマイラークラブ Million Miler 俱乐部
취득 조건 Eligibility 取得条件 获取条件	대한항공 탑승 5만 마일 또는 40회 이상 또는 대한항공 탑승 3만 마일 이상면서 제휴사 포함 5만 마일 이상 Members who have earned 50,000 miles or more on Korean Air, or earned 50,000 miles or more on Korean Air and SKYPASS partners (provided that at least 30,000 miles were earned from flying on Korean Air) or taken more than 40 qualifying flights on Korean Air 大韓航空搭乗5万マイルまたは40回以上、 または大韓航空搭乗3万マイル以上で 提携会社を含み5万マイル以上 搭乗大韓航空航班累积50,000及以上里程或搭乗大韓航空符合要求的航段40次以上或通过大韩航空及合作伙伴公司累积50,000及以上里程（其中至少30,000里程通过搭乗大韩航空累积）	대한항공(스카이트임 포함) 50만 마일 이상 Members who have earned 500,000 miles or more on Korean Air and/or other SkyTeam partner airlines (miles earned with non-SkyTeam partner airlines or through other partner companies, such as hotels and credit card or car rental firms, are excluded) 大韓航空(스카이트임含む) 搭乗50万マイル以上 搭乗大韩航空（包括天合联盟航空公司） 累积 500,000及以上里程	대한항공(스카이트임 포함) 100만 마일 이상 Members who have earned 1 million miles or more on Korean Air and/or other SkyTeam partner airlines (miles earned with non-SkyTeam partner airlines or through other partner companies, such as hotels and credit card or car rental firms, are excluded) 大韓航空(스카이트임含む) 搭乗 100万マイル以上 搭乗大韩航空（包括天合联盟航空公司） 累积 1,000,000及以上里程
스카이트임 우수회원 자격 SkyTeam Elite Member Status 스카이트 ムエリート会員資格 天合联盟优秀会员级别	Elite	Elite Plus	Elite Plus
자격 기간 Qualification Period 資格期間 会员资格维持时间	2년 2 Years 2年 2年	평생 Lifetime 生涯 永久	평생 Lifetime 生涯 永久

※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詳細は大韓航空ホームページ (www.koreanair.com) でご確認ください。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Korean Air website (www.koreanair.com).
※ 详细信息请访问大韩航空官方网站(www.koreanair.com)查询

휴대품 통관 안내

CUSTOMS PROCEDURES

신고 대상 물품 소지 승객에 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Passengers who are carrying items that need to be declared must fill out a Customs Declaration Form and submit it to the Customs Officer.

申告対象の物品を所持する乗客に限り 旅行者携帯品申告書を作成し税関職員へ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携帯需向海关申报物品的旅客须填写旅客物品申报表并交予海关人员。

휴대품 신고 대상 물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위조·모조·변조 화폐, 식품류, 마약류 및 비아그라, 무기류, 화학류, 유독성 또는 방사능 물질,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 판매 목적 물품, 회사 용품,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원화, 달러화 등 법정 통화, 자기앞수표, 여행자 수표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 다음 물품은 위 면세 범위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주류 **2병 2ℓ이하(미화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담배 면세가 제외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 범위 총량 40kg 이내, 해외 취득 총액이 10만 원 이내 이고 검역에 합격한 물품에 한합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통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자진 신고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에 의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출국 시 세관 신고 입국 시 다시 반입할 고가의 물품은 출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1만 달러 이상 외화 및 원화를 휴대 반출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은 반출이 제한됩니다.

면세 물품 구입 시 유의 사항 출국 시 내국인 면세 물품 구매 한도는 1인당 미화 5000달러이지만, 입국 시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초과분은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 관세청(www.customs.go.kr)

해외여행 시 마약 운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근 일부 여행객들이 무료 해외여행을 대가로 국제 마약 조직에 포섭되어, 항공 및 선박 편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구형하는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申告の対象となる携帯品 免税範囲を超過した物品、偽造・模造・変造貨幣、食品類、麻薬類およびバイアグラ、武器、火薬類、毒物または放射能物質、野生の動植物およびそれらを加工した製品、販売目的の物品または商業用の物品、US\$10,000を超過する支払手段(韓国ウォンやアメリカドルなどの法定通貨、小切手、トラベラーズチェックおよびその他の有価証券)

旅行者携帯品免税範囲 携帯品の免税範囲は*US\$800です。

※以下の物品は、上記の免税範囲とは別途免税されます。酒類**2本2リットル以下(US\$400以下)、タバコ200本、香水60ミリリットル。ただし未成年者(満19才未満)の場合は、酒類やタバコの免税対象から除外されます。

農林畜水産物、および漢方薬の免税範囲 総量40kg以内、海外での取得価格の総額が10万ウォン以内で、検疫に合格した品に限ります

免税範囲を超過した物品に対する通関 免税範囲を超える品物に関して自ら申告した場合、関税が30%軽減されます(軽減額は最高20万ウォンまで)。申告を怠った場合は、関税法に従って加算税が課されるなど不利益を受けます。

出国時の税関申告 入国時に再び持ち込む高価品は、出国時に申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US\$10,000以上の外貨や韓国ウォンを持ち出す場合も、税関に申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文化財、またはこれに準ずる物品は搬出が制限されます。

免税品購入時の注意事項 韓国人が出国時に購入できる免税品の限度額は1人当たりUS\$5,000ですが、韓国に入国する全ての旅行者の免税範囲は*US\$800であり、超過分は税関申告後、税金を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問い合わせ先 関税庁 (www.customs.go.kr)

海外旅行の際には麻薬の運搬に関わらないよう注意してください 最近、一部の旅行者が無料の海外旅行と引き換えに国際麻薬組織に抱きこまれ、航空便や船便などによる麻薬運搬を請け負い摘発されるケースが頻繁に発生しています。世界各国では、麻薬犯罪に対して最高で死刑を求刑するなど厳格な法を執行しており、被害を受けないように注意深く行動してください。

Goods to Declare: Goods exceeding the duty-free allowance; forged bills; wild plants or animals or any products made from them; meats; agricultural/forestry/fishery products and any other foodstuffs; illicit drugs; weapons, bullets, explosives or toxic substances; commercial goods for sale; currency worth over US\$10,000 (including US dollars, Korean won or any other legal tender, cashier's checks, traveler's checks or other means of payment).

Duty-Free: Goods for personal use with a total value not exceeding *US\$800. The following qualify for duty-free allowance calculated separately from other goods for personal use: **two bottle (not exceeding US\$400 in value and 2L in volume) of liquor, 200 cigarettes or 60ml of perfume (passengers under 19 years of age have no duty-free allowance for alcohol or cigarettes).

Duty-Free Allowance on Agricultural/Forestry/Meat/Fishery Products: The total value and weight of such products cannot exceed 100,000 won or 40kg, and all such items must be quarantined at customs.

Customs Clearance on Excess Goods: If a passenger declares goods exceeding the duty-free allowance voluntarily, tax may be reduced by 30%. Failure to declare excess goods will result in additional tax or oth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customs law.

Customs Declaration: If you have packed valuable items that you plan to bring back, you should declare them when leaving Korea. Korean and foreign currencies worth US\$10,000 or more must be declared. It is illegal to take items deemed "cultural assets" out of Korea.

Tips on Buying Duty-Free: The duty-free allowance for Korean travelers leaving Korea is US\$5,000; for all travelers entering Korea, it is *US\$800. Duty must be paid on any items with a total value exceeding these amounts.

※ Contact the Korea Customs Service for more information (www.customs.go.kr).

Narcotics: Recently, some travelers have been caught smuggling drugs by plane or by ship after being approached by international drug cartels to traffic drugs in exchange for free overseas trips. Countries across the world impose heavy sanctions, such as the maximum penalty, with regard to narcotics crimes, so we ask that travelers take great care in order to avoid becoming victims.

携帶物品申告対象 超过免税範囲の物品、偽造偽造貨幣、食品類、毒品类与伟哥类药品、武器类、火药类、有毒性及放射性物质、野生动植物及其所制产品、用于出售目的的物品、公司用品、超过 US\$10,000的货币 (包括韩元、美元等各种法定货币、个人支票、旅行支票和有价证券)。

旅行者携帶物品免税范围 旅行者可携帶物品免税范围为 *US\$800。

※下列物品在上述免税范围内另行免税。酒类**2瓶2升以下 (US\$400)、香烟200根、香水60毫升。但对未成年者(未满19周岁者)、酒类与香烟不在免税范围内。农林畜水产品及中药材免税范围 总量40kg以内, 海外购买物品总额低于10万韩元, 且检疫合格的产品。

关于超出免税范围物品的通关事项 超过免税范围的物品主动申报时, 韩币20万元限度内关税30%减轻。没有主动申报时, 则需征收相当于一定税额的追加税。

出境海关申报 出境时要申报返程入境时将重新携帶入境的高档物品等。携帶价值 US\$ 10,000以上的外币或韩币离境时也必须申报。文物及类似物品禁止携帶出境。

购买免税商品的注意事项 韩国国民出境时可购买的免税商品限额为每人 US\$ 5,000。入境时所有旅行者可携帶的免税商品限额为每人 *US\$800, 超过此限额需申报后支付税金。

※ 咨询关税厅 (www.customs.go.kr)

海外旅行时请注意避免被连累携帶毒品 最近在机场和港口, 频繁发生海外旅行的旅客为国际毒品组织携帶毒品的案例。世界各国对毒品犯罪进行法律严惩, 最高执行死刑。为免受受害, 请特别注意。

기내 서비스 순서

IN-FLIGHT SERVICE PLAN

식사 & 음료 Meal & Beverages
 가벼운 식사 & 음료 Light Meal & Beverages
 간식 & 음료 Snack & Beverages
 음료 Beverages
 기내 판매 Duty-Free Sales

한국 출발 편 From Korea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미주 The Americas	뉴욕 New York / 델러스 Dallas /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 밴쿠버 Vancouver / 보스턴 Boston /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 시애틀 Seattle / 시카고 Chicago / 애틀랜타 Atlanta / 워싱턴 D.C. Washington, D.C. / 토론토 Toronto / 호놀룰루 Honolulu (KE053)													
	도쿄 Tokyo ➔ 호놀룰루 Honolulu (KE001)													
유럽 Europe	런던 London / 로마 Rome / 마드리드 Madrid / 밀라노 Milan / 바르셀로나 Barcelona / 비엔나 Vienna / 암스테르담 Amsterdam / 이스탄불 Istanbul / 자그레브 Zagreb / 취리히 Zurich / 파리 Paris / 프라하 Prague /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 부다페스트 Budapest													
대양주 Oceania	브리즈번 Brisbane / 시드니 Sydney / 오클랜드 Auckland													
중동 Middle East	두바이 Dubai / 텔아비브 Tel Aviv													
러시아·중앙아시아 Russia · Central Asia	모스크바 Moscow / 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이르쿠츠크 Irkutsk													
	타슈켄트 Tashkent													
서남아시아 Southwest Asia	델리 Delhi													
	카트만두 Kathmandu													
	콜롬보 Colombo													
	콜롬보 Colombo ➔ 몰디브 말레 Maldives (Malé)													
동남아시아·괌 Southeast Asia · Guam	전 편 All Flights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	전 편 All Flights													

※ 노선은 당사 취항지 기준으로, 현행 운항 노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out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final destination.
 ※ 기종, 운항 시간 및 상황에 따라 서비스 순서/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rvice procedures and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ype of aircraft, flight schedule and situation.
 ※ 동북아시아 일부 노선의 경우 도착 전 식사나 음료를 제공해드립니다. Meals or beverages are provided on some flights from Northeast Asia shortly before landing.

해외 출발 편 From Oversea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미주 The Americas	뉴욕 New York / 댈러스 Dallas /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 밴쿠버 Vancouver / 보스턴 Boston /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 시애틀 Seattle / 시카고 Chicago / 애틀랜타 Atlanta / 워싱턴 D.C. Washington, D.C. / 토론토 Toronto / 호놀룰루 Honolulu (KE054)												
	뉴욕 New York (KE086) /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KE012) /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KE026)												
	호놀룰루 Honolulu ➔ 도쿄 Tokyo (KE002)												
유럽 Europe	런던 London / 로마 Rome / 마드리드 Madrid / 밀라노 Milan / 비엔나 Vienna / 암스테르담 Amsterdam / 이스탄불 Istanbul / 자그레브 Zagreb / 취리히 Zurich / 파리 Paris / 프라하 Prague /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 바르셀로나 Barcelona / 부다페스트 Budapest												
대양주 Oceania	브리즈번 Brisbane / 시드니 Sydney / 오클랜드 Auckland												
중동 Middle East	두바이 Dubai / 텔아비브 Tel Aviv												
러시아·중앙아시아 Russia · Central Asia	모스크바 Moscow / 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												
	이르쿠츠크 Irkutsk												
	타슈켄트 Tashkent												
서남아시아 Southwest Asia	델리 Delhi / 콜롬보 Colombo												
	몰디브 말레 Maldives (Malé) ➔ 콜롬보 Colombo												
	카트만두 Kathmandu												
동남아시아·괌 Southeast Asia · Guam	주간 편 Daytime												
	심야 편 Nighttime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	전 편 All Flights												

단, KE624, KE628, KE644편은 주간 편과 동일한 순서로 제공
 Service procedures on flights KE624, KE628 and KE644 are the same as those on daytime flights.

BEYOND ENTERTAINMENT

Touch anywhere to begin!



Movies 영화

대한항공에서 엄선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e provide various genres of movies at your fingertips.



TV

500편 이상의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asy access to over 500 TV programs and trendy short-form videos.



Audio 오디오

다양한 CD 음악과 채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Enjoy a variety of radio channels and music on demand.



Your Trip 여행 정보

운항 정보와 지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owse the moving map and flight information.



Kids 어린이 세상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와 TV, 음악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ovies, TV programs and music for children are also available.



Games 게임

게임 서비스는 현재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The game service is currently unavailable.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More 기타

좌석 및 AVOD 작동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about your seat and the AVOD user guide are available.



*기내 전원 공급장치

좌석에 장착된 전원 공급장치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충전할 수 있으며, 전력은 기종에 따라 110V/65W ~ 110V/150W 까지 제공됩니다.

* In-Seat Power Supply System

The in-seat power supply system provides passengers a place to charge electronic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laptop computers, and ranges from 110V/65W to 110V/150W, depending on the aircraft.

무선 엔터테인먼트 이용 안내

Instructions for Using Our Wireless Entertainment Service

A220-300, B737-8 항공기 탑승 시, 기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영화 / TV / 음악 등 다양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엔터테인먼트 이용 시 기내 정숙을 위해 이어폰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 개인 이어폰 지참 ※ AVOD의 기내 면세품 항목은 현재 유효하지 않은 내용이니, 기내지 <SKYSHO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This service is available to passengers on A220-300 and B737-8 aircrafts. Explore a host of free in-flight entertainment options by connecting to the network on your personal mobile device. Earphones are recommended while using the service to avoid inconveniencing other passengers.

* Please make sure to bring your own earphones. * Duty-free products are currently unavailable on this AVOD service, so please refer to the SKYSHOP magazine.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기내 무선 엔터테인먼트 접속 방법 How to Access the In-Flight Wireless Entertainment Service:

 비행기 모드로 변경
Enable airplane mode
on your device.




 와이파이를 켜 후
'Korean Air In-Flight'로 접속
Enable Wi-Fi and connect to
'Korean Air In-Flight'

Android 기기일 경우 For Android devices

안드로이드 기기는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 후 링크를 복사 후 크롬 브라우저에 복사된 URL로 접속하세요.

For Android devices, click on the [Copy Link] button on the screen and paste the URL into the Chrome browser.



 웹 브라우저에서
영화, TV, 음악 등
다양한 기내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onnect to our
entertainment service
using a web browser.

iOS 기기일 경우 For iOS devices

iOS 기기는
[Launch Portal]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For iOS devices, click on the [Launch Portal] button. This will take you directly to the portal.



※ 크롬(🟡) 혹은 사파리(🔵)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Chrome(🟡) and Safari(🔵) browsers are recommended.

※ 안드로이드 OS13 설치기기는 저작권보호 소프트웨어 문제로 영상 작동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If your device comes with Android 13, you won't be able to access video content because of issues with the copyright protection software.

스카이팀 SKYTEAM

대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델타항공, 미들이스트항공, 버진 애틀랜틱, 베트 남항공, 사우디아항공, 사만항공, 아르헨티나항공, 아에로멕시코, 아에로플로트, ITA 항공, 에어유로파, 에어프랑스, 중국동방항공, 중화항공, 체코항공, 케냐항공, KLM네덜란드항공, 타뭉항공으로 구성된 국제 항공 동맹 스카이팀은 2000년 창설 이래 광범위한 허브 노선망을 구축해왔으며 연간 3억 4100만 명의 고객에게 전 세계 1062개 이상의 도시로 하루 1만 62편 이상의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된 마일리지 혜택 스카이팀 회원사 항공편(우임 혹은 특별 할인 항공권 제외)을 이용하실 때 스카이패스 계좌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실 수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스카이팀 회원사의 공동 운항 편 중 스카이팀 회원사가 아닌 항공사가 운항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 ※ 좌석 승급은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만 가능하며, 출발 당일 공항에서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좌석 승급 가능 회원사: 대한항공, 델타항공, 사우디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아에로플로트, 에어프랑스, 중화항공, 체코항공, KLM네덜란드항공
- ※ 자세한 보너스 이용 규정은 대한항공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세계 각지의 스카이팀 항공사 라운지 이용 스카이팀 회원사 국제선 항공편의 일등석, 비즈니스석으로 여행하시는 고객과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회원께서는 전 세계 790개의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예약 네트워크 대한항공의 영업소가 없는 곳에서도 전 세계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의 시내, 공항 영업소에서 예약 및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탑승 수속 한 번으로 OK 한 번의 탑승 수속으로 스카이팀 회원사 연결 편까지 탑승권을 드리므로 환승지에서 별도의 수속 없이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 동 서비스는 스카이팀 회원사로 최대 2회까지 환승 시 이용 가능합니다.
- (* 한국 출발의 경우 최초 출발 편은 국제선만 해당)

다양한 스케줄과 편리한 연결 편 인천, 파리, 애틀랜타 등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의 주요 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36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1만 5445편 이상 항공편의 풍부한 스케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관된 서비스 절차 스카이팀 회원사는 공항, 기내에서 공통된 서비스 절차를 제공하므로 회원사의 어느 항공편을 이용하셔도 일관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가 운항하는 구간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엘리트 회원이 되시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Founded in 2000, SkyTeam, comprising Aeroflot, Aerolíneas Argentinas, Aeroméxico, Air Europa, Air France, China Airlines, China Eastern Airlines, Czech Airlines, Delta Air Lines, Garuda Indonesia, ITA Airways, Kenya Airways, KLM Royal Dutch Airlines, Korean Air, Middle East Airlines, Saudi Arabian Airlines, TAROM Romanian Air Transport, Vietnam Airlines, Virgin Atlantic and Xiamen Airlines, offers its 341 million annual passengers a worldwide system of more than 10,062 daily flights to over 1,062 destinations.

More Miles Earn miles on eligible SkyTeam flights with qualifying fares and redeem them on SkyTeam-operated flights for SkyTeam Award Tickets and Mileage Upgrades.

- ※ Codeshare flights of SkyTeam airlines operated by non-SkyTeam carriers are NOT eligible for mileage credit.
- ※ Seat upgrades are only permitted for upgrades from Economy Class to Business Class on some international flights if you book before the day of departure.
- ※ For detailed regulations, please contact the member airline operating your frequent flyer program.

More Lounges SkyTeam Elite Plus members and international First and Business Class customers traveling on SkyTeam partner airlines can enjoy free access to 790 member lounges worldwide.

Reservation Network Reserve and obtain information at any of SkyTeam's ticket offices. In addition, worldwide passengers can seek assistance at the offices of any SkyTeam partner.

Single Check-In When connecting to other SkyTeam flights, check-in for all flights can be completed at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 ※ This applies to itineraries with transfers involving a maximum of 2 SkyTeam airlines. (* If departing from Korea, the first flight must be international.)

More Flights & Easy Connections Enjoy a choice of more than 15,445 daily flights to over 1,036 destinations worldwide and convenient connections with our extensive worldwide hub network.

Quality Standards Guaranteed SkyTeam quality service on all member airlines.

Mileage gained from SkyTeam flights can be used to upgrade your membership to SkyTeam Elite Plus status. SkyTeam Elite Plus members can enjoy even more benefits when traveling on international flights.

혜택 내용 Benefits	엘리트 회원 Elite Member	엘리트 플러스 회원 Elite Plus Member
정상 운임 지불 시 일반석 예약 보장 Guaranteed Economy Class Reservation Upon Purchasing Full-Fare Tickets		○*
위탁 수하물 우선 처리 Priority Baggage Handling		○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Lounge Access		○**
대기 예약 우선 처리 Priority Reservation Waitlist		○
공항 대기 우선 처리 Priority Airport Standby	○	○
전용 카운터 이용 Priority Check-In ****	○***	○
일반석 사전 좌석 배정 서비스 Advance Seat Selection in Economy Class *****	○	○
추가 무료 수하물 허용 Extra Free Baggage Allowance *****	○	○
항공기 우선 탑승 Priority Boarding	○	○

* 정상 운임은 Fare basis란에 Y(YRT, YRTKE, YOW, YOWKE)로 기재되며, 출발 24시간 전에 예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장거리 노선에 한합니다(대한항공은 비행거리 6시간 이상 노선).

** 스카이팀 국제선 운항 편으로 여행 시 탑승 클래스에 상관없이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며, 동편 1인 (당일 스카이팀 국제선 이용 조건)과 함께 라운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스카이팀이 직접 운항하지 않는 공동 운항 편 탑승 시 라운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 이용 시 엘리트 회원은 제외됩니다.

**** 대한항공의 경우 엘리트 플러스 회원은 프레스티지시 카운터를, 엘리트 회원은 모닝짐 점 부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엘리트 플러스 회원 및 엘리트 회원이 대한항공 탑승 시에는, 모든 노선에서 수하물 1개가 추가 허용됩니다(단, 미주 노선의 일반석 탑승 엘리트 회원 제외). 기타 스카이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 따라 엘리트 플러스 회원은 20kg 혹은 수하물 1개, 엘리트 회원은 10kg 혹은 수하물 1개가 추가 허용되오니 세부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엘리트 회원 혜택 적용은 회원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및 스카이팀 홈페이지(www.skyteam.com)에 접속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ull-fare tickets are designated with Y (YRT, YRTKE, YOW and YOWKE) as the fare basis. Request must be made at least 24 hours prior to departure. For Korean Air/Air France, this applies to long-haul flights only (flights that are over 6 hours long for Korean Air).

** Elite Plus members traveling in any class of service on international SkyTeam flights have access to member airlines' lounges, with up to one guest (also traveling on an international SkyTeam flight). Restrictions may apply when using codeshare flights operated by non-SkyTeam airlines.

*** For Korean Air, only applicable for Elite Plus members.

**** In the case of Korean Air, Elite Plus members can access Prestige Class counters, and Elite members can access Morning Calm Bag-Drop counters.

***** In the case of Korean Air, Elite members can select a seat in advance for no extra charge, with the exception of Extra-Legroom Seats and Preferred Seats, and Elite Plus members can select a seat in advance for no extra charge, with the exception of Extra-Legroom Seats.

***** When traveling on Korean Air, Elite and Elite Plus members are entitled to one extra piece of luggage on all routes except on transpacific routes for Elite members traveling in Economy Class. For other SkyTeam members, Elite Plus members are entitled to an extra 20kg (44lbs) or one additional piece of luggage. Elite members may be entitled to an extra 10kg (22lbs) or one additional piece of luggage. Restrictions may apply with certain airlines or itineraries. Please contact the operating airlines for more information.

Benefits for SkyTeam Elite Plus and Elite members can be subject to limitations, depending on which airline is being us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www.skyteam.com.

제휴 항공사

WORLDWIDE AIRLINE PARTNERS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을 비롯해 전 세계 36개 항공사와 공동운항하거나 마일리지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대한항공의 공동운항 편을 이용하여 더욱 자유롭게 노선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선과 함께 알차고 편리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Korean Air has partnered with 36 airlines, including the members of SkyTeam, to offer a range of codeshare flights and frequent-flyer program benefits. By flying with Korean Air's worldwide alliance, which connects every continent, passengers can take advantage of Korean Air's expansive global network. This is all part of Korean Air's commitment to giving its passengers more flexibility and choice, no matter where they travel.



스카이팀 항공사 SkyTeam Alliance



공동 운항 항공사 Codeshare Partners



공동 운항 편 제반 서비스는 양사 간 협의하에 제공되나, 기본적으로 운항사 기준을 따릅니다. 일부 운항사에서는 사전 좌석 배정, 아기 바구니, 특별 기내식, 스카이패스 우수 회원 혜택, 웹/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ll services provided on codeshare flight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agreement made between both carriers but basically follow the rules of the operating carrier. Some operating carriers may not provide services such as advance seat request, bassinet, special meals, SKYPASS benefits and web/mobile/kiosk check-in.

호주 입국 신고서
DISEMBARKATION CARD FOR AUSTRALIA

입국여객용 카드 • 호주		모든 질문에 X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 확실치 않으면 빈칸에 X 표시하십시오	
부른색 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28. 다음과 같은 물건을 호주에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1 성	HONG	1. 의약품, 스테로이드, 불법 모르핀, 흡기, 무기 혹은 불법 약품 등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질	네 아니오 X
2 이름	GIL DONG	2. 2250mL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 50개피를 초과하는 담배 또는 50g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	네 아니오 X
▶ 여권번호		3. 선물을 포함하여, 합계금액이 호주달러 \$900 이하 이상되는 물건으로, 해외에서 가져온 호주내에서 관세 그리고/또는 세금을 면제하여 구매한 물건	네 아니오 X
6 M 1 2 3 4 5 6 7 8		4. 사업/상업 용도의 상품/경품	네 아니오 X
7 비행기편 번호 혹은 선박 이름	KE 1 2 1	5. 호주달러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	네 아니오 X
10 호주내에서 체류할 주소	290 STREET SYDNEY NSW 2000 주 N S W	주의: 세관원이나 경찰이 요청할 경우, 귀하는 여권자 수표, 수표, 메니 오더, 혹은 어떤 금액이든 소지자가 양도 가능한 기타 증서를 보고해야 합니다.	
26 다음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 계획이십니까?	네 아니오 X	6. 귀류, 개금류, 생선, 해물류, 개란, 유제품, 알레, 채소	네 아니오 X
27 당신이 호주 시민이 아니라면: ▶ 갑박을 알고 있습니까? ▶ 범죄 전과가 있습니까?	네 아니오 X 네 아니오 X	7. 곡류, 찌맛, 구근, 콩, 견과류, 식물, 식물외 일부분, 동물 의약품 혹은 약초, 육각 제품	네 아니오 X
선서	서명	8. 동물, 동물의 일부, 정비를 포함한 동물 제품, 애완동물 음식, 알, 생물제제, 생물 표본, 새, 물고기, 곤충, 조개류, 양봉 제품	네 아니오 X
내가 제공한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나는 물론 중 어느 것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Gildong Hong	9. 총 또는 총이 될거나 당수 지역에서 사용된 폭발, 가열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장비, 신발 등	네 아니오 X
		▶ 10. 지난 30일 동안 농장, 농장의 가축, 황어 혹은 갈돔/호수 등에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X
		▶ 11. 지난 6월 이내에 아프리카, 중남미 혹은 카리브해에 체류하였습니까?	네 아니오 X
		25 0 7 1 2 2 0 2 2	이 카드를 뒤집으세요 Korean

호주 국내 의 연락처		비상 연락처 (가족 또는 친구)	
11 전화	(61) 1 2 3 4 - 5 6 7 - 1 2 3	30 이름	KIM DAE HAN
12 이메일	gildong@koreanair.com	31 이메일	daehan@koreanair.com
29 주소		32 전화 또는 우편주소	82-10-1234-5678
영어로 작성하십시오			
▶ 어느 나라에서 이 비행기편 혹은 선박에 탑승하였습니까?			
9 KOREA	34 X 표시를 하시고 A 또는 B 또는 C항에 답을 하십시오		C 호주로 귀국하는 영주자
▶ 당신의 평소 직업은 무엇입니까?	A 호주로의 영구 이민	B 방문자 혹은 임시 거주자 X	▶ 해외에서 주로 체류한 국가
33 BUSINESSPERSON		▶ 호주에서의 예상체류기간	
▶ 여권에 기재된 국적		▶ 영구거주 국가명	KOREA
4 KOREA		▶ 호주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 (한 항목에만 X 표시)	
▶ 생년 월 일 년		대회/회의 1 고용 4 휴가 X 7	
3 0 7 0 3 1 9 8 4		사업 2 교육 5 기타 8	
		친구나 친척 방문 3 전직회 6	
본 양식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정보는 이민, 세관, 검역, 통계, 보건, 여생동식물 및 환경에 관한 호주 법률 시행에 필요하며, 이 정보의 수집은 법률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이러한 영역의 관계 기관과 호주 법률에 의거 정보 취득 허가를 받거나 취득 요령이 있는 기관에게만 제공됩니다. Privacy notice (개인정보보호 공고) 14421 양식은 이민국경정보부 웹사이트 www.border.gov.au/allforms/ 에서 가능합니다.			
		06151508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5 15 KOR iDesign date 05/151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외교부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전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가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영사콜센터(현지 국제전화 코드) +80021000404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broad, contact the consular call cente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perates a 24-hour consular call center to support Korean citizens seeking help from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an accident or emergency abroad. For urgent matters reported to the call center, all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adquarters are equipped with an immediate response syste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www.mofa.go.kr Website Dedicated to Safe Overseas Travel www.0404.go.kr

Consular Call Center (local international dialing code) +800 2100 0404

QUARANTINE & SECURITY INFORMATION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농축수산물을 휴대한 경우 사전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Travelers exhibiting symptoms of infectious diseases or bringing in plants, meat or fish must go through the quarantine process.

全ての旅行者は、健康上の問題があったり農・畜・水産物を持ち込む場合、事前に申告し検疫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所有入境旅客如有身体异常或携带农、畜、水产品时请提前申报并接受检疫。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경유)한 여행자는 반드시 한국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별 감시 기간은 기내 좌석에 비치된 별도의 안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질병관리청(www.kdca.go.kr)

황열예방접종 안내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적도 인근 국가로 여행하기 10일 전에 의무적으로 황열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문의 국립검역소(nqs.kdca.go.kr) 해외감염병 NOW(해외감염병now.kr)

농산물 모든 식물은 병원균(病原菌)이나 해충(害蟲) 감염 검사를 하며, 대부분의 과실류와 흙이 묻어 있는 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 육류와 육가공품(육포, 소시지 등)의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반입이 가능한 국가의 축산물인 경우에도 수출국 동물 검역 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 문의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수산물 살아 있는 수산 생물과 냉동, 냉장한 전복류 및 굴, 새우류 반입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항공기 내 액체류 휴대 반입 제한 안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폭탄 테러 위험에 대비하고자 대한민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해 액체, 분무, 젤류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객 소지 개인 휴대 물품에 한하여 100ml 이하의 액체류 용기를 투병하고 봉인 가능한 1ℓ 이하의 비닐 봉투 안에 담았을 경우, 기내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 보안 자율 신고 제도 항공 보안 자율 신고 제도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항공 승객 등 모든 국민이 민간 항공의 보안을 해지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인지하였을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신고하면, 공단은 중요 위험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입니다.

신고 방법 이메일(avsec@kotsa.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avsec365.or.kr) 접속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www.avsec365.or.kr)

入国時に健康状態質問書を作成 検疫感染症汚染地域を監視期間内に訪問(滞在、経路)した旅行者は、必ず韓国入国時に「健康状態質問書」を作成し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に違反した場合、過料が科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検疫感染症汚染地域別の監視期間は、シートポケットにある別途の案内をご確認ください。問い合わせ先 疾病管理廳(www.kdca.go.kr)

黄熱の予防接種案内 アフリカ、中南米の赤道近隣国家へ出発する場合、10日前に黄熱の予防接種を受ける義務があります。国際公認予防接種証明書(Yellow Card)を要求する国もあります。
問い合わせ先 国立検疫所(nqs.kdca.go.kr) 海外旅行疾病情報センター(www.kdca.go.kr)

農産物 全ての植物は、病原菌や害虫に感染していないか検査する必要があります。大部分の果実類と土が付着している植物は持ち込めません。*

畜産物 肉類と肉の加工品(ビーフジャーキー、ソーセージなど)の場合、韓国への持ち込みが禁止されている国があります。持ち込みが可能な国の畜産物である場合にも、輸出国の動物検疫機関が発行する検疫証明書を提出し、検疫を通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問い合わせ先 農林畜産検疫本部(www.qia.go.kr)

水産物 生きている水産物と冷凍、冷蔵したアワビ類およびカキ、エビ類を持ち込む場合は、必ず申告しなければならず、輸出国の政府機関が発行した検疫証明書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問い合わせ先 国立水産物品質管理院(www.nfqs.go.kr)

機内への液体持ち込み制限に関するご案内 国際民間航空機関(ICAO)の勧告により、液体爆弾テロの脅威に備えて、大韓民国から出発する、または乗り継ぎの乗客に対して、液体やスプレー、ジェル類の航空機内への持ち込みを制限しています。乗客が所持している個人携帯物品に関して、100ml以下の液体用容器を透明で封印可能な1リットル以下のビニール袋に入れたものに限り、機内への持ち込みが可能です。

航空保安申告制度 2014年4月6日から航空保安申告制度が施行されました。航空機の乗客などの個人が民間航空の保安を害する、あるいは害する恐れのある事実を認知した場合、交通安全公団に申告することで公団がその危険について関係機関に通知し、必要に応じた保安対策を打ち立てる制度です。

申告方法 E-mail(avsec@kotsa.or.kr)または公団ホームページ(www.avsec365.or.kr)
問い合わせ先 交通安全公団(www.avsec365.or.kr)

Health Questionnaire If you have visited, stayed in or arrived via quarantinable disease risk areas during the monitoring period of a quarantinable disease, you must submit a health questionnaire when entering Korea. Violation may result in a fine. For information on the monitoring period of quarantinable diseases in other countries, please refer to the guide in your seat pocket. **More inform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ww.kdca.go.kr)

Yellow Fever Vaccination Passengers traveling to equatorial countries in Africa or the Americas must be inoculated against yellow fever at least 10 days before departur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vaccination certificate (yellow card) may be required from passengers from certain countries. **More information** National Quarantine Station (nqs.kdca.go.kr) Travelers Health Information Center (www.kdca.go.kr)

Plants and Produce Inspectors will examine all agricultural products to determine if they are free of pests and diseases. The import of most fruits and plants bearing traces of soil is prohibited.*

Meat and Meat 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beef jerky, sausage, etc.) from certain countries are prohibited from being brought into Korea. When bringing in animal products from permitted countries, you must submit a quarantine certificate issued by the animal quarantine agency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pass quarantine inspections.*
* **More information**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www.qia.go.kr)

Fish and Crustaceans Passengers bringing live marine animals or frozen or refrigerated abalone, oysters or shrimps into Korea must declare them and submit a quarantine certificate issued by the authorities at the country of origin.
More information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www.nfqs.go.kr)

Restrictions on Carrying Liquids Aboard Aircraft Liquids, aerosols and gels must be carried in containers with a capacity no greater than 100ml. The containers should be placed in a transparent resealable plastic bag no larger than 1L in capacity. As oversize plastic bags may be confiscated by security personnel, you are advised to check excess amounts with your luggag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our staff or visit our website (www.koreanair.com).

Aviation Security Voluntary Reporting System A voluntary reporting system aimed at reinforcing aviation security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6, 2014. Travelers and other individuals who believe they have encountered a possible threat to civil aviation security are advised to file a report with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 which will then inform related bodies of potential risks in order to take appropriate security measures. Reports can be made by email (avsec@kotsa.or.kr) or via the TS website (www.avsec365.or.kr). **More information**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www.avsec365.or.kr)

入境时填写健康状况调查表 来自检疫传染病区监测时间内的旅行者(滞留、途经)入境时必须提交健康状况调查表,如违反将征收罚款。各检疫传染病区的监测时间请另行参考飞机内放置的通知。咨询 疾病管理廳(www.kdca.go.kr)

黄热病预防接种说明 从非洲、中南美及赤道附近的国家出发前10天必须义务接受预防黄热病的疫苗接种。个别国家入境时会要求出示国际公认预防接种证明书(Yellow Card)。咨询 国立検疫所(nqs.kdca.go.kr) 海外旅行疾病情報中心(www.kdca.go.kr)

农产品 所有植物类必须接受病原菌及害虫感染检疫,水果类及带有泥土的植物一律不得携带入境。*

畜产品 一些国家的肉类和肉加工品(肉干、香肠等)禁止入境。允许畜产品入境的国家,必须出示出口国家动物检疫机关颁发的检疫证明书并通过检疫。*
* 咨询 农林畜产检疫本部(www.qi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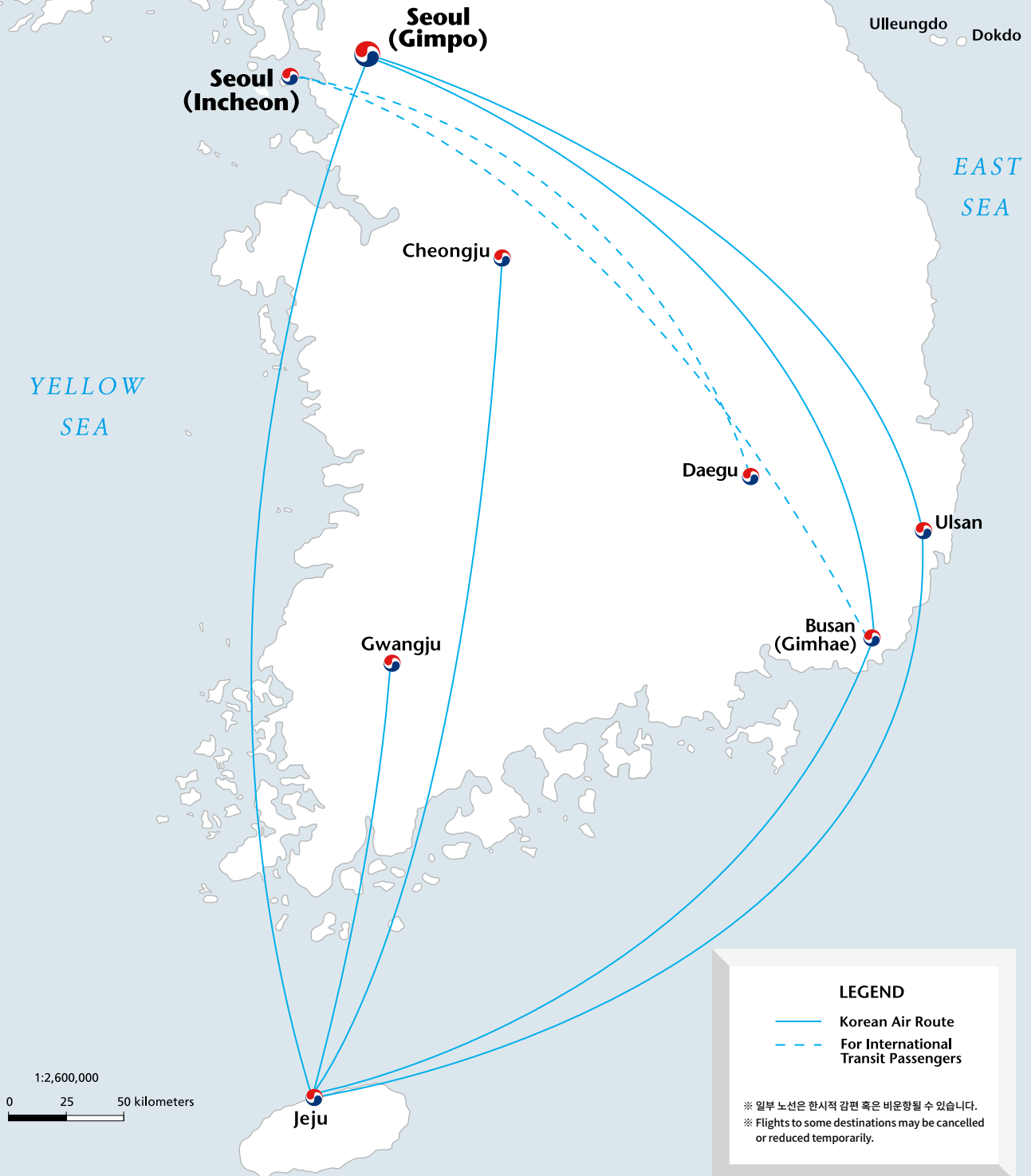
水产品 携带活水产生物和冷冻、冷藏鮑鱼、牡蛎及虾类时,必须申报,且出示出口国家政府机关颁发的检疫证明书。咨询 国立水产品品质管理院(www.nfqs.go.kr)

机内限制随身携带液体指南 根据国际民航组织(ICAO)的规定,为了防止液体炸弹恐怖威胁,对从韩国出发或在韩国换乘的乘客限制机内随身携带液体、喷液、凝胶。乘客仅可随身携带100ml以下液体类,并且要把液体容器装进可以密封的1ℓ以下的透明塑料袋内方可带入机舱。

航空安全自愿举报制度 自2014年4月6日起,韩国实施航空安全自愿举报制度。若个人(乘坐飞机的乘客等)发现涉嫌对民间航空安全有影响或者有可能有影响的事件并向交通安全公团举报,交通安全公团将把涉及重大危险的事件通知有关机构,迅速制定必要安全措施。

举报方法 电子邮件(avsec@kotsa.or.kr)或登录公团网站(www.avsec365.or.kr)
咨询 交通安全公团(www.avsec365.or.kr)

KOREAN AIR DOMESTIC ROUTE MAP



1:2,600,000
0 25 50 kilometers

LEGEND

- Korean Air Route
- For International Transit Passengers

※ 일부 노선은 한시적 감편 혹은 비운항될 수 있습니다.
※ Flights to some destinations may be cancelled or reduced temporarily.

KOREAN AIR EAST ASIA ROUTE MAP



LEGEND

- Korean Air Destination
- Korean Air Route

※ 일부 노선은 한시적 감편 혹은 비운항될 수 있습니다.
 ※ Flights to some destinations may be cancelled or reduced temporarily.

1:13,800,000
 0 200 400 kilometers

110°E

120°E

130°E

20°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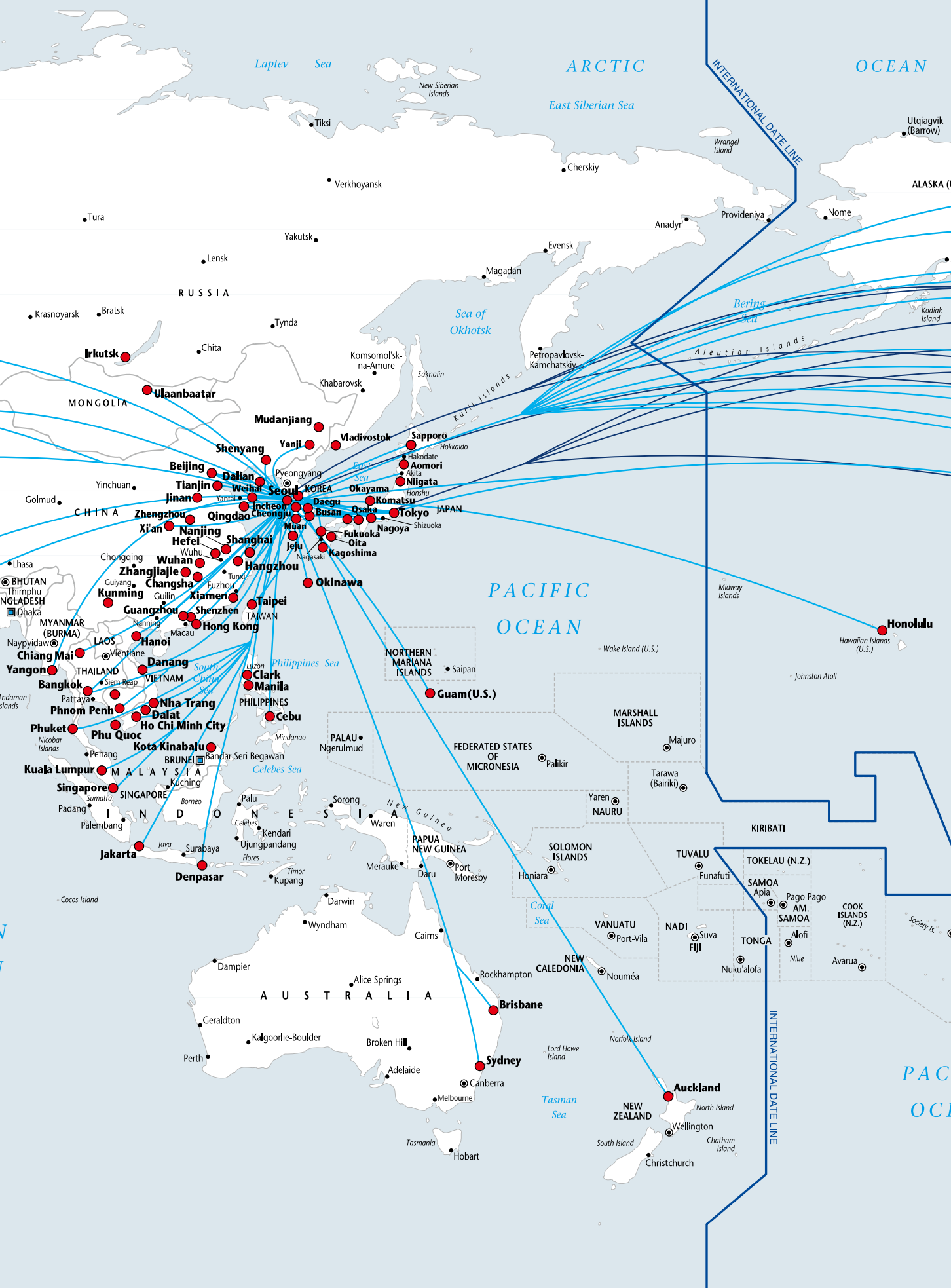
30°N

40°N



KOREAN AIR

INTERNATIONAL ROUTE MAP





LEGEND

- Korean Air Destination
- Delta Destination
- Korean Air Sales Office National Capital
- Korean Air Sales Office Major City
- National Capital
- Korean Air Route
- Delta Route

※ 일부 노선은 한시적 감편 혹은 비운항될 수 있습니다.
 ※ Flights to some destinations may be cancelled or reduced temporarily.



LEGEND

- Korean Air Destination
- Delta Destination
- Korean Air Sales Office National Capital
- Korean Air Sales Office Major City
- National Capital
- Korean Air Route
- Delta Route

※ 일부 노선은 한시적 감편 혹은 비운항될 수 있습니다.
 ※ Flights to some destinations may be cancelled or reduced temporarily.



We are the face of seamless travel.



© BEIC

No matter where you're heading in the world, SkyTeam member airlines offer you more convenient connections, more fast-track services than any other alliance thanks to SkyPriority, the broadest set of loyalty benefits at 970+ airports around the globe.

To learn more about how SkyTeam can make your travel smoother visit skyteam.com



“CUSTOMER FIRST”

항공사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받은
 국내 유일의 항공사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만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객
 관들과
 가치창출”
 협업의 극적
 향상을 이룬 수송부과 일별
 으로 고객만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임을 명시하는 등 획기적인 CCM
 실천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 전
 분야 '서비스개선위원회' 정기
 개최** 고객중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객
 발권/운송/기내객실서비스 등 여객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Feedback하여 고객서비스
 품질제고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VOC) 체계
 및 고객 설문 조사 (Net Promoter Score) 실시**
 VOC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비스개선위원회의
 개선활동을 통해 서비스품질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VOC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성과를 보였으며, 국제선 탑승객 대상 고객 설문 조사(NPS/Net
 Promoter Score)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양한 신규 서비스 기획 비대면/비즈니스 환경 확대, 국내 최초
 자체 개발 BRS 도입, 한양 웰빙 서비스 확대 시행
 AUTO Check-in 서비스, 멀티항공 조인트 벤처를 통한
 대량양 노선 유기적 연결성 확대, 크루 이해를 위한
 고객 이해 최소화를 위한 이일인지 유통기간 연장
 미용까지 복합결제 시범 도입 등 고객 유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획하여, 고객
 만족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IT 경영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

글로벌
 대형항공사
 중 최초로 전자
 IT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아마존 웹서비스
 (AWS Amazon Web Services)로
 이관 완료하였으며, AVOID 콘텐츠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라운지 운영
 시스템 개편 등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ESG 경영 확산**
 친환경 항공기 B787-9 추가 도입을 위한 국내 최초 ESG채권 발행
 SKPASS 승 조항, 탄소중립항공유 도입 노력 등 고객의 지속가능
 삶을 위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관들과 가치창출” 협업의 극적
 향상을 이룬 수송부과 일별
 으로 고객만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임을 명시하는 등 획기적인 CCM
 실천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 전 분야
 '서비스개선위원회' 정기
 개최** 고객중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객
 발권/운송/기내객실서비스 등 여객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전략과제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결과를 Feedback하여 고객서비스품질제고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VOC) 체계 및 고객 설문 조사
 (Net Promoter Score) 실시** VOC를 체계적
 으로 분류하여 분석,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비스
 개선위원회의 개선활동을 통해 서비스품질제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VOC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 서비스
 개선 성과를 보였으며, 국제선 탑승객 대상 고객
 설문 조사(NPS/Net Promoter Score)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지를
 심사하는 법정인증제도입니다

ZURICH

FLY AND DISCOVER. THE WONDER OF NATURE



KOREAN AIR 

www.koreanair.com